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 새록(錄)

세종시 여성 생애 구술사

2. 여성 시장상인 편

세종여성플라자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4년 세종여성플라자의 <세종시 여성 생애구술사> 사업의 결과물로, 세종시 여성상인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엮었습니다.
2. 세종여성플라자는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는 의미로 새록(鏤) 2기를 모집하였고, 그 중 여섯명이 이 책을 발간하는데 참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은 구술자의 언어표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구술자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로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4. 구술내용 중 단어 등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5. 구술자의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입니다.
6. 구술자 기록 뒤에 채록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7. 구술자의 연보 위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구술자로부터 받은 과거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진은 이진선, 영상기록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 새록(錄)

세종시 여성 생애 구술사

2. 여성 시장상인 편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 새록(錄)

세종시 여성 생애구술사

2. 여성 시장상인 편

발간사 • 006

여는 글 • 010

세종시 전통시장 지도 • 030

세종시 전의시장 '전의시외버스정류장'

나의 평생 참 좋은 직장, 전의시외버스정류장 • 031

김순자 구술, 오연정 기록

세종시 조치원시장 '원동떡집'

배짱으로 당차게 잘 살았어 • 057

김종귀 구술, 이근하 기록

세종시 대평시장 '제일지업사'

가슴 속 명울 • 077

안동예 구술, 정혜경 기록

세종시 대평시장 '용포떡방앗간'

저희는 오래된 거 없어요. 오래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 101

이근숙 구술, 김경숙 기록

세종시 부강시장 '부강양복점'

이름 날리는 일, 그런 건 없지만 반듯하게 살아왔다 • 127

이순희 구술, 조미희 기록

세종시 조치원시장 '달성기물'

그냥 물건만 사가면 뭐하잖아 • 151

최경희 구술, 김수현 기록

닫는 글 • 176

새록(錄) 2기 소개 • 178

시장 여성 상인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024년 세종여성플라자의 ‘세종시여성생애구술사’ 두 번째 작업의 결과물이 나와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여성 농업인에 이어 올해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 지역의 부강, 전의, 대평, 조치원의 시장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주해 온 대부분의 시민들이 처음에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알게 되어 가보면 정겹다고 좋아합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조치원 시장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새벽부터 나와 분주하게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성실함, 오고 가는 사람들의 정겨움, 사계절의 변화를 몸과 냄새로 맡게 되는 삶의 장소입니다. 언젠가부터 온라인이나 근처 대형마트에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는 뜻을 담아 작년에 이어 채록자 새록(錄) 2기를 모집하였고, 올해도 구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구술사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지역을 구성해왔는지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 해나가는 작업입니다. 1980년대 말 사회적 정치적 운동으로 출발했던 한국의 구술사는 2010년경부터 본격화되면서 2020년대에는 지자체와 민간 단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타 지역과 다르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생성된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 연구가 아직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마을활동기록을 수집·보존 관리하는 시설인 마을기록문화관의 디지털 자료저장소 ‘다담(多談)’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마을의 역사·지리·시민의 삶·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제별 기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가 큼니다.

세종여성플라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구술사’는 그동안 남성 권력에 의해 쓰인 역사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들을 말(구술)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드러냅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젠더 경험의 역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 생애구술사 연구의 중요성에서 드러났듯이, 구술자료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사적 진실’*을 드러내 또 다른 의미의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하는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고, 무엇이 드러나지 못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 윤택림(2019),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 방법론』 아르케

각 지역별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발빠른 곳은 2000년대부터, 주로 2010년대부터 여성생애구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여성플라자가 여성·가족·양성평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조례 제4조)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견줄만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세종여성플라자가 세종시 여성 생애구술사 사업을 이어 나가려는 이유는 작은 물꼬를 터서 우리 지역의 여성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함입니다.

올해도 구술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채록자 ‘새록 2기’김경숙, 김수현, 오연정, 이근하, 정혜경, 조미희 여섯 분의 노고에 제일 먼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업에 함께 하신 분들은 노련함으로,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공동의 작업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했고, 구술자와 인터뷰의 상호작용 과정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이 분들은 구술자의 말을 따뜻한 마음으로 듣는 ‘청자’이자 최초의 ‘독자’였습니다.

채록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던 실번스토리의 강소금 작가님은 매 모임마다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응원을 듬뿍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사 발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소금 작가님과 실번스토리 소속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술자들의 영상을 담기 위해 애써주신 세종시청 자미디어센터에도 인사를 전합니다. 김경화 팀장님은 구술사 작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이채원 주임님은 교두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촬영 장비와 씨름하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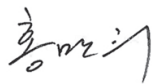
촬영에 임했던 박민정, 박지현, 신지연, 유금령, 이대우 선생님들 덕분에
작업물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장 여성 상인 섭외를 위해 협력해 주셨던 각 시장의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 분들, 구술 책자 발간에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세종중앙신협
홍종용 이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의 애환을 나눠주
신 여섯 분의 삶에 존경을 표합니다. 김순자, 김종귀, 안동예, 이근숙, 이
순희, 최경희 구술자 분들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이 책자
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이, 무덥고 추운 날씨
를 온몸으로 이겨내 온 현장 속에서 장사뿐만 아니라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까지 감내하며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여성들의 역사를 반추해봅니
다. 들려주신 귀한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다른 여성들의 삶과 보이지 않
는 끈으로 연결되어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앞으로도 여성생애구술사의 작업물을 꾸준히 진행
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새로운 역사 쓰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세종시 시장의 역사와 여성들의 삶

: 여성의 기록을 계속 이어 나가기

이진선(세종여성플라자 교육사업팀장)

전통시장은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생의 현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이며, 지역의 역사와 애환을 담은 ‘살아 있는 장소’이다. 주로 상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이지만 한편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이 젊은 세대의 ‘힙한 놀이터’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세종시에는 4곳의 시장이 세종시의 생성과 변천 과정과 함께 해왔다. 부강전통시장, 전의왕의물시장, 대평시장, 조치원시장(세종전통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삶의 터전이었다. 산업화, 도시화, 교통의 발달 등 근대적 현상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알 수 있기도 하다. 먼저, 우리 지역 시장 4곳의 역사와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조치원시장의 공식 명칭은 ‘세종전통시장’이지만 본 글에서는 지역 기반으로 시장을 쉽게 구분지어 알 수 있도록 ‘조치원시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시장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글은 디지털세종문화대전 사이트와 『조치원읍지』, 『부강면지』의 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였다.

부강시장

금강 상류 뱃길의 마지막 포구였던 부강(芙江)은 오래전부터 수운의 중심지로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청주·문의·공주·연기·회덕



등 평야 지역의 물산 집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생활필수품과 이 지역에서 나가는 상품은 부강시장을 거치거나 주로 부강역을 이용했다. 충청북도의 인근 시장 중 부강시장은 청주시장 다음으로 큰 규모였고, 상인이 100명에 구매자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 주요 거래 품목은 쌀과 콩, 소금과 같은 필수품이었고, 연초와 면화도 주로 사고 파는 품목이었다. 특별한 거래 상품은 사금(砂金)으로 인근에서 금을 채취하고 부강시장에서 사들였다. 나루터로 돌아오는 배에는 강경젓갈을 비롯한 해산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들어왔고, 1960년대 중반까지 우시장이 서는 날에는 장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우스갯소리로 ‘부강장에는 김으로 불쏘시개를 하고 명태로 부지깥이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해산물이 많았다고 한다. 최남선의 ‘경부철도가(1908)’에도 부강역을 기반으로 한 장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부강면지, 2015: 115-117)

“내판역을 지나서 미호천 건너/몇 십 분이 안되어 부강역이니/충청일도 윤(潤)
내는 금강가이라/쌀 소금의 장터로 유명한데오.”

하지만 점차 물자 수송은 철도로 이동해 갔고, 1914년 호남선이 완공



장날마다 열리던 부강의 우시장(1930년대) (출처: 부강면지 (2015))

되면서 부강역은 여객과 화물이 점차 줄어들어 역세권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하천에 모래가 쌓여 배가 다닐 수 없게 되면서 상권이 급격하게 줄었다. 99년간 충북의 일원이었던 청원군 부용면이 2012년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되고 교통의 흐름이 끊기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장이 더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세종시 되면서부터 여기는 다 절단난 거야. 차라리 여기가 청원군에 있었으면 더 좋았지. 여기 사람들 다 그래. 지금 부강으로 오는 길이 다 막혔잖아. 여기로는 (청원군) 버스가 안 내려와. 청주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부강에 와야 장사가 되는 건데, 버스가 댄 데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온대. 다들. 그래서 장사꾼들 다들 이사 가고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우리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 할 때가 됐으니까 괜찮지만, 오늘 가게들도 다 문 닫고 다 안 하잖아요. 그전에는 세종시 안됐을 때, 청원군 때는 여기가 굉장히 잘 됐었지. 지금은 청주 버스가 부강으로 안 나오거든. 하루, 두 번

밖에 안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부강 오려면 시골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두 번
씩 갈아타야 부강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느냐고 안 나오지. (이순희
구술자 기록 중 일부)

현재 부강시장은 상설시장이면서 5일장 시장으로 매월 5일, 10일, 15
일, 20일, 25일, 30일에 장이 열리며, 2005년 부강전통시장 상인회가 조
직되었다.

전의왕의물시장

조선시대에 개설된 전의시장(全義市場)은 현내장(縣內場)으로 불려왔
다. 『동국문헌비고』 전의현에는 유수기장(柳藪岐場)이 1일과 6일, 『전성
지』에는 현내장이 2일과 7일, 『충청남도읍지』에는 현내장이 1일과 6일
각각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의면 지역 시장은 당초 읍내리와 신방
리의 경계를 이루는 조천(鳥川)변에 위치했다가 홍수로 물길이 변하면
서 현내리(縣內里), 즉 현재의 읍내리로 이전하고 1일, 6일 열리던 장날
도 2일, 7일로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전의군이 연기군에 통
합되고 읍내리를 포함한 13개 리가 전의면으로 출범하면서 명칭이 전의
장(全義場)으로 바뀌었다.

시장은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천안의 목천면·광덕면 주민과 공
주의 정안면 주민들이 기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왕래하면서 한때 번창하
기도 하였으나 국도가 개설되고 버스가 통행하면서 상권이 위축되었다.

전의 장터는 세종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3·1 만세 시위가 전개된 곳으
로, 애국지사 이수옥 선생의 주도로 1919년 3월 13일 장꾼 수백명이 “대

한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의역 인근 동편과 구(舊) 국도 제1호선 남측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5일장의 중심축이 농협 건물 인근인 구 국도 제1호 북측으로 옮겨졌고, 그 곳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다. 김순자 님의 구술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전의역을 중심으로 교통의 왕래가 매우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정류장 업무가 많았죠.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오면 우리가 회사로 전화를 하죠, 어째 차가 안 들어왔다고. 거기서 연락해 주면 그대로 얘기하고, 직행버스도 버스 안내양이 밀고“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진짜 딱딱 찼었지. 밤에 한참 잘때, 12시 넘어서도 전화가 와요. 깜짝 놀래서 빨리 받거든. 차 시간 묻고, 술 잡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에다 보따리 놓고 내렸다고 그거 좀 찾아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찾아다 놓죠, 어디로 연락하라고도 하고. (중략) 요즘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기차 손님, 서울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고추니 곡식 그런 거 물건 사가지고 부치고 할 때 그때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서울에 다 있잖아. 농수산물 시장이다, 과일 그런 거 다 있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내려오니깐 더하지. (김순자 구술자 기록 일부)

2011년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면서 명칭을 ‘전의왕의물시장’으로 바꾸었다. ‘왕의 물’은 세종대왕이 눈병에 걸려 고생할 때 전의면 관정리

에서 나는 초수(椒水)*를 매일 날라다 치료하였다는 유래에 근거하여 붙여졌다.

대평시장

금남면 용포리의 대평시장은 『공산지』와 『충청남도읍지』 기록에 따르면 공주목 양야리면의 감성(甘城)시장이 전신이다. 4일, 9일 장이 열리던 감성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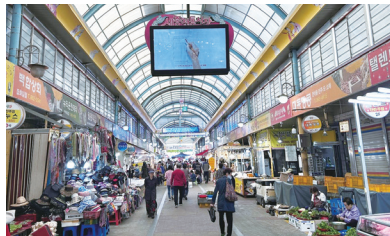
을 1908년에 없애고, 현재 대평동 지역에 대평장(大平場)을 개설하였다. 이 곳은 금강 연안에 위치하여 공주·부강 등지에서는 배를 이용하여 왕래하고 조치원·남면·유성 등지에서는 육로로 장꾼이 모여들던 큰 시장이었다. 전의시장에 이어 대평시장도 1919년 4월 2일 2,300여 명의 만세시위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다.

번창하던 대평장은 1946년 6월 26일 대홍수로 금강이 범람하면서 폐허가 되었고, 수해로 안전한 현재 시장의 위치인 용포리로 이전하였다.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평시장은 약 3,000여평 규모로 매월 2, 7, 12, 17, 22, 27일에 5일장이 서고 있다. 2006~2007년도에는 시장 내 아케이드 시설을 완비하였고, 공용주차장도 조성되었다. 대전과 가깝고 인근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시장 상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 천연의 탄산수를 이르는 말

조치원시장

조선시대 연기현의 북쪽 변두리에 속했던 조치원은 당시에 조치원장과 침산장이 열렸는데, 시장이 열렸던 곳은 장대리(현재 평리, 상리지역)였다. 『동국



문헌비고』기록에 따르면 조치원장이 4일, 5일 열린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부터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1년에는 경부선 철도를 놓기 위해 일본인들의 거주가 시작되었고, 1905년 조치원역이 개설되면서 신 흥도시로 부각되었다. 당시 조치원이 충청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기후가 온난하고 토질이 좋아 농업의 적지(適地)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한에서 손꼽히는 큰 시장으로 특히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재배가 유명했고, 대파와 무가 조치원의 명산이었다. 일제는 1916년부터 신시장(新市場) 구획공사를 실시하여 1917년에 준공·이전하였고, 기존의 구시장(舊市場)은 1925년에 폐지되었다.

이 무렵에 개설된 조치원 어시장(魚市場)은 공주, 청주, 충주, 강원 남



1920년대 조치원 시장(출처: 이규현(1986),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 : 산하와풍물』 서문당)



1990년대 전반기 조치원시장(출처: 주영하 외(1995), 『한국의 시장 : 제2권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편』)

부지역까지 해산물을 공급하여 유명했다. 조치원장은 1919년 3월 30일 애국지사 홍일섭을 비롯한 1,500여 명이 3·1 만세 시위를 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 번창했던 조치원 시장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1970년대부터 점차 상권이 축소되었다.

시장명	세종전통시장		세종대평시장	전의 왕의물시장	부강전통시장
상인회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044-868-4209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 044-863-4209	금남대평시장 상인회 044-867-3838	전의전통시장 상인회 044-846-0859	부강전통시장 상인회 044-867-7191
위치	조치원읍 정리 19-1 일원		금남면 용포리 205-42 일원	전의면 읍내리 236-2 일원	부강면 부강리 475-1 일원
면적	부지30,560㎡ 매장16,810㎡		부지10,116㎡ 매장5,264㎡	부지10,466㎡ 매장7,270㎡	부지2,645㎡ 매장2,053㎡
등록일	2023. 1. 18.		2006. 11. 9.	2011. 8. 5.	2005. 9. 2.
점포수	277개		69개	78개	64개
상인 회원수	181명		49명	60명	44명
편의시설	주차타워(200면)/주차장(71면), 이벤트광장(25면)/공중화장실(3동) 고객지원센터/비가림시설 등		주차장(40면) 공중화장실(1동) 고객지원센터 비가림시설 등	고객지원센터 주차장(40면) 공중화장실(1동)	고객지원센터 주차장(51면) 공중화장실(1동)
장날운영	5일장(4일, 9일)		5일장(2일, 7일)	5일장(2일, 7일)	5일장(5일, 10일)

<표> 세종시 시장 및 상인회 현황*

* 세종시 소상공인으로부터 받은 자료(2024년 초 기준)

2004년에는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 아케이트,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2013년에는 시장 명칭도 세종전통시장으로 바꾸었고, 현재 상인회는 세종전통시장상인회와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로 나뉘어 있다. 약 9,200평 규모로 점포 수는 약 280여개가 있고, 임대운영 영세점포가 다수이다. 매월 4, 9, 14, 19, 24, 29일에 5일장과 상설시장이 혼재되어 있다.

‘여성주의 구술사’와 시장 여성 상인의 삶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기, 여성들이 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 며느리,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식 통이기도 하다. 세종지역의 여성상인 구술사 작업은 지역의 역사와 여성사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삶의 영역을 관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60.2세이며, 여성 상인의 비율은 전체의 64%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화 전후 시기에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6명의 구술자들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출생하여 세종시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지역의 변천 과정을 지켜본 ‘토박이’다. 구술자들을 찾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직접 만나거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개를 받았다. 처음에는 인터뷰 자체에 대해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들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채록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며 라포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



솔하게 내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휴일이 거의 없는 시장의 특성상 한 번에 긴 시간을 할애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지만, 틈나는 대로 만났다. 구술자들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치유의 과정’이었고, 채록자들은 ‘배움의 과정’이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여성주의 구술사’의 관점으로 구술자들을 만났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은 사적인 영역으로 주변화 취급을 받으며 공식적 역사에서 지워진다. 이런 문화에서 억압된 젠더 경험의 기억을 가시화하기 위해 여성들을 ‘인식의 주체’로 위치짓기한다. 이는 주류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들을 부록처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처한 그 시대의 사회적 관계 맥락 속에서 젠더 주체로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의미를 가진다(이재경, 2012: 22-23).

또한 채록자들과 함께 읽었던 책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여성의 목소리는 그 시대의 젠더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을 드러내며 여성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주목해 보면 그 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실상이 담겨있다(안미선, 2020: 22)”. 채록자 6명은 구술 작업의 과정 속에서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눈물, 침묵, 표정, 경계, 독백 등까지도 반영되고 있음을 몸소 깨달았

다. 구술자들의 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채록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였는지 또한 여성주의 의미의 발견이다. 구술 기록이 활자화되는 동시에 독자들과 함께 공유되면서 더 넓은 세계의 확장을 제안한다.

6명 여성 구술자들의 이야기

구술자 중 1970년생 이근숙 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대 이상으로 그 시절, 배움의 열망이 컸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가지 못했던 경험 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오빠, 남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김종귀 님은 1990년대 드라마 <아들과 딸>을 보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짙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전형적인 그런 딸이었다고 강조했다. 학교 가는 것 대신 빨리 일을 시작하여 집안 살림에 한 톨이라도 더 보태야 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구술자들은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어려서 하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뭐. 하고 싶은 것마다 노여. 군대 가고 싶다니
께는 군인도 안 돼. 내가 한다는 건 다 노여. 아유, 난 고등학교 간다고 그랬어
요.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나 전학시켜 달라고. 근데 안 된대. 일해야 되니까. 큰
일꾼이었거든. 학교 땡기는 어렸을 적에도 (김종귀 구술 기록 중)

위로 오빠 둘은 좀 가리켰고 이제 밑으로도 가리켰고, 딸들은 중학교도 못 가리
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막말로 또 중학교만 가도 또 그게 흥이었어. 왜 어
른들 왜 막말하는 거 있잖아. 지집애들이 뭐 학교 다녀서 뭐 하느냐, 배워서 뭐

하느냐. (최경희 구술 기록 중)

게다가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로 어린 시절, 전쟁의 참상 및 상흔을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933년생인 이순희님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는 오사카 폭격을, 한국으로 이주 후에는 17세에 한국전쟁을 목도했다.

앞으로는 전쟁이라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얼마나 불쌍하다고. 난리 나면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뢰가 팡팡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 거라니까. 인민군들 맞아서 죽은 거. 미군들 죽은 거. 아이고…… 매운 냄새, 썩는 내, 아주 끔찍했어. 하여간 난리는 나면 안 돼. 난리 나서는 안 돼.
(이순희 구술 기록 중)

한국전쟁 이후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노동에 나섰는데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많지 않았다. 1962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여성 130만명 중 취업한 여성의 수가 약 12만명으로 9퍼센트 정도에 불과했고, 취업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식모를 하거나 생산 공장 직공 등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용과 양재(洋裁)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김미선, 2012: 124).

이순희님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양복점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기술자를 두다가 자연스럽게 재단 기술을 배워 ‘전문 재단사’가 되었다. 이순희님의 구술 기록을 보면 한국사회의 옷의 유행, 변천도 엿볼 수 있다. 그

리고 신사복을 몇백벌씩 만들고, 근처 공장의 단체복이며 신부님, 스님, 수녀님들의 옷까지 직접 만들어 주었던 기억은 곧 자부심이었다.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순희 님에게 ‘바느질’은 ‘보람’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다른 집 옷은 몇 년 못 입어. 사람들이 옷이 떨어지고 하니까야 중에는 우리 집으로 맞추러 오는 거야. 옷을 만들 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다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깐 만들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았지. 바느질 하는 게 참 보람이 있어요. (이순희 구술 기록 중)

어려웠던 시절, 무엇이든 팔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소는 여성들에게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한 직업 훈련 없이 뛰어들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3남매를 큰 집에다 맡기고, 2년인가 3년인가 서울가 일했지. (중략) 고생고생 징글징글하다고 깃잇 장사도 하고 그냥 안 해본 게 없어.(울음을 삼키며) 시골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서울 올라가 남의 파출부, 가정부도 살아보고. 아이고, 배우기를 했어. 뭐 했어. 평화시장 그것도 물어 물어 가 미역도 떼다 팔아보고 떡집에서 떡도 떼어다 팔아보고 안 해본 게 없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차 타고 어떻게 했나 몰라. (안동예 구술 기록 중)

시장여성상인들은 일뿐만 아니라 자녀, 어르신 의 돌봄까지 감당해야 했다. 누구나 자녀 돌봄은 처음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익숙하게 해내야 하

는 만능 ‘슈퍼우먼’을 요구한다. 가게 한편에서 어린 아이들을 등에 업고 돌보면서 손님을 맞이했다.

그때는 남편들도 철부지였어. 철이 없었나 봐. 껍뻑거리고. 애기를 낳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뭐 하는 줄 알아. “남 안 낳는 애기를 낳냐”그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소리가 굉장히 섭섭했었어. 이런 데서 이렇게 평생을 우리네가 이렇게 살고 지켜왔지. 애기들도 그냥 조그만 방에서 살은 거지. 집에서 애기 키워가며 장사했지. 응 애기 키워가며 등허리 업고 살림해가며. (최경희 구술 기록 중)

김종귀 님은 아버지가 한약방을 운영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일만 했던 ‘일부자집’에서 자랐다고 표현한다. 결혼하고 돈이 없어 시작한 장사는 과일, 옥수수, 마늘, 생선 등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팔았다. 리어카를 끌면서 정해진 곳 없이 이곳저곳에서 노점으로 생활하던 시절, 갑자기 떡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다. 업종의 귀천이 어디 따로 없지만 자녀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 또한 김종귀 님의 몫이었다.

하루아침에 떡장사로 업종 바꾼 거는 첫째는 애들이 커서 학교를 가니까 니 엄마 생선 장사해 니 아버지 생선 장사해 행여래도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을까봐 하루아침에 딱 끝낸겨 그 기계 그런 거 나왔단 소리 듣고서는. (김종귀 구술 기록 중)

가끔 제가 안쓰러워요. 결혼 이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서 고치고 다시 사고 하는데…… (한숨) 몸이 언제까지 따라줄지 그게 지금 의문이기는 한데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지금 몸이 아프고 안 따라줘서 앞으로 5년만 버티줘도 감사할 정도예요. 진짜로 우리 신량도 많이 지금 아파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5년만 버티줘도. 만일 5년을 버텼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만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근숙 구술 기록 중)

가게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병환을 온전히 감내하는 과정을 겪었던 이근숙 님은 구술자 중 가장 젊은 편에 속했지만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시집 식구들이 해오던 방앗간 일을 물려받으면서 같이 살다보니 이중 돌봄이 형성된 것이다.

이동 동선이 짧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좁은 점포,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시장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끼니도 제때 먹기가 어렵고 바쁘면 건너뛰기 일쑤다. 설이나 추석 대목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쉬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제한이 크며 건강의 취약함에 놓이기 쉽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남성상인보다 여성상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배영실, 2020). 세종 지역의 전통시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날씨에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채록자들과 한여름 날씨에 시장의 점포를 찾았을 때, 그 안에서 잠시 머무는 것도 힘들었는데 구

술자들은 긴 시간의 노동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상인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및 관련 제도화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마음도 돌볼 수 있는 심리상담 등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일은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등 모든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가진다. 사회보장이나 소득 안정을 제공받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시장이라는 장소는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반추해보면 일반 마트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의미가 있다. 안동에 님 가게에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기보다 오며 가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다. 전의면에서 오랫동안 버스정류장을 지켜온 김순자 님은 밥을 먹지 않은 손님들에게 아침밥까지도 나눠 먹는 정이 있다.

오래 해서 단골도 많고, 연신 사람들이 오니 외로울 새는 없어. 장사하면서 안 쓰고 내가 운영을 지독하게 하니깐 그렇지 쓰는 사람 같으면 용돈도 안 나와. 한나절에 마수도 여지껏 안 들어오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벌어 먹고살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인심을 안 잃어 사람들이 우리 집 밖에 앉을 데가 없다는 거. 이번에 나 병원에 있어 한 달 문 닫았을 때 난리였어. 어디가 물 한 모금 먹을 데도 없다고. (안동에 구술 기록 중)

* 한 예로 울산시는 2018년부터 춘해보건대 산학협력단과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협약을 맺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울산 전통시장 상인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큰 호응>,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27168.html>)

나 처음 시작할 때는 시골에 버스가 하루 4대, 오전에 두 대, 오후에 두 대, 그럼 우리 방에 손님들이 항상 있어. 어떤 때는 첫차로 아침밥을 안 잡수고 나오면 밥 해놓은 거 차려드리고. 점심때 되고 저녁때 되고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렇잖아, 우리 먹을 때 손님이 앉았는데 우리만 먹나, 그래서 그때 쌀을 더 많이 먹고 김치도 더 많이 담았고. 적게는 안 해보가지고 친절에서도 하면 많이 하는 거 보고. (김순자 구술 기록 중)

채록자 김수현 님은 후기 글에 “전통시장의 사고 파는 행위는 상품과 돈을 맞교환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정교하게 짜가는 작업이며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묻고 응답하는 돌봄”이었다고 표현했다. 손쉽게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류가 된 시대에 시장을 오히려 찾는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이다.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이근숙 님의 발언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떡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집가면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었던 게 사라지죠. 정말로 내가 팔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는 그런 분들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의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서 힘을 들이지요. (이근숙 구술 기록 중)

구술자들은 경험치로 쌓여온 장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릇 장사를 하고 있는 최경희 님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버티는 성실함이야말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손님들에게 줄 음료수를 상시 구비

해 놓고 안부를 묻고, 시장 상인들끼리도 서로 팔아주며 상부상조하는 ‘시장 공동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문화였다. 가끔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할 일도 생기지만 그런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품어 안는 넉넉함으로 노하우를 발현한다.

외상 떼이기도 했어요. 가져가고서 안 가져오는 인간들도 많았어. 이 인간들이 언제 줄게, 내일 모레 월급 타면 줄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나타나지가 않아. 이제 그걸 안 갚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 떼야지 뭐. (중략) 남한테 아유 저 여자 밥맛이 어쩌구 그런 소리를 되도록이면 안 듣고 살을라구 장사도 그동안은 내가 많이, 열심히 했어. (최경희 구술 기록 중)

나는 누가 무슨 얘기 전달하면 나 못 들은거여 나는 직접 전화해 그라고 절대 말 걸르는 거 아니고 줄여서 알아들어야 되고 걸러서 알아야 돼. 매사에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들어오는 말 나한테 들렸으면 걸러야 되고 줄여야 되고 전해줄 적에도 조심해서 줄이고 걸르고 말이라는 건 무섭지요. 아유 말 무서운 거예요. (김종귀 구술 기록 중)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선을 지킨다. 쉽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성상 누군가의 말을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터득한 삶의 지혜는 구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이야기였다.

구술자들이 판매하는 물건, 방법, 추구하는 삶은 모두 다양하지만 구술자들의 경험은 “가족, 일, 삶의 균형을 위해 분투하며 시장에서의 노동

에 임하는 활기와 가능성,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내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는 의미(채현정, 2022)”를 갖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새록 2기 채록자 여섯명과 5월부터 만나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술자들의 삶을 모두 헤아리기 어렵고, 해석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의 파동이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점점 확장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장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구술자들이 시장이라는 장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발견(김현경, 2015: 288)하는지 살펴보자.

전통시장을 지역 주민의 교류와 화합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공간의 매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매력’이라는 것이 발현될 수 있을까? 기성세대는 대부분 시장을 어린 시절 한 편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시장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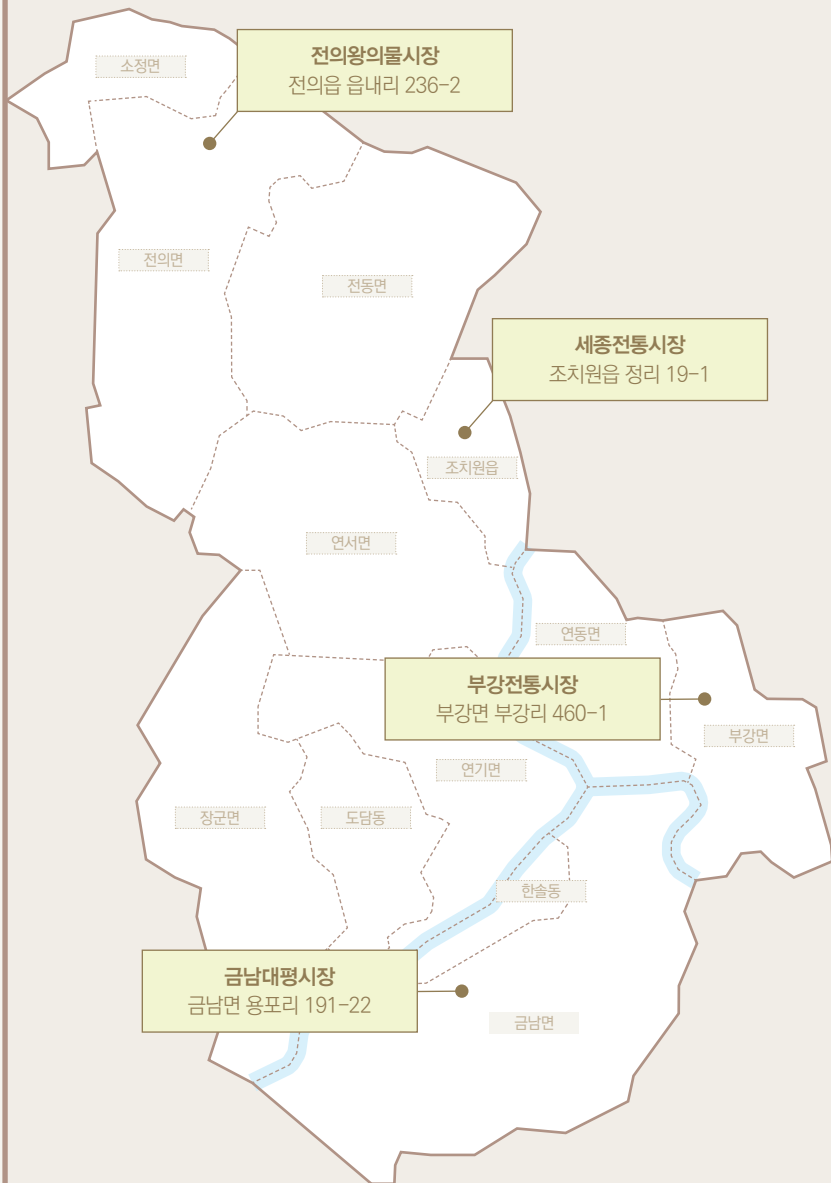
그 이전에 시장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삶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부터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삶과 우리를 잇기 위해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미를 발견해보자. 앞으로 이러한 기록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용원, <[칼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출처: <https://www.saja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2>)

참고 문헌

- 김미선(2012), 『명동 아가씨』, 마음산책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배영실(2020), 「전통시장 여성상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 부강면지발간위원회(2015), 『부강면지』
- 안미선(2020),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 낮은산
- 이규현(1986),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 : 산화와풍물』, 서문당
- 이재경 외(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조치원읍지편찬위원회(2012), 『조치원읍지』
- 주영하 외(1995), 『한국의 시장 : 제2권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편』
- 채현정(2022), 「불안정 노동의 빛과 그림자: 태국 여성 시장 상인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
-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웹사이트 <https://sejong.grandculture.net/sejong>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지도



김순자 생애구술사

나의 평생 참 좋은 직장,
전역시의외버스정류장

세종시 전역시장 '전역시의외버스정류장'



김순자 말하고, 오연정 쓰다

인터뷰 영상 보기



연보

1947년	1세	청주 서천동 출생
1973년	26세	전의면 농가 차남과 결혼
1975년	28세	큰딸 출산
1976년	29세	아들 출산
1976년	29세	청주로 분가
1977년	30세	전의로 귀향
1978년	31세	전의시외버스정류장 시작
1978년	31세	막내딸 출산
1980년	33세	전의 물난리
2006년	59세	뇌출혈 투병
2014년	67세	위 수술 위험
2021년	74세	대장암 수술
2024년	77세	전의시외버스정류장 운영 중

울 안에만 있던 대가족 만파

원래는 47년생인데요, 어려서 너무 작아서, 엄마가 나를 외갓집에 가서 낳았는데, 울 때 후루마기(두루마기)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작으면, 그래서 2년 늦게 (출생신고)실렸어요. 이름은 큰어머니가 지어줬대요. 엄마가 베를 짜는데 젖 먹여서 누이면 그냥 하루 종일 논대요, “애는 너무 순하니까 그냥 순자라고 저.” 그렇게 큰어머니가 지었대요.

태어나서 자란 곳은 바뀌어서 지금은 청주 흥덕구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서천동이라고 그랬어. 큰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카들을 3살, 6살 때서부터 데려와서 키웠대요. 그런데다가 또 다른 부모 없는 사람들까지 키워서 장가들여서 땅까지 줘서 내보냈대요. 그분들을 다 우리가 큰어머니 큰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시켰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방, 옷방, 건너방, 사랑방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대요. 그 사람들이 이웃에서 다 살았어요. 일할 때 다 오죠, 옛날에는 모 심고 하려면 한 100여 명 돼야 해요. 그래서 밥해가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잘 됐나 봐요. 자손들이 다 잘 됐어.

할아버지가 금강교*를, 대전에 무슨 교가 있었대요, 그 책이 이만큼(양손을 벌려 표현) 하대? 그 책을 안고 새벽 저녁으로 외우시고 며르치(멀치) 하나, 고기라는 건 일절 안 잡셨어요. 시골에 살아도 닭 한 번, 미꾸라지 한 번을 안 잡아보셨대요. 할아버지가 많이 잘 믿어서 그런지 잘 되고, 내가 된 일 있어 꿈꾸면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도와주더라고.

자랄 때 맨날 방에만 들어앉아 있었지,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 몰래 영화 구경 갔던 거, 김지미 신성일 나올 때 몰래 갔다 온 거, 그런 기억이

* 금강대도 민족종교

지 댜. 옆에 위에 큰 집이 있어도요. 거기도 잘 못 갔어요. 고 위에 언니가 양장점을 하던가, 그것도 배워서 한다니까 할머니가 안 된대. 여자가 뭘 나가서 그런 걸 하냐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올안에서만 살았지. 할아버지가 저녁에 보초 섰잖아요. 딱 마당에 서가지고 내 신발이 있나 없나, 방문까지 열어 봐요. 그래서 통 나가보지를 못했어. 근데 영화 보려는 몰래 도망갔어.

돈 한 번을 못 벌어봤어요, 처녀 때.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속 안 썩인 착한 딸, 집에서 부모 말 잘 듣고 있더니만 시집가서 잘 산다고. 그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맏딸. 밑으로 남동생들 있고 막내 여동생 하나 육 남매예요. 동생들도 다 잘 돼서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모임도 갖고 잘 지내요. 자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도시락 싸 가면 “너 제사 지냈니?” 쌀밥이니까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시골에서 대학교 가르친 집이 없었어요, 동생들도 다 공부시키고. 부모님들은 착했어요. 아버지가 동네일을, 이장을 한 이십 년 봤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두 달에 한 번 청주 모임도 하고 있는데, 나이 들이 많이 들었어. 한 20명 됐었는데, 지금은 9명에서 1명 갔으니까 8명. 나는 이렇게 바쁘고 하니까 못 갈 때도 있고.

어른들 귀염받던 결혼 생활

이상하게 인연이 되려는 게, 우리 친정집 뒤편 위로 이사를 오신 분이 중매했어요. 딸도 하나고, 군대 막 갔다 와서 직장도 없는데, 저 집에서 할까, 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했지. 가을 벼 벨 때 말이 들

어와서 음력 11월 26일날 결혼했으니까, 만나서 한 달 만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한 거야. 시집에서 이 해 넘기지 말고 빨리 빨리 하자고. 처음에 조치원 읍내에서 맞선을 봤죠. 이렇게(양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하고 있는 손이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사람이 흰겨풀이 씌우면 예뻐 보인다더니. 아버지는 “야, 나만은 못 하다. 나만은 못한데 지차(말이 이외의 자식들)여. 지차니까 그냥 하.” 말이로 가면 고생한다고. 그 직장 좋은 남자들이 많았는데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래도 여기가 인연이니까 맞는 거지.

처음에 갈 때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걸어서 한 30~40분을 가야 돼요. 그때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본가가 산 저쪽에서 정리야. 가서 울기도 울었지, 산속에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그 안에 집 열다섯 채 있더라고. 그 동네에서 집이 제일 좋아, 나무로 잘 지은 옛날 한옥 집이에요. 우리 농사지가 다 그쪽으로 있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같이 이태 농사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어른들한테 복 받으려고 그랬는지. 할아버지가 “작년보다 55개나 더 났다, 벼가.” 그러면서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 읍내 사셨고, 할아버지가 5시만 되면 올라오셔, 지팡이로 탁탁 두드리면, 나는 쫓아 나가서 문 열어 드려. “할아버지 지금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뭘 해 드릴까요? 아침 식사.”



아들 군대 가기 전 가족사진

할아버지가 찰밥을 좋아하셨어요. 화롯불에다 불이 좀 가루면 대추 넣고 밥을 해드렸어요. “예, 예, 예.”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왔다 가시는데 밤에 “할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옆에 같이 갈게요.” 여기를 걸어 내려갔어. 갑자기 내가 없어진 거잖아,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여. 그때 전화가 있었나, 우리 애네 아빠가 자전거 타고 데리러 와서 그래 “가면 간다고 하고 가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람이 어디 금방 사라졌어.” 나는 할아버지 눈에 들라고 그랬지.



60대 백두산 여행



태안꽃박람회에서

시고모님들이 나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태 농사짓고 청주로 나갔어요. 막내 고모가 무슨 회사를 해서 데려간 거지. 청주에서 1년 살았나? 청주에서 내가 연탄가스중독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지우(겨우) 나와서 마누라만 죽게 만들 뻔했다고 애네 아빠가 큰 저기 하더라구. 그때 명 째렸으면 죽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왔죠. 내가 가자고 하니, 우리 애 아빠가 어른들 옆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 어른들 나 모셔봐서 할 수 있어. 뭐 상낙(상냥)하게 하면 되는 거 아녀? 하면 하지 못하는 게 어딴어? 내가 그만큼 하면 돼.” 할머니네 집에 와서 1년

이상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둘째 손자며느리는, 우리가 둘째예요, 어른 밑에 커서 어른들 공경을 잘한다고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뭐가 있으면 어른들께 생선이고 고기고 해서 드리고 남으면 다음 점심에 또 드리고 했지. 우리 애들 안 줬어, 꼭 어른들만 드리는 거지. 시아버지도 모시고 그러고. 옛날에 고기 같은 거 좀 귀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드린다고 남편도 안 주고 어른들만. 그렇게 하면 시아버지가 “애, 애비도 줘라. 우리만 주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어른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평생 참 좋은 직장 전의시외버스정류장

78년도에 이 전의시외버스정류장을 시작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 변함없이 뭐 더 칠하고 고치지도 않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나가지고 청주로 나가서 1년 안 돼서 아버님이 니들 들어오라고,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에 버스 차부, 와가지고서 바로 아버님이 이거(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고생이라는 거 모르고 잘 살고 있지요. 저 다리 건너 그 밑에서 정류장 하는 걸 우리가 사 온 거지. 거기는 우리네 같이 터가 없었어요. 이 터가 우리 시아버지 터였어, 저 뒤에까지.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계약했는데 조치원 천안이 가차워서(가까워서) 시간이 없어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걸 금방, 여기가 집이 한 채 식당도 있었어요, 다 헐고 가건물로 지은 거지.

시아버지께서 “너는 애들이나 키워. 장사는 애비 보고 하라고 하계” 내가 젊어서 부지런하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둘이 하면 더 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매표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우리 애네 아빠가 표 팔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그때 제일 속상했던 거는 애들이 저녁을 못 먹고 들어가면 벌써 자. 10시 반 문을 닫거든요. 그럼 애들은 쓰러져 자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던 거야. 애들 저녁도 못 먹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머니하고 농사지은 벼가 75칸가 났는데 25개 밖에 안주더라고.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권한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권한이, 여기도 그렇고 친정도 그랬어요. 시할머니가 관리를 다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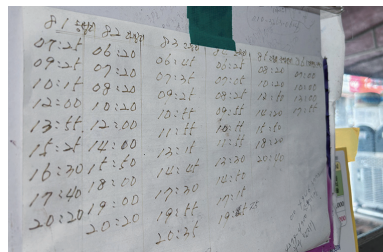
벼 25개 쪼개 가지고 장사 시작한 거예요, 애들하고 용돈 쓰고 돈 한 5만 원 될까. 중학교 후문 가게 아저씨가 자기네 집에서 물건을 자꾸 사가라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 그쪽에서 과자 몇 개, 사탕 몇 개, 뭐 몇 개, 여기 하나(진열대를 가리키며) 이렇게 갖다 댔어요. 5만 원어치야 물건 없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랬는데 장사꾼이 들어오더라고. 장사로 물건을 떼어 놓으면 음료수가 그다음 가면 올랐다고 하고, 물건을 또 떼어놓으면 그다음에 오면 또 올라갔다고 하고. 어머, 그러대요. 그때 돈 벌은 거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처음에는 표를 주로 많이 했지. 물건 조금 하고 승차권 파는 거로만 목적으로 했어요. 여기 방도 안 들어 바닥 장판도 안했는데 남편이, 세상에, 연말에, 이게 9월인가 시작했을 건데, 망년회 하러 가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세 짝 나무 문이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못 닫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문을 못 닫아서, 닫아주고 가서 놀아도 놀지. 여기서 주글뜨리고 박스 깔아놓고 그날 저녁 새웠어요, 애들 셋하고. 그때는 아침 6시면 문 열어요. 첫 차가 6시 25분이니까, 6시 되면 나와요. 여름은 6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겨울에는 캄캄해요. 표가 있어야 차를 탔어요. 그리고 만 원짜리 들고 오면 차에서 안 받잖아, 어디가 물건이라도 사야 되잖아. 우리네는 표 한 장만 사도 거슬러주잖아. 그거 보려고 일찍 나왔어. 들어갈 때는 한 10시 반? 직행버스도 서울 가는 거 있었어요. 기차 손님들이 와서 밤에 문 두드리고 뭐 달라고 하면 팔고 그랬어요. 11시 넘어서 서울 가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문 잠그고서도 두드리면 문 열고 장사했어요, 지금 같으면 못 열어주지, 무서워서.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뒷집(뒤쪽 살림집)으로 못 가는 거. 이렇게 막 쳐가지고 부엌도 만들었어요. 여기서 밥을 해 먹었지, 애들하고. 애들 아빠는 정류장 일 보고 나는 애들하고 물건 팔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지.

세탁기를 하나 사달라고, 사달



김순자님의 자필 차시간표

라고 해서 사 왔는데 설치를 안 해준 거야. 어른들이 계신데 젊은 것들이 세탁기는 그렇다고, 이이가 눈치를 많이 봐요. 밤에 가 빨래해야 되잖아. 우리 샘이 있었어, 구르는 거(펌프질 동작을 하며). 밤에 문 닫아놓고 기저귀 빨래하고 널고 삶고 해야 되잖아. 결국에는 여기다 설치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애들 어려서 보약을 먹이면 건강하다고, 지어오라면 지어 오기는 하는데, 여기다 못 놓고 뒷집에다 갖다 놓게 해요. 다 태워 먹어요, 장사하다 보면 잊어버리지, 가보면 탄 거야. 어른들이 와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태우고. 애들 아빠가 착했지. 용돈 타 써도 남으면 어른들께 갖다 바친 사람이야. 꼭 드리고 와 그 사람은. 답답하면 내가 답답하지.

남편이 또 테니스 치러 가면 어디 가서 아침 먹고 11시 넘어서 와요. 나는 6시에 아침을 안 먹고 나오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때는 왜 문을 못 닫았나 몰라, 문 닫고 밥을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기다리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나, 욕심이 생겨서 그랬나. 문 닫으면 손님들이 차를 못 타니 뭐라고 하니까. 난 배고픈 것도 못 참아, 아우, 그때 생각하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렇다고 화풀이는 안 했지만. 문을 닫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했을까, 무조건 일찍 나오고 교대해줘야 밥 먹는 건 줄 알고.

그러다 우리 방에 쥐도 들어왔었어요, 허름하니까. 여름에 문 열어놓고 모기장 치고 자다 보면 쥐가 짹짹 머리맡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놀래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쥐 나오는 방에서. 나 그때 아마 우울증이라는 거 좀 왔었던 것 같아. 우리 애들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때 다 한방에서 잤으니까. 우리가 다섯 식구였잖아. 조그만 방에, 요게 방

이었어.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케비닛도 놓고. 그때 길이 잡혀가지고 집을 못 지어, 한 10년 안이면 다시 지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뒤에다 집을 진 거죠. 아마 몇 년 안 됐다 다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괜찮아지더라구요.

세월 따라 변화된 일과 생활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정류장 업무가 많았죠.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오면 우리가 회사로 전화를 하죠, 어째 차가 안 들어왔다고. 거기서 연락해주면 그대로 얘기하고. 직행버스도 버스 안내양이 밀고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진짜 짹짹 찼었지. 밤에 한참 잘때, 12시 넘어서도 전화가 와요. 깜짝 놀라서 빨리 받거든. 차 시간 묻고, 술 잡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에다 보따리 놓고 내렸다고 그거 좀 찾아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찾아다 놓죠, 어디로 연락하라고도 하고. 아, 지금도 어떤 때 밤에 전화 와요, 차 시간 묻는. 우리는 지금 상관이 없거든. 다 시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간표도 안 줘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시간표 짜는 거지. 손님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왜 시간표도 안 달아 놓고 하느냐고 그래. 요새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만큼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요즘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기차 손님, 서울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고추니 곡식 그런 거 물건 사가지고 부치고 할 때 그때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서울에 다 있잖아. 농수산물 시장이다, 과일 그런 거 다 있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내려오니깐 더하지. 옛날에는 완행열차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 없대요, 나도 기차 안 타봐서 잘 모르지만. 손님들이 그려, 무궁화도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 같으요? 하루 네 번 올라간다나?

시간표는 있기는 있는데. 하루 한 열다섯 번씩 올라가고 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줄었어요, 지금 기차가.

나 처음 시작할 때는 시골에 버스가 하루 4대, 오전에 두 대, 오후에 두 대, 그럼 우리 방에 손님들이 항상 있어. 어떤 때는 첫차로 아침밥을 안 잡수고 나오면 밥 해놓은 거 차려드리고. 점심때 되고 저녁때 되고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렇잖아, 우리 먹을 때 손님이 앉았는데 우리만 먹나, 그래서 그때 쌀을 더 많이 먹고 김치도 더 많이 담았고. 적게는 안 해봐가지고 친절에서도 하면 많이 하는 거 보고. 나 침에 시집와서 많이 혼났어요, 손이 커가지고. 뭐, 이쁘게는 못 해도, 많이 많이.

표 파는 일이 줄고 우리 애네 아빠가 시간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자꾸 부르는 거야, 나가면 바로 오는 게 아니야, 밤 11시 넘어서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건 아니다, 차라리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 때 우리 땅을 남이 부쳤으니까. 어우, 무슨 농사를 짓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매일 이렇게 나가면 돈 쓰러 나가는 거지, 그래 농사를 시작한 거지. 딴 사람이 하는 걸 달래가지고. 가게는 잠깐잠깐 도와주고.

이제 물건도 많이 줄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줄으니까, 물건도 해다 놓으면 뭐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안 낳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지금 봐 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나. 직행버스도 들어오다 코로나 때 노선이 변경되어 안 들어오고, 지금은 시내버스 표*도 없어서서 버스크드 충전하고 간단한 음료수나 물건만 팔고 있어요.

표 파는 때는 은행에다 갖다 넣었지(돈을). 그런데 가지러 올 때는 한 회사가 몇백만 원씩 가져가면, 돈은 있으면 쓰잖아요, 나중에는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 몸 다는 건 내가 몸 달잖아, 내가 다 수금해야 되니까 힘

* 2006년 시내버스 종이승차권이 공식 폐지되었지만 현재 천안 시내버스 승차권은 발매 중이다.



80년대 제주도 여행



90년대 강원도 가족 여행

들어. 애들이 학교를 가도, 결혼 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내가 다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자기 쓸 돈 채워놓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래 참 마음 편하게 살아요, 우리 남편. 참견을 안 한 거지. 잘한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라는 거, 그런 거 모르고, 있으면 쓰고, 애들 그래도 여기서 떨어져 대학교 공부시켰고, 거기다가 여우살이(결혼)까지 다 잘했어요. 손님 없어 소득은 많이 줄었어도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있는 돈 쓰고 여기서 나온 거 쓰고 농사짓는 거 쓰고 용돈 주는 거 쓰고. 농사지으니까 다 있어, 별로 마트 갈 일도 없어요. 고기만 사 먹으면 돼, 고기도 뭐 애들이 사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넣었다 먹고. 마음은 편해요. 제 나이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 먹고 놀아요. 나는 내 집이니까 집도 가참고(가깝고), 또 집에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못 있겠더라고. 아침에 정신없이 나와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손님들 들어오면 얘기도 하고, 보파리도 맡겨주고, 묻는 말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집안일은 대충, 그냥 나오는 거지요, 일단은 내 직업이니까. 4시 15분에 일어나서 아침밥

안쳐 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운동하고 씻고 밥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 8시가 넘어요. 옛날에는 6시 넘으면 나왔지만, 나와도 표를 끊는 게 아니니까, 한 8시, 8시 20분 문 열고, 12시 되면 땡 하고 가서 밥 먹고 오지. 또 6시 반에는 문 닫아요. 요새 6시 반 7시 사이는 환해, 미안해, 아무리 내 저기지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그래.

근데 어떻게 해. 밥이나 먹고 살자, 나는 그래, “에이, 때에 잘 챙겨 먹자” 그걸 의미로. 운동하고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나가면 “어우, 많이 좋아졌어요.” 아플 때 많이 말랐었거든. 많이 좋아졌다, 사람들.

전의 물난리*

80년도 7월 22일이예요. 우리 딸이 2살 땡가, 78년생이니까 2살. 그때 밤에 물난리가 났으면 전의 사람 많이 저기(희생) 됐을 거예요. 그날 7월 22일 아침 9시경에 물이 들어왔어. 밤에 들어왔으면 전의 사람……. 여기, 여기만치(1m 정도 벽을 짚으며) 들어왔었어, 이 정도. 이거 물건 다 버렸지. 또 집에, 그 집은 좀 더 얹었어요, 옛날에 지은 집이라. 연탄, 우리는 여기 들어오리라는 생각 못하고, 거기 연탄 쌓아놓고 해서 거기에 물 들어온다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게)까지 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애들은 여기 유명 식당(오른쪽 옆 건물) 2층으로 올려 보내고. 그때 우리 친정 식구들 동생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더라고. 우리 시집 식구는 할머니네가 또 물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시어머니 동서들이 거기 가서 해주고, 우리는 친정 동생들이 와서 해주고.

아이구, 말도 아녔지, 뒷집에 장광(장독대)이니, 물이 유다락(다락)까

* 1980년 7월 21일~22일 중부폭우로 소정~전의~전동 철도 350m 매몰 침수되었다.

지 들어왔어. 아무것도 없어요. 농이고 뭐고 다 파묻혀가지고, 여기보다 더 깊었어요, 거기가. 물이 다 차서 솔단지 뭐니 다 떠내려갔지. 우리 가마솔도 있고 했었는데 다 떠내려갔어. 그래도 감사하죠, 밤에 그랬으면 전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을 텐데. 아침에 9시, 22일니까 장날이었네. 일단은 물이 깊은 데 이쪽(가게 앞 쪽을 가리키며)으로 이쪽만 들어오지 여기까지. 여기는 그래도 높아요, 우리 집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안 내려올 줄 알았더니 저 성결교회 있는 데까지 들어왔다고 하죠. 그때 국무총리*도 오셨다 갔죠, 여기 물난리 났다고.

여기 이쪽 집(왼쪽 옆 건물)을 지어놨잖아. 우리가 2층에 가서 거기서 당분간 살았지, 여기 이층집을 지어놔기 때문에 그때는 그 2층 건물 장사 안 했으니까 지어놓고서 바로 그랬으니까 우리가 2층에 가서 있었지.

그때 고생 많았어요. 아니, 이거 치우고, 메이커니까 각 회사에서 와서 다 반품해주고. 그 난리 쳤는데도 라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죽겠구만. 그때는 다 없으니까 자기들도 먹을라고. “아,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휴, 나도 이 지경인데 뭘 와서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할머니께서 오셔서 “야, 니덜 왜 돈 안 줘?” 그러시대. 내가 달달이 돈을 드렸어요, 이거(가게) 해줬다고. 근데 우리 애네 아빠는 아무 소리 안 해, 어른들하고 착한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할머니, 여기 지금 물난리 났어요. 할머니는 이 돈을 갖다 누구 줄라고 그래요?” 그 때는 내가 그랬어. “나도 애들이 셋인데 나도 살아야 돼요.” 울면서 그러니까 “참, 너 같은 며느리도.” 아니, 둘 다 똑같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애들 아빠가 착해 빠져가지고 이래도 이렇다 저렇다 소리 말을 안 하니까

* 1980년 7월 26일에 수해지구를 최규하 대통령이 시찰하였다.

내가 나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섰지. 그러니까 그달부터 돈 달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구. 그래서 내가 ‘말은 잘했다.’ 그랬지.

고마운 손님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나오는 시간이 더 많죠, 자는 시간 외에는 여기 살았으니까. 나의 평생 참 좋은 직장인 여기서 모든 걸 다 벌어서 공부시켰고 여우살이(결혼) 했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요, 손님들한테 감사해요.

손님들을 왕이라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진짜 고마워. 어른들은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많이 오셔. 조치원 있다가도 일로 온다, 여기 와서 여기 들렀다 뭐라도 사가지고 간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참, 뭐 해 드린 것도 없는데. 한 가지 보따리 맡겨주고 그런 것만 잘했는데. ‘여기서 팔아줘야지’하면서 오시면 내가 차, 천마차 같은 거 스무 잔 이상도 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몇 명 안 계셔가지고 드리면 시골 차(버스)가 다 가도록, 들어오면 그분들 다 드려요. 안 드리면 안 되지. 그 정도였는데 요새는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마음이.

이거(버스카드 충전) 남지는 않아도 우리 집에 와서 찍어 줘야 된대. 조치원서도 안 찍고 이리 와. 단골이고 내가 꼭 보여주잖아. 항상“여기 있어요, 이렇게 잘 찍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조치원서 안 찍고 여기 와서 찍는다고 열심히 여기 와서 찍는 걸 찍으셔.

고마운 분들 많지요. 지나가다 도시락도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먹을 거 많이 줘요. 집에서 일부러 해가지고 와서 나 주고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농사 안 짓는 줄 알고 별걸 다 준다고. 우리 농사 다 저요,

고추도 다섯 포기라도 심고 한다고 하지. 뭐 과일이니 별거 다 갖다줘요. 기름 짜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내가 우리 고추, 깨 농사짓는다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있지는 않죠. 음료수 한 박스라도 다 보내지.

또 보람된 일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머리가 하얗게 하고 와요. 나 누군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 몰라볼 정도야. 난 학생 시절에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육십 넘어 이렇게 됐으니까 머리가 시고(세고). 그래도 꼭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와서 물건, 저번에(1차 인터뷰 날) 우산도 산 사람이 서울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오면 꼭 들리더라고.

정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좋고 누구는 싫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이 똑같애. 열이면 열 사람 되면 내가 차 한 잔이라도 똑같이 드리고 하지.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라 소리는 안 해요. 왜, 내가 장사를 하니까, 부담 같까 봐. 그래서 내가 아예 여기 오시면 그라, “앉았다 가시면 내가 나가라 소리는 안 할테니까 앉아 계세요.” 근데 바깥에 있으면 “들어오세요.” 하면은 부담 줄까 봐, 내가 그 말은 안 한다고. 그 얘기는 꼭 손님들한테 해. 그냥 오시면 무조건 와서 앉았다 가시라고. 그럼 내가 차 한 잔 드리지.

기특하게 잘 커 준 자녀들과 추진력을 발휘한 혼사

결혼을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일찍 낳았어요. 스물아홉에 큰딸, 서른에 아들 낳고, 연년생이지. 막내딸은 두 살 차이니까 서른둘에 여기서 낳지, 큰 애들 둘은 시골 본가에서 낳았고요.

우리 큰딸이 도시락 반찬을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가 10시 반에 들어가면 벌써 도시락 반찬 다 해놔더라고. 우리가 마트가 있으니까 소시지 겨란 그런 거지 뭐. 겨란말이 잘해요, 요리 솜씨가 있어 큰딸이. 글썄 내가 애들 도시락을 뭘 싸줬나 기억이 없어, 늦게 들어가서. 나는 야단 안쳐도 큰딸이, 막내딸이 초등학교서부터 천안으로 다녔어, “학교 갔다 너 빨리 와” 나는 빨리 오란 소리 그런 걸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래. “엄마보다 언니가 더 무서웠어. 언니는 늦게 오면 뭐라고 하고” 근데 우리 딸들도 아들도 나가지를 앓아, 안 나가.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라, 나가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다.” 그래도 안 나가대. 우리 아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가게부를 쓴 거야. 누구를 닮아서 그랬는지. 아들이 다 적어, 누나 오늘 얼마 먹고 동생 얼마 먹고 나 얼마 먹고 하면, 여기서 용돈을 뺀다, 지들끼리 정해. 그리고 바닥 청소는, 오늘은 청소 당번 누구, 하루 누가 청소하고, 지네들끼리 짜던데요, 안 시켰는데도 잘하더라고. 막내딸이 어린 게 가방 메고 아침저녁으로 버스 타고 학교 다니고 고생했지, 사람들 많은 틈에서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고, 큰 애들은 여기 중학교 졸업하고 공주로 대전으로 고등학교 보내고. 내가 생각해도 애들 공부는 열렬하게 시켰던 것 같아. 그때가 그래도 애들 공부시킬 때가 좋다는 게, 좋은 때가 맞아요. 돈은 들어가도.

항상 나는 그 얘기를 딸한테 해줬어. 엄마는 큰 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하루에 많이 버는 장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엄청 알뜰해요, 우리 딸들이, 아들도 알뜰하지만. 우리 큰 사위 만날 때 딸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카드를 하나 주더라, 마음껏 사 오라고. 딱 2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사 왔더라. 그러니 ‘아 이 여자야,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딸이 영 말을 안 해서 잘 안 이루어지

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물어보니까 좋아하는 거 같아. 내가 또 서두는 건 또 막 서두르니까. 지금도 사위가“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 못했어요.” 그래.

막내딸이 먼저 시집을 갔지.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 6살 차이로. “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아, 그럼 하. 더 좋은 사람 없으면 해야지.” 하고서 날짜 잡아서 보냈어요. 스물여섯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처음에 청주에서 사귄 때, 제가 청주가 친정이잖아, 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보약도 사고 이러니까 “나 어머니 때문에 (결혼)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오빠보다는 어머니가 더 좋아요.” 이러는 거야. 점수 딸라고 그러나 보다 했지. 말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이 좋으면 하라고 하는 거, 부모가 왜 말려. 너 좋으면 해, 밀어 붙여가지고, 우리는 아들도 딸들도 결혼시키는 데는 하나 걱정 없이, 오래 안 끝었어요.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추진력 있는 거 같아, 다른 건 없어도. 지금도 자식들 결혼 못한 사람들은 속 끓이잖아.

감사합니다, 조상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탄환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11월 26일 결혼하고 12월 달에. 그전에는 불을 때서 고구마를 찢잖아요, 내가 땀다니까, 시집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불 때기는 그렇다고 자기가 땀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버님께 서 유다락(다락)을 치워서 거기 탄환 있는 것도 모르고, 고쿠락(아궁이)에다 넣은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집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 탄환이 우리 애 아빠 요거(정강이를 가리키며) 맞고 튀어 나갔는지 없어요.

이이가 병원에 간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 너네들 운 툼 사람들이다.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총탄에 맞아 죽는 건디.” 탄환은 안 박혔다. 지금도 흉이 있어요. 그때 탄환 맞고 우리 애 아빠가 죽고 집이 날아갔으면, 시집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랬으면, 복 없는 게 들어와서 그랬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여기서도 연탄가스, 저기 옆(분식집 자리)에서 그때 표를 팔고 했으니까, 거기 연탄불을 났어. 이런(둥글게 표현) 통 있죠? 손님들이 추우니까 손을 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연탄 통이 빠진 걸 모르고 애들 아빠가 저녁에 연탄불을 갈고 들어온 거예요. 가스가 여기 이 방으로 들어왔나 봐요.

새벽 2시 되니까 막내딸이 울더라고. 그 새벽에 아기를 업고 동고리 어디 침놓는 사람한테 업고 가더라고. 갔다 왔는데 내가 속이 답답한 거야. 손을 따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요, 가스가 막혀서 그런지. 그 이튿날 머리가 뽀개지게 아픈데 그때서 우리 애 아빠가 “연탄가스가 맞아. 저기 대합실에 연통이 빠졌어.” 딸 아니었으면 우리 다섯 식구 다 죽을 뻔했어. 참, 그때도 또 감사합니다, 그랬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18년 전인가 봐요. 날이 엄청 추웠어. 작은 딸네 집에 갔다가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났어요. 집에 와 한 20일이 지나고 혼자 앉았는데 내 말소리가 이상해지더니 몇 번 그러다 사라지더라고. 그러다가 밤에 어머 이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벽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그때 꿈을 꿔. 냇가에 있는데 묘가 보이는 거예요, 큰 묘가. 내가 깔깔거리면서 “아우 물도 조금 내려가네.” 웃으면서 그러더니. 그

게 그래도 크게 안 터지고 조그맣게 터졌나 봐요. 천안 단대 병원을 남편 하고 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 CT를 찍더니, 큰일 났다고 머리 뇌출혈이 와서 빨리 수술을 해야된대. 그러더니 주사바늘을 꼽고 가운을 입히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이건 여기서 하면 안 돼, 수술을 시킬 거야.’ 화장실 간다고 하고 옷 갈아 입고 마후라 쓰고 이렇게 하고(몸을 숨기는 듯한 동작) 나오고. 우리 애 아빠한테 “빨리, 소견서 써” 소견서를 써줘야 그때는 서울로 갔어요. 일단 집으로 왔다가 그 이튿날 삼성병원에 갔어요. CT를 찍고 그러니까 약으로, 큰 병원에서는 약으로다가 말리는 게 있다, 말려서 없앤대요. 혈액 마른 거를, 수술 없이. 담당 의사 선생이 “아주머니는 천운 탄 사람이예요. 말도 못 할 수도 있고 장애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해서 딱 가운데 터져서 잠깐 잠깐 왔다가 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장사할 때는 말랐어. 운동 못하고 불규칙한 식사로 살이 많이 쪼서 약 먹어보고, 살 빼는 데 가서 굶어도 보고. 몇 번 해보니까 요요가 와서 또 살쪼요. 그때 담석이 생겼나 봐요. 담석은 살 빼고 굶고 하다 보면 생긴대요. 인하대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담석이 있대. 담석은 괜찮다고 안 아프면 안 해도 된대. 근데 위에 염증이 있대. 밥을 급하게 먹고 하니까 체한 거를 뱉어서 염증이 생겼어요. 위에 흉이 있어요, 염증이 있었던 자리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느낌이 이상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하고 수술 준비를 해서 올라갔는데, 내시경을 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야, 글썄. 거기서 수술하면 어떡할 뻔했어? 난 내 감이 의사 진단보다 더 빠른 거 같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오고 가지도 못했어. 며느리가 세종병원(세종충남대병원)에 태워다 놔 가지고, 나는 그냥 도망 나왔으면 좋겠더



라고. 고모들은 빨리 서울로 오라고, 큰 병원으로 가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냐고. 이거는 장이라 가다가 혹시 어떻게 되면 책임을 안지고, 의사 간호원이 끼어야 가는 거래, 119를

불러도. 며느리가 “어머니, 박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을)해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깨끗하다. 대장암 3기라고 하더라고.

그때도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꿈에. 집안 오빠가 나보고 “빨리 와, 놀러 와” 그래요, 꿈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가긴 어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너 거기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저 지붕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 시끄러워.” 쥐가 조상이래,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산신령님이 머리가 길게 해서 이런 도로에 딱 서서, 사탕 하나 딱 쥐어주더니 “이 사탕이나 먹어” 그래. 내가 획 집어 던졌어, 세 번을. 그게 내가 장, 폐, 위 그런가 봐. 저쪽 골목에서 또 하얗게 입은 분이 상구(계속) 지켜보는 게 우리 할아버지였어, 꿈에.

그리고서 하루 또 꿈을 꾸니까, 아 그때 서울 삼성에 CT 찍고 결과 보러 가는 날 아침 꿈에 바다에 가서 세 개(주머니)를 물에다 다 버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장, 위, 폐. 내가 폐도 뿌엩다고 의사가 그래. 내가 매연을 많이 맡았잖아, 48년을. 이상은 없어요. 아무 이상은 없는데 좀 뿌에

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연을 상시, 그때만 해도 문을 확 열어놓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앉아서. 앞에서 담배 피우면 들어오고, 그래서 (주머니 3개를) 바다에다 갖다 버리더라고. 그날 결과 보러 가는 날인데 좋으려고 그 꿈을 꿔던 거지. 장도 버리고 위도 버리고 폐도 버리고. ‘아, 이렇게 다 버리는구나.’ 꿈을 꾸면 이렇게 영특하게 꾸요.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저는 걱정 안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속에다 넣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물건 팔 때 계산을 잘못해서 더 갔다던가 그래도 그걸 속에다 넣지는 않아요. 내가 그분 음료수 한 병 줄 수도 있는데, 털 받았다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안 주려고 안 준 것도 아닌데. 여기서 40여 년을 살아봤잖아요. 과학계 친하게 어퍼러지고 이러지는 않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 대신에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옆에 상인들이 많아도 얼굴 한 번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변덕스럽게 하지는 않았어. 내 이웃, 옆집 건너뛰고는 안 줘, 주면 내 옆에 사람들을 주지. 여지껏 정장사해도 말다툼 한 번을 안 해봤어요.

내가 손해 보면, 돈 받아서 오전에 가면 오후에 와서 안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 오늘 또 고기 먹었네, 소고기 먹었네,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데…….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속 썩을 일이 없어, 그렇게 딱 지나가면. 그래서 이제 지금 48년 그렇게 됐지. 처녀 때도 안 나가 봐서 여기서도, 저 마실 안 다녀요, 옆에 집 가서 앉아 있지도 않아요. 나가면

나무(남의) 말 하잖아. 나는 여기서 문 닫으면 집으로 가,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오죽하면 남편이 안 나간다고 가서 애기 좀 하고 하지, 뭐 하나 사면 그것이 딱 끝이지 가서 할 말이 없어.

난 우리 딸들하고도 할 말이 없어요. 전화를 그래서 자주 안 해. 잘 있겠지, 하고. 지네 살림은 지들이 할 일인데, 내가 이러쿵저러쿵할 필요가 없잖아. 저는 며느리도 생일 때 오지 말라 그래요. 명절 시고(세고) 나면 한 달 있다가 내 생일이고 한 달 있다가 못자리하면 그때 애들이 다 와야 돼. 못자리할 때 남들은 식구들이 다 와서 해주는 게 부러웠던가 봐요, 남편은. 원래 일꾼이 한 여남은 명 있어야 돼. “엄마 생일에는 오지 마. 그 대신에 못자리할 때는 다 와라.” 그래서 다 와요, 그때 하고 가.

핸드폰 전화 통화하면 되지, 뭐 하려고 오라고 해, 지네가 너무 힘들어. 우리도 살아봤지만, 자꾸 오라고 하면 그렇잖아, 시집이고 친정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지, 쓸데없는 전화 안하. 자기네들 생활이 있고, 누구를 만나서 바쁘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중간에 …. 지들이 아수면(아쉬우면) 전화하겠지. 그러니까 어저께 전화가 오더라고, 며느리한테서. 그러고 챔견(참견)하지 말고. 올케들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꾸 멀어지잖아. 말만 하지 마요, 말만 안 하고 자꾸 홍보고 하지 말고 같이 해야 어울려지는 거예요.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공주시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버스 승차권제도 폐지”충청신문 2005. 12. 26.
- “경부·호남선 허리 끊겨”조선일보 1978. 7. 23.
- “수해지구 취로 사업 확대를 충남·북 시찰 지시” 경향신문 1978. 7. 26.
- 전의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1997), 『전의향토지』, 문경출판사

〈채록자 후기〉

긍정적인 마음이 채운 행복, 물들고 싶어요.



따가운 햇볕 가득한 오후, 문득 찾아가 늘어놓는 세종여성생애구술사에 대한 설명을 김순자님은 하얀 왕수국 꽃송이 같은 화사한 미소로 들어 주셨다.

“48년째 이 자리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살아오신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꼭 기록하고 싶어졌다. 얼마 전 편의점 세놓으라던 제안을 거절한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는 말씀에 바로 그렇기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 세월 해온 이 일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기에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는 생떼 같은 설득에 뿌리치지 못하시고 허락해주셨다.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전의 물난리와 두 번의 연탄가스 중독, 신묘한 꿈 등 이야기보따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진 세 차례 웃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지역행사에도 한 번 못 가고 있어서 마주 보이는 전의역 역사를 지켜보셨을 삶과 힘차고 멋진 필체로 직접

써 붙여 놓은 차 시간표를 보았다. 용무 없이도 들르는 이웃들과 자주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오랜 손님들과 일상을 나누었다. 상냥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카드 결제 단말기도 잘 다루고, 버스크ard 손님들에게 충전 금액과 잔액을 또렷하게 확인해 주는 꼼꼼한 업무 처리도 보았다. 여행 기간 며칠씩 빼고는 늘 붙어있었다는 남편분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무심한 듯 커피 배달 서비스 핑계로 들르시는 남편분의 진한 충청도식 애정도 배어났다.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도 가게 문이 닫혀 땡벌에 서 있었을 손님들 걱정에 미안해하셨다.

잘 태어나 좋은 집으로 와서 많은 분들 도움으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동영상 인사말을 들으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그런 삶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초 첫 만남부터 세 번의 인터뷰와 녹취록 정리, 그리고 원고 작업을 하는 내내 김순자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행복에 물들어 유난히 무덤고 길었던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래 기억하고 간직될 것이다. 지금처럼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하셔서 좋은 사람들과 모임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김종귀 생애구술사

배짱으로 당차게 잘 살았어

세종시 조치원시장 '원동떡집'



김종귀 말하고, 이근하 쓰다

인터뷰 영상 보기



연보

1953년	1세	연기군 남면 종촌리 4남 4녀 다섯째로 출생
1955년	3세	호적상 출생신고
1961년	9세	초등학교 입학
1964년	12세	어머니 병으로 사망
1965년	13세	새어머니 오심
1967년	15세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1970년	18세	중학교 졸업
1975년	23세	탄천면 남자와 결혼
1975년	23세	조치원시장 노점 장사 시작
1976년	24세	딸 출생
1979년	27세	아들 출생
1988년	36세	원동에서 떡집 개업
2001년	49세	정동(현재의 원동떡집)으로 이전
2024년	72세	조치원시장 '원동떡집' 운영 중

8남매 다섯째 딸로 태어나다

어렸을 적에 일찍 죽지 말고 명 길으라고 머리 팍팍 깎아 가지고, 색동이 저고리 입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웠어. 내 위로다가 둘을 갖다 내 부렸어. 어렸을 적에, 내 위로다가 둘을 내빌고 난게 나도 또 죽을 거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안 올린겨.

그러더니 뱃속에 있는 애기가 나오게 생겼으니께는 5개월 앞 땡겨서 나 3월에 호적에 올리고, 우리 동생은 8월 달에 올리고 그래서 똑같이 55년생이야. 5개월 쌍둥이. 그렇게 된 거 같애 내 생각에는. 애기는 안 해주셨어. 이미 돌아가신 뒤에 내가 이 호적을 알은 거야.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배운 장사

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보니까는 장사를 하더라고. 그때부터 배웠지. 나와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한의사고 또 우리집에는 장사를 하더라고. 식료품에서부터 젓갈류 생선 건어물서부터 학용품 잡화류 우리 집에 없는 거 없었어. 아 우리 집을 안 거치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우리 집을 거쳐야만이 각 마을의 부녀회니 다 돌아가. 여기서 수급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수급을 두 사람 일꾼들이 자전거 타고 배달 어디나 했으니까 각 마을에 우리 일꾼도 둘씩이나 있었지 안에 도 둘 있었고, 바깥에도 둘 있었고. 3개 면 오일장 보러 땡겼어. 대평리 장, 한다리(장군면 대교리)*장 종촌장(옛 연기군 남면) 이 3개 면을 봤는데 동네에서 우리가 그런 물건을 다 대준 거야.

우리 집이 가축 먹이고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있구 우리집이 식

* 한다리 대교. 계유정란 수양대군에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김종서 장군. 애마가 그의 다리 한쪽을 물고 와 무덤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종서 장군 묘역이 장군면 대교리에 있다.

구가 많았어요. 거기다 삼촌도 있고 작은 엄
마도 있고 약방에 오는 손님들도 있고 우리
장사했으니까 가게에 오는 장사꾼들도 있
고 도부장사꾼*들도 이제 도매를 했으니까
그럼 밥 먹을 때는 보통 19식구 18식구 20식
구여. 대식구여.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연기군에서 유권자가 최고 많은 집이었어.



중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땡길 때는 실습 시간에 심지어는 저 인분도 퍼가
지고 고구마 밭에 인분도 줬어요. 음 예 솔방울 따오라고 하고 솔방울 저
나무 가져가야지 연탄불에 조개탄 피워서 난로 퍼줘요 지금 이북에서
하는 걸 우리가 고대로 한 거야. 지금 이북에서 그렇게 하잖아.

학교 인분을 퍼서 돌이가 양쪽에 들고 그런 것도 했어요. 실습시간에
는 토기도 맥이고 토기 풀 뜯어 가지고 가서 맨날 맥이고 송충이도 잡으
러 땡기고 파리도 잡아오라고 하면 파리 잡아가지고, 쥐도 잡아가라 하
면 쥐도 잡아와야 되고 쥐꼬랑쟁이 붙잡혀 땀어 가지고 하고 우리 별거
별거 다 했어요.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듣는 소리를 우리가 했어. 그래서 그 프
로그램에 많은 공감이가요 우리네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네는 제철까지는 안 하고 퇴비 증산하는 거를 했어요. 인분 받아가
지고, 7월 달에 퇴비 이렇게 풀 베다가 놓구서 거기다 인분 들어놓고 했어

* 도부장사꾼은 도부상을 이르는 말로 조직적으로 대량의 물건을 팔던 보부상과 달리 개인적으로 조금씩 물
건을 떼다 파는 상인을 가리킨다.

요. 안 한 거는 아니여 지금엔 인분 제출하라고 이북에서는 하지만 우리네는 퇴비 증산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농사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하는 걸 봤어요. 알아요. 그때는 나보다 나이가 4살



동창들과 기념사진(김종귀님은 첫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더 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이 나보고 나이가 이렇게 어리디 말하는 건 왜 으르르같이 말을 하나? 그래요. 친구들이 몰라요. 말을 안 하고 살아서. 우리 친구들이 서모라는 거를 몰르고 살고 그냥 부잣집 딸 아버지 한 약방 하는 부잣집 딸로만 생각을 하고 그저 막 호강하고 산 줄만 알은 거야. 우리 친구들이. 나는 또 이렇게 좀 깡패 같았어. 성격이 많이 깡패 같았어. 남학생들과 싸움 잘했어. 남학생 하나는 학생과에 끌려가기도 했어. 맨날 나랑 싸우구. 난 안 끌려갔지. 아 난 끌려갈 짓 절대 안하.

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도

어렸을 적에도 농사지으면 농사 짓는데도 쫓아 다니고 농약 파는 데도 쫓아 댕기고 잠자다 말고도 가을걷이 할라든 비 올라고 하면은 그 줄같이 치러 나가자고 하면 또 끌려 나가야 되고 그랬어. 가게일이면 가게일들이면 들 일 큰일이면 큰일 다 했어. 들에서 저 농약 치고 할 때 내가 많이 했어. 일꾼들이 있어도 손품 모질라면 쫓아 나갔어.

저 고때 말고 또 나 12살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지구 13살에 서



김종귀님의 친정 부모님

모님 밑에서 살았어. 우리 엄마 서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마음 1번 아팠을 때 우리 엄마 8번 아팠잖아. 남의 자식 여덟을 키웠어봐.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남이 낳은 새끼들 여러명에서 속 썩여봐. 엄마 어떻게 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그 화살이 다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니야. 하여간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는 했어, 나는.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편하니께. 죽기 살기로 해야지. 술 먹는 큰 오빠 너무나 술을 먹고 아버지 속을 썩이니까. 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도 일은 다 할 테니까. 오빠 술만 먹지 말고 아버지 속만 썩이지 말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만 살았어. 어렸을 적에 십대서부터.

큰오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속 썩이는 거를 보니까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 그거는 아이고 조치원으로 시집간 딸은 이 집 돈 다 벌어들였다 그랴. 나는 부잣집 딸이 되고 말로만 부잣집이여. 부잣집이라도 일 썩빠지게 했어요. 말만 부잣집이지 일부자집이여. 나는 어른들이 막 애기하는 걸로 싫어요 이 소리는 안 해봤어요. 어렸을 적부터 싫어요 안 할래요 이 소리는 안 해 봤어. 지금도 그래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해야될 거면 해야 된다.

아들과 딸의 피해자

그니까 어려서 하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뭐, 하고 싶은 것마다 노여. 군대 가고 싶다니끼는 군인도 안 돼. 내가 한다는 건 다 노여. 아유, 난 고등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나 전학시켜 달라고. 근데 안 된대. 일해야 되니까. 큰 일꾼이었거든. 학교 땡기는 어렸을 적에도.

담임 선생님들 두 분은 나 학교 가야 된다고 문이 닳도록 한 2달 간은 쫓아 땡기셨어. 나 2달 간 밥도 굶고. 아이, 동네에서 가방만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랴. 전학을 아들이 아니니까 안 시켜주시더라고. 공부를 못할 건데 집에서 땡기랴 일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학을 시켜주면 전학을 시켜주는 조건이라면 갈 건데 안 시켜 준다는 데 어떡해 가든 멀혀. 아니든 아니고 기쁜 긴 거지.

오빠들은 대학 간다고 다 나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하숙하고 언니 하나 있는 거 일찍 시집가고, 여동생 2명 4년제 대학 졸업 다 했어. 그것도 음대 미대. 그것도 서울로 레슨 받으러 땡겨가매. 그 몇 년 차이로다가 아들과 딸의 그 차이가 나더라고. 그 몇 년 차이로다가. 똑같은 딸인데 동생들을 공부하라고 방 얻어놓고 자취를 해 가면서 학교를 보냈어. 막내 여동생은 집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한 10분 거리에 방 얻어 놓고 자취 시켜가면서 공부시켰어. 차별 많지.

우리 오빠가 그래요. 인정해요. 이 동생은 오빠들 학교 땡기고 동생들 학교 땡기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학교도 못 가고 일만 많이 했다고. 그건 사실이야.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딸의 피해자들이야. 다 그렇죠. 내가 장본인인데 그 시절에 아들과 딸의 피해자. 오빠도 8남매 다 대학교 4년제 다 나왔는데 나랑 언니랑 둘만 딸 둘만 대학을 못 나왔어요.

딱 하나를 보면 다 안다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가르칠 놈을 안 가르쳤다고 후회를 많이 하셨다는 거지. 아버님 친구들을 붙잡고 그러서. 내가 결혼하고서도 그걸 많이 느끼시더라고.

우리 애들이 크는데 우리 애들 듣는 데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휴 가르칠 놈을 못 가르쳐서 그래. 우리 애들도 엄마는 배웠어야 된다는 거를 알았어. 그러면서 참, 엄마가 배웠으면 나를 못 낳지 이래요. 웃는 애기여. 환경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저를 낳아.

결혼 이야기

우리 아저씨 만난 거 재미있지. 우리 아저씨는 한 4년간 트럭 운전수였기 때문에 우리집에 아침마다 물건 싣구서 배달 오고 일주일에 두어 번씩 하여간 거의 매일 봤어. 매일 보고 한 식구처럼 한 밥상에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 오면 맨날 골리고* 서로 서로 골리고 내가 똥똥했거든요. 김양 이것 보여 나더러 오빠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랴. 아이구, 오빠? 발에 채이는 게 오빠유. 그래 카고서 맨날 이렇게 서로 골리고 겨울에 눈 오면은 눈발에다 나 굴러놓고 갖다 파 묻어 놓고 다녔어.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뭐 결혼한다 생각은 안 하고 결혼할 남자친구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 집 아저씨가 결론적으로 아마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봐 청혼을 했나 봐 결혼하게 해달라고. 중신 애비를 넣더라고. 술 안 먹어서 했어요. 나는 술직히 술이 징그러워서 우리 집 아저씨 술 안 먹고 속 안 썩여. 술 먹는 오빠 때문에 술 안 먹어서 아저씨한테 시집왔어요.

* 상대편을 놀리어 약을 올리거나 골이 나게 하다.



김종귀 님의 결혼식 사진

조치원 시장 김도령 똑순이

아니 학교 땡겨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 땡기느라고 물건 사서 가져가고 했으니까 여기 큰 상인들은 나를 잘 알고 있지. 10대 때부터 땡겼지요. 물건하러. 그래서 큰 상인들은 다 알았지 알고 지냈지. 다들 아셨어요. 누구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쉬웠지 조금. 내가 비록 없는 남편한테 시

집 왔어도 여기 큰 상인들은 원래가 나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 없어도 외상 달라고 해도 줬고 장사하기는 좀 수월했죠. 나 시집을 때 상권만 가지고 시집왔어. 그때 나랑 거래하던 사람들이 아유 지금도 똑순이라 그래 똑순이 똑순이가 나 별명이 많아요. 김도령 똑순이 그런데 팔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 자기들이.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장사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시집 오자마자 돈 없어 뭐 다 길바닥에서 별거 별거 다 했지. 조치원시장 저쪽에서 길 건너 여기서 길 건너 저쪽 길에서. 나는 안 한 거 없어. 과일서부터 뭐 심지어는 마늘 까 팔고 콩도 까 팔고 옥수수 찌 팔구 안 한 거 없어요. 다 해 본거여. 다 만질 줄을 알으니까 친정에서 농사도 지어봤고 했으니까는 뭐. 가게가 어딤어. 셋방살이도 갱신히 해서 얼마나 이사 땡겼는디. 나 8번 이사 땡겼슈. 집이 없어서 길

바닥에서 장사도 하고 이삿짐 싸놓고 옮기도 하고.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떡해 그럼 집 장만할 때까지 이사 댕겨야지 셋방살이 하면서.

노점에서 생선도 했었어요. 남의 집 추녀 밑에서. 과일도 하고 뭐 안한 거 없어. 냉장고는 있었고, 냉장고는 들여놨었구, 기본적으로 집에. 끌고 댕겼지 리어카에다. 저장은 집에서 하고, 아침에 끌고 나오고. 노점을 얻어서 하다가 생선가게를 얻었어. 그 시절에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 그래도 아까울 것도 없어.

원동떡집의 역사

우리 친정에서 나 어렸을 적에 찹쌀모찌 같은 거 인절미 같은 건 해 먹는 거는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빵집에 이렇게 지금 옆에 빵집이 생겼는데 이케 반죽하는 기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친구한테 떡기계도 저렇게 반죽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소미 엄마 나왔어 이래. 누가 우리 옆의 집 아줌마가 그래서 어 그러? 그럼 나 떡 장사해야지. 떡에 떡자도 모르는 사람이 चु고 배고프니까 책 두 권 사다 보고서로 했어요. 서점에서 7천원짜리 1권, 4천원짜리 1권 사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완전한 독학생이여. 배짱이 좋지



책 2권 사 보고 기계 부르고 하루아침에 생선 장사 걸어 치우고.

하루 아침에 떡장사로 업종 바꾼 거는 첫째는 애들이 커서 학교를 가니까 니 엄마 생선 장사해 니 아버지 생선 장사해 행여래도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을까봐 하루아침에 딱 끝낸겨 그 기계 그런 거 나왔단 소리 듣고서는.

처음 떡집은 원동에서 시작했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 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손 송편을 지가 만들었어. 초등학교 때는 같이. 시작했을 때 원동 떡집 왜 저기 뭐야? 우체국 아가씨들이 이름 지어준 거. 그건 내가 진 것도 아니야. 여기는 마을 이름이 정동이야. 정리 여기 길 건너가 원리여 원동. 길 건너 저 골목에서 시작했지. 떡집 할 때는 인자 설비할 돈이라도 가게라도 얻어서 하고 설비할 돈이라도 생겼으니까 떡집을 한 거지.

처음에야 뭐 다 시루떡 인절미 그런 거지. 뭐 그때야. 깨끼떡 이런 거. 모찌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모찌도 하고. 인제 모찌 반죽하는 거는 대충 알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짓수 안 많았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재료도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 옛날에는 다 하던 건데 인제 모찌도 옛날에 일곱 두 가마니 세 가마니씩 하루 저녁에 여섯 가마니도 해봤어. 밤 흘랑 흘랑 세가며 그랬는데 지금은 모찌가 공장에서 잘 나와. 그래서 모찌 안 해. 공장에서 잘 나오니까.

이 떡 장사를 해 가면서도 나는 밤에 눈 감으면서 빵집에서는 케익이 나오는데 왜 떡집에서는 케익을 안 할까 구상을 하는 거야. 혼자 잠을 잘라고 드러누웠어도 공부를 하는겨 혼자. 그래 가지고 시도를 했더니, 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떡 케익을 잘 안 만들 그 시절에 틀이 없을

때도 나는 내가 직접 해서 우리 조카들 생일에 다 해서 보냈어. 친정어머니 생신 때 2단짜리 3단짜리 해서 보내니까 이게 참말로 딸이 한 거냐 그래. 엄마가 내가 한 거지 누가냐.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힘들고 일도 많이 인자 줄여야 되고 하니깐 여차하믄 못해유 안 해유 안 하지.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해. 죽었다 깨나도 혼자는 못 해요. 시작할 때는 우리 집 아저씨랑 같이 했지만은 죽었다 깨나도 혼자는 못해. 어떤 집이든 떡장사 떡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종류 지금 많이 빼먹었어. 안 하는 거 많아. 지금 내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 많아.

너무 힘드니까 많이 줄였어. 줄이고 이제 뭐 몸도 시원찮은데 욕심내면 뭐 할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잠자는 게 쉬는 거

처음에 혼자 할 적에 하루 또 이틀 사흘까지도 밤새워 봤어. 밤새운 적 많이 있어. 떡 하느라고, 3일을 밤새우고 마지막 거 다 묶어서 딱 해 놓고 서는 계산서 꽃아 놓고서 집에를 기어 들어갔는데 한 4시간은 잤나 봐.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갈라고 일어났는데 발을 디디지 못해서 힘들어 기어서 화장실 갔어. 쉬지 않고 사흘까지 그렇게도 해 봤어.

그 어떤 사람들 배우러 왔다 그냥 가. 힘들으니까. 첫째, 잠 안 자고서 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나 다 해놓으면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 배우러 왔으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배워야 되는데 나 다 했는데 나와서 기계에 앉아서 빼기만 하는데 그게 떡이 배워져? 몇 사람 가더라고. 여자가 하니까 깔보고 와서

나도 하겠지 하고 왔다가 가.

새벽 3시에 나오는 것도 늦어. 오늘도 새벽 1시 반에 나와서 여적지(지금까지) 했어요. 떡 하는 게 아니라 떡 안 할 때는 치울 거 치우고, 일 안 할 때는 시루 다 닦아놔야 되고 바닥 같은 데 청소해야 되고 할 일 많아요. 이런 것(떡시루)도 인제 대충 걸만 닦아 쓰다가 일 없을 때는 이제 기름때까지 싹 빼놓으니까 빼야 되니까. 가위 같은 것도 빼놓고 해야 되니까 지저분해 보여도 열심히 해, 나.

잠 자는 게 쉬는 거. 해 넘어가면 쉬는 거지 뭐. 4-5시간 눈 감았다 뜨면 나와야지 일해야지. 어떻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 구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살아. 쉬는 날에는 뭐 여기 청소하고 집안일 하고 쉬는 날에는 그 나름대로 바빠요. 어 쉬는 날도 바빠요 쉬는 날이 더 바빠더라고.

허튼짓 하면은 족보까지 나와야 해

다들 누구 딸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허튼 짓을 못 해요. 솔직히 말 씬드려서 허튼짓 하면은 족보까지 다 나와야 돼. 족보 나와야 돼서 어디 가서 허튼짓은 못하고 지금도 어디 가서 허튼소리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족보까지 다 나오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허튼 짓은 절대 못하고 안 하고.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그냥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그러잖아. 우리 이웃끼리 그냥 아침에 커피 마시구 그래도 남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발로 꼭 밟아 꼭 밟아서 신랑하고 잔 얘기만 하 알았지 남자 여자 얘기만 하 알았지 남의 얘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여 그

러니까 딱 막아버려. 나는 누가 무슨 얘기 전달하면 나 못 들은거여 직접 전화해 그라고 절대 말 전하는 거 아니고 줄여서 알아들어야 되고 걸러서 알아야 돼. 매사에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들어오는 말 나한테 들렸으면 걸러야 되고 줄여야 되고 전해줄 적에도 조심해서 줄이고 걸르고 말이라는 건 무섭지요. 아유 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질은 뭇 같은데, 말하는 거는 이쁘게 한다. 그러잖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 소린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쁘게 봐요. 말 안 하는 거는. 그치만 성질이 깡패여. 화나면 깡패되고 나 건드리면 안돼.

죽을 건데 살았슈.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삶 사는거.

나는 얘기를 더 날래도 더 낳을 수가 없고 애 하나 낳으면 그 애를 키우질 못하고 내가 한 번 죽네 사네를 하 그냥. 큰 애 낳고 개 100일 무렵에 내가 병이 났어. 산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장염 맹장이 맹장염이 와서 대장까지 썩었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삼 일 밤낮을 약을 한 첩씩 달여 먹였어. 돈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돈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얘기도 집에서도 다 낳는다. 그런 시절이 있었슈. 아들 낳구서로는 개 3살 안 돼서 병이 나서 그때 또 병원에 실려갔지. 남의 피 수혈 8개 받고 살았어요. 수혈을 8개를 받아서 피가 싹 빠져 가지고 또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걸 그냥 떠신고 왔으니까 시내 전화로 응급 충대병원에 예약하니까 아침 9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더라구요. 베개도 못 베고 탁 내려놓고 양쪽 팔 링거 꽂고 막 떠메서 싹구서 병원 가가지고 수혈을 8개를 맞는데 16시간 동안 1개 맞

을 때 2시간씩 해요. 하혈을 해 가지고 아이고 그때 죽는다고 했어.

다 죽었다고 소문나서 지금도 어떤 손님들은 오면 아휴 나 그때 자네가 죽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러셨어 그러셨는데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죽을건데 살았슈.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삶 사는겨. 지금은 봐도 누가 봐도 소두 때려잡는디야.

배끓아 죽어도 배 터져 죽었디야

사람들이 나보고 고생 안했디야. 나는 밥 끓어 죽는데 나보고 배 터져 죽었디야 사람들이. 24시간 쉴 틈이 없어요. 쉬려면 동남에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배끓아 죽어도 남들은 나보고 배 터져 죽었다고 한다니까. 굳이 이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쁜 데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랴.

난 한가지는 있어요. 부자거든. 돈은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마음이 부자거든. 아니여. 부자는 부자지 남의 집 추녀 밑에서 길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다 이런 가게 장만 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덕이지 그거야. 근께 나는 밤에 날 새워가면서 일할 적에도 뭐 돈 번다 못 번다 이런 개념 하나도 없이 아 우리 회사 댕기면 야근하면 돈 주는데 나도 야근하면은 돈 생기겠지 이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돈 남아요. 안 남아요 이런 소리도 손님들한테 안 해봤어요.

친구들이 야 너 뭐해서 이렇게 얼굴도 안 늙고, 지금도 교복 입혀 놓으면 똑같겠다 그래요. 나 부자거든.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야, 나 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또 뭘 소리여. 내면이 부자여. 그럼 아주



배꼽 잡아요. 돈 제 아
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
난한 사람은 가난해요.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늘 쪼들려 살고 그런데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은 돈이 없어도 당당하.
그냥 성격이야.

나 가질 행복도 없는데 누가 나를 행복을 주느냐고

웬만하면 속 안 썩어요 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거지 뭐. 어떤 사
람들은 막 맨날 속앓이하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

행복이 뭐가 행복이여. 저 가질 행복도 없어. 남이 누가 행복을 날 줘.
절대 행복은 남이 나를 안 줘요. 저 가질 행복도 부족하. 저 가질 행복도
없는데 누가 나를 행복을 줘.

욕심을 첫째,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나면은 감사한 생각이 들어.감
사한 생각이 들어가면 아 고맙다 이 생각이 들어가. 아, 고마운 생각이 들
어가면 아, 난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가질 행복도 없는
데 누가 나를 행복을 줘. 행복이 뭔데.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지. 눈으로 안 보여 행복. 그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행을 찾는
겨.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 가진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
심히 살아야 돼. 그라문 돼. 그러면 행복도 있고 행복도 찾는 거여. 행복하
지 않은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인거야. 욕심을 내는 사람.

후회없는 삶

아, 후회 없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더 잘 못 해드린 거는 약간씩 생각이 나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내가 큰 돈 있어서 갓다 드리진 못했는데 돈을 못 갓다 드려봤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할 일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할 일 다 하고.

동네에서도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초치원 딸은 이 집 돈 다 벌여주고 갔어 이러고. 이럴 정도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나를 제일 어려워한대.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가 나는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랴. 나 무서워요. 뭐 상의할 게 있으면 아버지가 나랑 상의를 하시고 빠르니까 쪽 칼날 세워가지고 가려서 해놓거든요. 처리를 잘 해서 항상 믿으시고 그렇게 하셨어.

내가 가질 거는 모든 걸 다 반만 가져 몸도 마음도 돈도 모든 걸 반만 가져. 시간도 난 내 시간을 다 갖지 말고 노나서 남한테 줘. 내 시간 쪼개서 먼저 해서 주고 그게 내 시간을 반만 갖는 거. 나 바빠.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뭐 해볼게라고 반만 가지면 돼.

후회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후회할 일은 거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지. 나는 성의껏 살았다고 생각해 그런 후회는 없이 앞으로 후회 없이 살라고 노력을 하고.



남은 여생 꿈이 있다면

아 죽는 날까지 떡 장사하다 죽어야죠. 죽을 때까지 해야지 뭐 어떡해. 떡집 아들 혼자 못 한다니까. 나도 혼자 못 하고. 일은 해야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어. 움직일 수 있으면 해야지. 아파서 못 하면 모를까. 병원에 입원하면 못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저 산 속에 가서 인제 조용하게 살고 싶은디 그냥 나물이나 뜯어먹고 이렇게 살고 싶은디 나물 같은 것도 산 턱에다 심으면 돼 산 터전예다가 저기 뭐 장뇌삼 같은 거나 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디 승낙 안하. 우리 집 아저씨가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지 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는 떡장사 하다가 죽어야지. 떡 맛있대.

〈채록자 후기〉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치원시장 원동떡집에서 김종귀 사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사장님의 삶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맛깔나는 사장님의 입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맛장구치며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사장님의 삶을 생각하며 글을 쓰면서는 많이 울었다. 모진 운명 오롯이 살아내신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서이다.

사장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우리를 앞서 우리나라를 일궈주신 분이셨다. 사장님과 같은 우리 앞세대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달리하게 되었다. 단단하고 당당한 사장님을 닮고 싶었고, 사장님처럼 멋지고 힘있게 살고 싶어졌다. 사장님처럼 나도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단단하고 당당한 어른으

로 본이 되고 싶다.

처음에는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하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생애구술사 작업을 시작했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 가장 많이 배우고 수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바쁘신 사장님의 짧은 휴식 시간을 뺏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도 흔쾌히 기쁘게 당신의 삶을 이야기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생애구술사를 할 수 있게 귀한 기회를 주신 세종여성플라자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안동예 생애구술사

가슴 속 멍울

세종시 대평시장 '제일지업사'



안동예 말하고, 정혜경 쓰다

연보

1943년	1세	2남 2녀 중 둘째로 금산군 출생
-		한국 전쟁 중 금남면 금천리로 피란
-		숯골에서 직조일 시작
-		김복희 씨와 선 뵈
-		결혼 전 시어머니 사망
1965년	23세	군인인 김복희씨(4남 1녀 중 셋째)와 결혼(금남면 장재리)
1966년	24세	딸 출산
1968년	26세	아들 출산
1970년	28세	막내아들 출산, 남편은 제대 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		삼 남매를 큰댁에 맡기고 서울에서 파출부를 하며 돈을 모음
-		약수동으로 이사 후, 자녀들 장충국민학교로 전학
1980년	38세	다시 세종으로 이사
1981년	39세	대평시장에서 장사 시작
-		슈퍼를 시작으로 과일, 채소 가게를 거쳐 지업사를 운영
2016년	74세	남편 사망
2024년	82세	큰아들과 금남면 거주
-		현재까지 대평시장 내 제일지업사 운영

* 구술자가 해당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해는 공란으로 둠

전쟁, 피란 그리고 가난

아이고, 어디서부터 말을 할지 알간. 금산서 태어나 갖고 6.25 땡가, 6.25 지나곤가 하여튼 그때 금천으로 왔어. 금산에서 기억은 거의 없는 데 폭격 소리, 방공호에서 숨었던 건 기억이 나. 방공구덩이 그건 산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집처럼 파놓고 그렇게 하고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 우리(4남매) 다 거기다 놓고 엄마 아버지지는 잠깐이라도 뭐 심으러 가고 막 그랬지. 거기에 식구들 놓고 이제 일할 사람들은 가끔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았지. 그때 돈이 어딴어.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방공호에서 점심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 해 넘 어가고 잠잠해 지면 엄마가 델러 와. 온종일 방공호에 있었으니 애들하고 같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 난리 통에 방공호서 폭격 소리 들리던 거랑 거기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던 것만 기억나.

금산서 하루 걸어 여기(금남면 금천리)로 피란을 왔어. 하루면 걸어 오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금산서 얘기 듣고, 금강도를 믿었어. 금강 대도*. 그래 거기 가면 살라나 해서 금천엘 왔지. 금강도는 이제 좋은 선생님이 강원으로 나와가지고 지금도 금강도는 있어. 거기는 그냥 고기라는 건 일절 안 먹잖아. 그때부터 안 먹어서 그런가, 우리는 고기도 생선도 잘 안 먹어. 나물을 좋아하지. 시집오기 전에는 거기 가서 수도 놓고 잘 지냈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축박해서 마음은 있지만 가던 못하지.

여기 와서는 큰 동네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디서 살았어. 피난 왔으니 뭐 방도 얻어서 살기 바쁜 데 전쟁 끝나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먹고 살기도 대단한디, 딴 사람들도 별로 못 가고 살고, 어서 학교를 다녀. 그런

* 1874년 이승여가 창시한 종교. 일제강점기에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민족정신 함양과 독립의 희망을 주창하다 일제에 혹독한 탄압을 받는 등 민족종교의 역할을 하였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포교의 길에 나섰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천리에 본원이 있다.

게, 학교를 못다닌 게 한이여. 하(깊은 한숨)……, 죽어도 한이여. 근디, 창피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어휴, 그전에는 신랑이 다 하고 누가 뭐 사러 왔다면 나갔다가도 얼른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 이젠 웬만한 건 다 해. 손녀딸 보고는 그러지 할머니가 공부 못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켜줄 때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공부를 엔간이 했나 손녀는 서울여대를 갔어.

어려서는 공기놀이하고 놀았어. 돌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공기놀이 하면 1등으로 잘했어. 또, 왜 납작납작한 돌맹이를 이렇게 싸놓고 막 따는 비석 치기, 콩이나 모래주머니를 손으로 공중에 띄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던지며 한 손으로도 하고 두 손으로도 하는 오재미. 그런 거 가지고 놀았지. 고무줄놀이는 안 해봐서 못해.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깨고 고사리도 많이 꺾으러 다녔지. 봄나물 그렇지. 쑥을 캐면 우리 엄마는 그거 삶아서 밥솥에다 찰 안칠 때, 얹어서 했지. 옛날에는 절구통이 있어 뭐가 있어, 주걱이로다, 이렇게 해서 먹었어. 소금 넣어 비빔밥처럼 쑥밥을 해 먹었어. 그땐, 쑥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또 고구마 나올 땐, 고구마를 얹어 그것도 그냥 섞어 고구마밥 해 먹었지. 고구마 밥은 사람들이 싫어했어. 그렇게 먹고 살아서 이렇게 좋은 세상도 보고 오래 사네. 허허.(헛웃음)

여동생은 미국에

여동생, 오빠, 남동생, 나까지 4남매여. 우리 부모님은 벌어 먹고사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맏딸이라고 나를 예뻐해 주셨지. 이름에 동그라미가 세 개 있으면 잘 산다고 안동예로 아버지가 지었을 거. 아

버지는 시집도 유성으로 보낸다고 그랬어. 그때는 거기가 길도 좋고 좋았으니까. 아버지는 65세에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75세에 돌아가셨네. 친정엄마는 “딸 고생은 안 하겠다”해서 시집을 부잣집으로 보냈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힘들게 산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심한 거는 몰랐어. 하(얇은 한숨), 엄마보다도 더 내가 장수를 하니 어떡해. 허…….(쓴웃음)

오빠도 육십몇 살에 갔고 우리 남동생은 서울서 출판사하고 잘 살다가 어떻게 술을 먹었나 간이 녹아서 오십몇 살에 일찍 죽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동생하고 나하고만 남았지. 여동생하고 사이가 제일 좋았는데, 동생은 시동생이 초청해 지금 미국 가 살아. 애들(조카)도 다 키워서 데리고 갔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조용없네. 그냥 맨날 ‘언니 건강하라.’고 전화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자고. 근데 왜 이렇게 못 나와. 자식(조카)들도 다 미국 있어서 그런가. 우리 동생도 일흔일곱인데. 어제 우리 여동생이 전화 왔잖아. 다리 수술해서. “웬만하면 여기 나온다.”라고 “언니 그동안 아프지 말라.”라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치매 걸리는 게 제일 무섭잖아,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너 여기 오면 너는 먹고살 수 있다. 지금은 여자들도 혼자 먹고살 수 있어. 제도가 너무 좋아.” 했더니 노력해 본다고 그래.

직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나

농사일 돕다, 유성서 이렇게 들어가는 솥골, 소창*짜는 데가 일을 했어요. 소창은 광목 말고 그거보다 더 약한 옷감이야. 아기들 기저귀하고, 행주하고, 이불 할 때 속 싸고 그전에는 전부 소창으로 다 했어. 솥골은

* 면 방직사가 평직으로 성글게 짜여 있는 면직물이다. 일반적으로 정련, 표백하여 흰색으로 사용한다. 용도: 함띠(함을 맬 때 사용), 기저귀, 행주감.

집마다 베 짜는 데만 있어. 전부 가정집에 이렇게 방에다 족닥기* 한 대 두 대씩 놓고 그랬지. 그때는 소창도 잘 나왔는데, 지금도 소창이 나오는지 몰라.

주인네는 이북서 피란을 온 사람들로 농사도 짓고, 소창 짤 땀 족닥기에 낱실을 차려주고 잉아**걸기도 해줘요. 또, 소창에 색색이 물들이고, 대전·청주·서울로 소창을 갖다 팔기도 하고. 아랫방은 주인네가, 건넌방은 족닥기 놓고, 윗방에서 지내며 밥도 같이 먹었지. 족닥기는 베 짜는 기계로 내가 일했던 집은 족닥기가 두 대였어. 족닥기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남들을 한 필 짜는데 나는 두 필씩 그냥 필 반씩 짜고.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살 그것도 몇 년을 다녔어.

숯골까지 가려면 큰 산을 넘어 걸어가야 하니까 왔다 갔다는 못 하. 나 무꾼들 무서워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어요. 집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지. 소창 짜던 사람들은 이 근방에서도 오고 논산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더라고. 쉬는 날은 따로 없고 이제 일 끝나고 딴 거 할 때 그때 쉬지. 그럼, 열여덟 열아홉 비슷한 또래니, 소창 짜는 사람끼리 놀았지.

숯골에 직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나 지금은 알도(알지도) 못혀. 거기 같이 다녔던 세 살 많은 육촌 언니도 그때는 자주 만났는데, 이렇게 따로 결혼해서 살기 힘들니까 만나 보지도 못해. 근데, 작년 여름인가 밭에 갔다 오다 물 진대를 모르고 밟아 빠졌데. 고관절이 깨지고 지금은 병원에 있어. 그 언니도 엄청 착하고 예뻐했는데 요즘은 내가 아파 가지고 전

* 1950년대 초반 베틀을 개량한 수직기로 천을 짜기 시작하면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족닥기인지 개량베틀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유구 섬유 역사 전시관, 유구 섬유 역사 소개 중 발체

** 베틀의 낱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

화도 못 해봐. 흐……. 또, 같이 있었던 이, 나보다 한 살 많은 이는 저 시골서 사는데, 장 보러 오면 들어오지. 한 명은 평택에 있어. 한 번 좀 만나자 만나자 하는 데 그게 만나 지나고, 또, 하나도 언닌데, 자주 장에 나오더니 안 온 지 오래됐어…….

소창은 한 필 짤 때마다 돈을 받는데, 몇 필 짤는지 적어놓고 주인네가 확인하고 돈을 주지. 하도 오래돼서 한 필에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 소창짜던 데는 어디로 갔나? 차차 없어지더니 짹 없어졌어. 숯골에 가본 지 몇십 년은 됐어. 소창 짜 돈 벌어, 조카들 옷 사주고 그냥 엄마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 내 돈으로 십 원도 안 쓰고. 어휴, 그 조카들은 다 살았는데, 저거 부모를 돌아가시고, 또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소용없네. 나도 힘들어서 못 하는 디.

결혼, 다른 시작

숯골서 집이 와 있다 시집을 왔지. 우리 때는 연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연애는 안 하고 마땅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 엄니가 고생은 안 하겠다 해서. 나 중매한 게 조카 딸이야. 집안의 먼 조카딸. 시어머니가 논 7마지기하고 밭 500평 그건 준다. 우리 아들 중신*만 하라 했대.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시어머니하고 중매쟁이하고 셋이 시골 우리 초가집에 온 거야. 그래서 점심 해서 먹고, 결혼하면 논 일곱 마지기하고 밭 오백 평을 준다는 소릴 친정엄마가 듣고 그냥 하라. 남편은 나보다 1살이 많은데, 서글서글하니 좋았어. 군인 가기 전인가 해서 남편은 한 번 만났지. 우리 아저씨는 시누, 형,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어. 그런데, 삼월 삼짇날 선보고 결혼 날 잡아놨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어.

*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안동예 님 결혼 사진

동네에서는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난리가 났었지.

결혼은 23살 선달에 우리 아저씨 군대 휴가 나와 우리 집 마당에서 했지. 겨울에 했어도 날이 그렇게 좋았어. 하룻밤 친정에서 자고 바로 시댁으로 갔지. 신혼여행은 뭐 못 갔지. 딸은 결혼하고 바로 있었어. 첫째 둘째 둘 낳을 때 우리 아저씨는 군대 있었지. 딸은 친정 가 낳는 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친정 아랫방에서 낳지. 탄 식구라 윗방이나 사랑방이가 낳는 데, 난 아랫방에서 나왔어. 친정 어머니가 며칠 산후조리 해줬고. 아들은 큰 집에서 그냥 낳지. 친정 어머니가 와서 산후조리는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서는 또 개 돌 넘어가니까 또 막내가 생겼지. 다 두 살 터울이야. 셋째 낳을 때도 돈 벌러 갔나 어쨌나 우리 아저씨는 집에 없었어. 셋째는 맏동서가 산후조리를 해줬지. 애기 셋을 누가 업어줘. 내가 다 업고 일하고 빨래하고 다 했지. 허리가 그냥 부러지는 줄 알았어. 남편하고 관계는 좋았는데, 시아주버니가 맨날 술 먹고 개판을 쳐서.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고

뭐 안 한다고 막 이래서 마누라를 내보냈어.

내가 23살 먹어 어린 게 와서 밥을 해주려니 얼마나 힘들었냐고 시동생들 둘이나 있지. 자고 일어나면 시아주버님은 술 잔뜩 먹고 잠들어, 우리 잘 때 밥 먹는다고 그러고. 잘 살면서도 보리쌀하고 섞어 먹으라고 해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일꾼들은 다섯 여섯 명씩 있어 오전 새참, 점심, 오후 새참까지 해줬어요. 옛날에는 사다 줄지도 모르고 다 집에서 했지. 어떻게 했는지……. 큰동서는 뭐 술 먹으면 두들겨 맞고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기가 있어서 큰동서도 애를 하나 낳고 나도 딸을 낳았지. 근데, 큰동서가 애 낳고 아기 돌도 안 돼 나갔잖아. 큰동서는 안 산다고 나갔는데 우리 딸은 나만 딱 들러붙어 떨어지지도 않아 업고 그냥 밥해 먹었지. 또, 개(조카)도 암죽 먹여가며 키웠는데, 6개월을 더 살다가 죽었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니까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시아주버님을 동네 사람 중신 해줘 사는데 바로 애가 있었어. 우리 아들 낳고 다음에 낳지.

나는 시집왔으니까 시집왔다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지. 아이고, 진짜 산 게 용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는 거 큰아버지(시아주버님)한테 질려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막 술 못 먹게 하고 그랬어. 우리 아저씨 제대하고는 큰집에서 살림을 내준다는 게 글썄 이웃의 사랑채에다 내놔주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전에 선불 때 시어머니가 중신어미한테 얘기한 논 7마지기하고 밭 500평으로 밥은 먹고 살겠다 했지. 우리 엄니도 그것 때문에 허락을 해주신겨. 근데 시아주버니가 부모가 준다는 걸 안 줘. 생각도 하기 싫어. 형이 약속을 안 지켜 신랑은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갔어. 집이라도 번듯한 걸 얻어 주든지 지어

주었으면 우리 아저씨 안 나갔지. 남편은 서울 가 소식도 없고 애들이 둘 셋 되니 떼놓고 나갈 수도 없잖아. 애들한테 내 인생 희생하고 애들 셋보고 산 거야. 그런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도저히 안 돼, 삼 남매를 큰 집에다 맡기고, 2년인가 3년인가 서울가 일했지. 우리를 살게 해 줬으면 내가 왜 서울을 갔겠어. 큰엄마 큰아버지가 키웠지. 그냥 그냥 살게 안 해주니까 애들 다 떼놓고 갔지. 애들 안 죽이고 살린 게 감사하지.

고생고생 징글징글하다고 깃털 장사도 하고 그냥 안 해본 게 없어.(울음을 삼키며) 시골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서울 올라가 남의 파출부, 가정부도 살아보고. 아이고, 배우기를 했어. 뭐 했어. 평화시장 그것도 물어 물어 가 미역도 떼다 팔아보고 떡집에서 떡도 떼어다 팔아보고 안 해본 게 없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차 타고 어떻게 했나 몰라. 그래도 젊고 그때만 해도 저기 하니까 다 팔아주더라고.

그땐 거리서 애들 보든 다 내 새끼 같았지. (울음) 어휴. 거리서 다른 애들이 울면 다 내 새끼 우는 것 같고. 명절에도 못 왔어. 키우는 사람도 힘들고……. 애들 떼어놓으니까 죄는 다 내게로 오더라고. 생전 안 앓던 생손*을 열 개를 다 앓았단니까. 하나 앓고 나면 또 앓고. 손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죄는 다 나한테 오나비다 했어. 생손은 그때 앓아보고 그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 그라니까 고생하고 산 걸 일일이 말로 다 못 혀. 여적지 어디 딴 데로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진짜 부잣집으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 여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살아온 걸 구비 구비 적어놔으면 눈물 안 빼고 볼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단니까. 어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그래도 딴 사람도 고생을 많이

* 손가락(주로 손톱 밑)에 생기는 화농성 염증이다. 처음에는 별경게 붓고 점차 쿡쿡 쏘면서 몸살이 난다. 생손 앓이 때 몹시 아픈 것은 다른 곳에 비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하. 안 죽고 사는 게 참 모질어.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팔십 넘게 살았으니 무지무지 살았지.

애들 때놓고 일해서 그래도, 방 한 칸 부엌 한 칸 쪼간 한 거 약속동에 얻어 애들을 데려간 거 아녀. 막내도 초등학교를 들어갔나? 하여튼 그래. 여기서(금남면) 초등학교 들어간 거 1, 2학년 때 장충초등학교로 옮겨 다니다 5, 6학년 때 왔나? 남들은 남한테 옷값을 떼먹고 반찬값 떼먹고 해도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나도 별로 안 떼고 장사했어. 그렇게 이렇게 살다, 살다 하니 신랑이 돈을 모아 오더라고. 200을 갖고 왔어. 그때 200이면 큰돈이야. 서울서도 살려면 뭐…….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디가 보면 자꾸 시골로 내려가라. ‘고향으로 내려가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산다.’고. 그래서 그냥 내려온 거지.

아휴, 딴 사람은 못 견뎌 벌써 도망을 가도 열 번은 갔을겨. 한 번도 도망갈 생각은 안 했다니까 애들만 잘 키우면 괜찮겠지 했어. 근데 한 번 나갔다 왔어. 한 번. 나만 너무 속상해서 저 큰집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갔다가 그냥 왔는데, 나간 것도 아녀. 한나절. 큰 집이 있다가 그냥 온 거야. 애들 때문에 못 나갔지. 무슨 고난도 그냥 개네 때 매 참은 겨.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걸. 허허(허탈한 웃음)

하…….(깊은 한숨) 첫째 큰 집을 잘못 만난 게 이렇게 된 거야. 시아



첫째 아들 금호 중학교 졸업식

주머니가 부모가 준다는 거 안 줘서 애들하고 사느라고 고생한 건 말도 못혀. 형제간에 막 고소한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자식 키우며 형제 사이에 고소하느냐.’고 말렸지. 그래도 살기만 하면, 언제고 시아주머니가 죽기 전이는 허락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야녀. 아, 글썄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한이 맺힌 거야.

다시 고향으로, 대평시장

시누가 이 집 여기서 살아 대평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어. 누나니까 그래 받아줬지. 시누는 동기간보다 더 자주 왔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는 좋았어. 시누는 가게 옆에 딸린 방에 들어가 누웠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애기도 했어요. 하여튼 이 골목(대평시장)에 와서 안해 본 장사가 없어. 내가 여기를 36살에 내려와서 37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어. 슈퍼도 하다 옮겨서 과일 장사도 하고 저기 채소 장사까지.

여기서도 장사 하니라고 잠을 설치고 살았어. 장사하니 애들 학교에서 하는 체육대회니 소풍이니 제대로 한 번을 못 갔지. 그래도 학교 졸업식은 가본 거 같어. 여기 책(앨범)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이 있을겨. 앨범 이거 내가 안 보면 이제 다 버려야 되거든. 그래 여기 갖다 놓고 슬슬 보지.

저쪽이서 슈퍼 할 때 물건 떼는 건 남편이 했지. 그거 몇 년을 하다가 요쪽(지업사 옆 신발가게)을 오면서 과일 가게를 했지. 과일도 우리 아저씨가 떼놓으면 차를 불러 실어왔어. 과일 장사 할 적엔 추석 때, 이만큼 하는 소쿠리를 사서 선물 쥐가며 손님을 끌었지. 또, 고향 땅이니까 열심히도 와줬고, 그래 이렇게 여적지 여적지 하고 있지.

장사가 제일 잘 될 때는 아이고 몇 년도라고 저기 한다. 과일 장사에서 이제 채소 장사까지 겸해서 할 적여. 그때 시골서 다 농사를 지었으니깐 모심을 때 와서 밥할 거 새참 할 거 재료사면 우리 아저씨가 막 오토바이로 다 배달 해줬지. 그래도 남한테 10원도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진짜 돈을 얻어 써서 떼먹은 적도 없어. 나쁜 짓은 손톱만치도 안 하고 살았어.

나중에 이걸(지업사)을 시누이가 물려주더라고. 이걸로 이제 마감을 한 거지. 이거 할 때도 장관 같은 거 많이 끊으러 오면 (우리 아저씨) 회관에서 놀다가도 금방 뛰어오고 나만 조금 아프면 ‘우리 굶어 죽는다.’고 난리야 약 사오고.

그때는 저쪽 집 반(옆 가게) 이쪽이(제일지업사) 반 해서 여기다 방을 이렇게 들어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데, 바깥 부엌도 아니고 바깥 뜰 팡 연탄 아궁이에서 불이 나서 다 탔지. 불이 넘실넘실 넘어오고, 여기 (지업사 천장을 가르키며)도 그래서 그슬린 거지. 그때 얼마나 놀랐나 몰라. 일(도배지, 장관 진열된 곳)로 넘어왔으면 일 났지. 몇 살 때여, 금 모으기 할 땐 데, 반지 목걸이 있는 거 다 팔아서 방 고쳐줬지. 나중엔 이쪽 (지업사 옆집) 집이 새로 지으니까, 이걸(방) 헐어줘야 하잖아. 그래서 그때 아파트를 산 거야. 어휴, 그때 그것도 안 사봤으면 어쩔뻔했어. 그때는 그냥 썼어.

가게는 계속 내가 보고, 아저씨는 배달 가거나 집 짓거나 집수리 있다면 직접 가서 다 재고했지. 30년도 더 됐어. 입식 부엌 할 때가 제일 잘 됐지. 그때 돈 벌어서 우리 애들 가르쳤어요. 사람 구해 도배는 그 사람이 하고, 장관은 사람 안 쓰고, 우리 아저씨가 배워 깔고 다녔지. 두진 아파트도 많이 했지. 또, 동네에서 일할 때는 연신 수건 냉동실에 넣다 시

원하면 갖다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더 잘했지.

장판은 딱히 뭐 유행은 안 타요. 이 책(견본)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 고르는 거지.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이렇게 시켜면 것 고르는 사람도 있고, 하얀 것 고르는 사람도 있지. 바닥은 30년을 했어도 색깔 디자인이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소재, 질이 더 좋아졌지. 도배지도 유행 없이 무난해요. 다 고르는 사람 취향으로 정하지. 도배지도 질이 좋아져 이 묶음이 7천 원짜리인데 이렇게 좋아. 큰 묶음은 5만 5천 원, 3만 5천 원이지. 그렇게 싸요. 도배 장판은 단골이 따로 없어. 한 번 하면 한 5년 10년 동안은 안 하니.

지금은 이제 방 한 칸, 컨테이너, 마루 그런데 깔려고 나가지. 장판 끊으러 오면 손님이 붙잡아주고 내가 끊어주지. 손님들은 다 차들이 있으니 갖고 가고, 도와달라면 도와줘. 도배는 종이(견본)에서 골라 몇 평할 건지 전화하면 보내줘. 또, 하고 남으면 가져가. 그래야지 여기 어디다 다 세워 놔. 조그마한 건 자기들이 하고 집 도배할 때는 30년이 뭐여 처음에 시누가 할 때부터 하던 사람이니까 한 50년은 같이 하나 봐.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와서 도배는 해줘. 근데 지금 올해는 도배를 안 해. 일거리가 없어. (세종시 집들) 새거지. 옛날이야 다 초가집 이러니까 명절 앞두고 도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들을 다 좋게 고쳐놔서 계절에 상관없이 하지. 그렇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다 하면 와서 다 해준다데.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해주기도 하고. 단열재는 사람들이 곰팡이 난 데 붙인다고 사가. 책상이나 식탁 김치냉장고 위에 덮는 비닐도 있고.

이 집이 시누 집이잖아. 근데 이 집도 그려. 집 살 때, 누나랑 우리랑 같

이 사기로 했거든. 우리는 옷도 안 해 입고 뭐 애들 그냥 밥만 먹어서 초등학교 보내 모은 돈으로 사려고 했어. 그런데, 시누보고 아들인가 며느린가가 '우리랑 사지. 왜 삼촌이랑 사냐?.'고 하니, 시누가 며칠을 우리 아저씨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너희들(구술자 부부)은 죽을 때까지 세는 내지 말고 살고 등기는 아들하고 내야겠다. '했대. 그러니 어떡 하. 누나니까 허락을 해줬더라고. 등기는 시누랑 아들(조카)하고 냈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겨. 그때 그냥 우리가 이거 반쪽만 샀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남만 살리고 우리만 맨날(목소리가 높아짐)……. 큰 집도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중신해, 아들 낳고 딸 낳고 했지. 이 집도 내가 살리고 그 집도 내가 살린 거야. 어휴……. 넘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이렇게 저기 하느냐고…….(침묵)

하도 오래됐으니까, 비닐봉지를 언제부터 팔았는지는 모르지. 장판 이것만 하다가는 너무 저기 하니까, 팔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저쪽(가게 앞 빈자리)까지 내놔있어요. 근데 내가 다 감당을 못하니 비닐을 자꾸 줄이지. 또, 우리만 팔면 괜찮은 디, 다른 집도 갖다 놓고 하니까 드문드문 나가지. 오는 사람만 파니까 우리 아저씨 살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우리 아저씨랑 놀리는 많이 다녔지. 가게 문 닫고 같이 다녔어. 사이는 좋았어. 상인회에서도 가고, 동네 계 들어 계에서도 많이 갔지. 신협에서도 거래하는 사람들에 '갈 사람 가자. '하면 가고, 외국도 많이 갔어. 여기저기.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뭐 다 좋았지. 무릎이 안 아플 때는 계단이 뭐 여, 산에도 올라갔는디. (앨범 사진을 보며) 중국인지 대만인지 그것도 써 놔야 하는 데 안 써놔서. 이건 기억나네. 일본 물 끓는디. 칼라로 찍어

서 지금 봐도 이쁘더라고. 근데 갈 때는 계를 하나하나 다 깨더라고.

시장 상인회에서 1년에 한 번 놀러 가지. 놀러 안 가는 사람은 가게 열고, 갈 사람만 한 차 널찍하게 해서 가지. 나이 먹고 지금은 상인회하고, 용포리 노인회에서 가는 것만 가는겨. 아파트로 이사했어도 여기서 쪽 살았으니 노인회는 용포리 이리 들었지.



사돈과 고복저수지에게

시장의 세월, 대평시장

여름 장은 더워 사람이 없고, 겨울 장은 추워서 사람이 없어. 그나마 대목장이 사람이 좀 있지. 설 추석 명절 장도 그전에는 시내버스 시간 맞춰 사람들이 오고 버스 기다리며 장구경도 했는데, 이제는 차가 다 있으니 와서 필요한 것만 사고 금방 가고 그래요.

상인회에서 9월 며칠날 대평시장 행사도 한하는데 구경 와요. 그래도 볼 만해요. 이 시장을 살려야 손님이 많아지는데, 시장을 어떻게 살려.

장날마다 오는 사람들은 세는 따로 안 내고, 자기 자리에서 장사하지. 아파서 못 오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나오면 또 오는겨. 거기서 거기대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놀러도 가더라고.

대평시장 차양 지붕은 나라에서 해준겨. 10년이 뒤편 20년 30년은 됐어. 눈 오고 비 올 때 넘어지진 않으니 편한 데, 바람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더워. 그러니 이게 보통 고생이냐고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옛날에는

장마져 금강물이 여기(금남면)까지 왔다는 디, 지금은 잘해 놔서 안 들어와. 무료로 간판도 이쁘게 해줬고. 보도블록 깔 때는 한 이틀은 장사를 잘 못 했지. 그래도, 그냥 여기(인도) 좀 다니게 하고 공사했지. 공동변소도 편하게 해놔어. 여기는 더운데, 거기는 에어컨도 틀어놔서 시원하니까 옛날 같으면 살림해도 돼. 이거(가게 앞 진열대)는 침에 와 37살 때부터 신희 거래해서 지금껏 하니 몇 집 선정해서 줄 때 준 거.

지금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천지야. 새로 들어와서. 젊은 여자들도 식당을 한다고 저렇게 식당이 많아졌지. 예전에는 식당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 지금은 뭐 할 게 있다고 이렇게 많아. 세종시로 바뀌고 대평시장이 좋아지건, 젊은 사람들이 좀 오는 거. 근데 시골에 골목골목에 엄청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다 뜯어서 풍비박산 난 사람들도 있고, 또, 보상받아 탄 데로 전부 퍼졌잖아. 도배 장판은 세종시 들어와서 더 장사가 안돼. 우리는 배달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큰 데서 다하니까. 올 정월 달엔 시청에서 길에 간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말이 없네. 신희에 가서 한 번 물어봐야여.

남편의 병환

우리 아저씨는 예순인가 예순 하나에 병이 나서 일흔다섯인가 일흔여섯에 갔으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내가 잘해서 오래 살았다고. 목암으로 삼성병원을 얼마나 다녔다고 그래. 자기가 별은 건 다 병원비야. 병간호가 힘들어도, 그래도 낫기만 하라고 했지.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줬지. 지금 서울 여대 간 손녀딸 업고서 태어나서 두 달 된 걸 여기 갖다 났으니까 내가 업고 키워야지. 빨래 해줘

가며, 장사해가며. 친정서 나서 지들(큰아들 부부)은 서울서 직장이 다니고. 그걸 그냥 아이고 진짜 어떻게 키웠나 몰라. 저녁에 그냥 잠 안 자고 울어. 할아버지는 잠 못 잔다고 하면 내가 그냥 안아서……. 그걸 누가 알아. 나나 알지. 암죽 먹여가며. 그때는 채소 장사도 여기다 이렇게 해놔어. 그래도 맨날 머리도 얼마나 예쁘게 해줬게. 요 골목에서 손녀딸 다 키웠어. 그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놔야 했는데……. 그 손녀가 할머니 자기가 돈 벌 때까지 살으라. (흐뭇한 미소)

소고기만 사다가 구워주고. 우리 아저씨는 방사선 치료받으러 충남대학병원을 혼자 운전하고 다녔지. 그 양반도 아픈 표도 안 내. 넘어 아프다는 거 알면 깔볼까 봐. 웃도 그냥 신사같이 입고 다니고. 그렇게 애쓰더니 죽을 땐, 뭐 용도 안 쓰고 금방 죽은 거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딸 집에 전화가 왔드라. 딸네서 얘기 좀 하더니 속이 좀 나뻐나? ‘아휴, 피곤하다. 가서 누워야겠다.’ 해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침을 하더니, 피를 두어 사발 토하니까 그게 끝이더라고. 그런데도 이게 침대인데 여기(침대)다가 토를 안 하고 내려와서 토한 게 나는 어머……. 그래 유성 병원 가니까 뭐…….

마실 갔다 와 금방 죽었다니까. 세상에 마실 갔다 온 사람이 왜 금방 죽었냐고 난리가 났었지. 본인은 알았나 봐. 그러니까, 좀 있는 것도 다 미리미리 내 앞으로 돌려놔지. 또, 식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편지를 써서 생일 적어놓은 책에 넣어놔더라고. 다니던 안 해도 우리 아저씨 좋은 곳 가서 복 받으라고 49재는 근처 절(화암사)에서 했어. 또, 좋은 날 받아 옷까지 해 천도재도 지내고. 그랬더니 내 맘도 편하고 우리 아저씨도 좋아 했겠지.



나를 살게 한 삼 남매 그리고 노년

우리 딸 중학교 졸업할 땐, 아이고 그때 힘들어서 우리 집 아저씨가 고등학교를 못 넣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무슨 젠가 거기서 4만 원을 얻어서 입학금인가 내고 고등학교는 졸업했지. 첫째 아들은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었어. 그래, 대전으로 고등학교 가고, 방 얻어 딸이 밥을 해 줬어. 막내까지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갔지. 그땐, 집도 샀어. 집을 어떻게 얻었는지 얻어서 애들 둘 밥해주며, 이왕 하는 김에 한다고 애들 넷인가 하숙도 줬어. 우리 딸이 음식을 잘해. 빨리도 하고, 지금까지 착해.

애들은 엄마 고생한 거 알기는 다 알지. 우리 막내아들은 다 얘기하지.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다시 태어나도 엄마한테 태어난다고 건강하게. 남들은 엄마한테 매 맞고 해도 애들 생전 한번을 때려 보도 안 했어. 그렇게 없이 키워도 애들한테 못된 욕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울먹이며)……. 잘 커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지……. 우리 애들은 우유도 하나 안 먹고 젖만 먹여서 키운 애들이야. 예휴.

우리 큰아들은 말이 없어서. 속으로 암만 좋은 걸 생각하고 있어도 말을 안 하니 모르지. 근데, 어버이날 어서 산삼을 구해다 줬어. 내가 늙어

먹어서 뭐하나 너 먹어라. 네가 건강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닦아 줘. 그래서 그냥 내가 다 빵아 먹기는 먹었어. (행복한 미소) 딸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전화해. 직장을 다니니 여간해서 못 오고 이 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와. 우리 딸은 어려서 못 먹어서 그런가 조그만 하. 그래도 일하는 건 뭐 어떻게 잘하. 처음 봤어.

다리가 아픈지는 한 5년 됐어. 나는 아퍼도 내색을 안 해. 살살 걸으며 아파도 장사는 해야 하나까 했지. 이 다리가 베 짜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리가 뒤틀려서 휘었으니까. 내가 다리한테 너무 고생을 시켰다고 얘기해. 수술할 땐 재워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는 걸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아프고, 2~3일 있으니까 이걸(수술한 무릎) 꺾는다고 아휴. 꺾는디, 죽어.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대. 수술하고 처음에는 (무릎) 이만 하. 발간 게 그냥 이렇게 붓고 수술은 잘 됐다. 잘 아물어서 수술한 데 자국은 많이 없어. 다리도 펴지고, 15년은 쓴다. 나이가 많아서, 15년 살진 못해도 이제 잘 보호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해 주고 의사들도 잘 만나 여러 사람 덕택으로 잘 나왔어. 수술하고는 걷는 데 진통이 없으니까 아프지는 않아. 예전에는 그저 걸을 때마다 아파 갖고는 어휴……. 염증 안 나게 얼음찜질도 해주고. 열나게 하면 큰일 나. 더는 부으면 안 돼.

무릎 수술할 땐 큰아들이 입원할 때는 데려다주고, 거기는 늦게까지 장사니까. 딸하고 사위하고 와서 해줬지. 한 달을 집을 비웠으니 딸이 와서 집을 치워주고 이번 주 토요일 더 와서 해주어야지.(웃음) 막내아들은 노력을 많이 해. 노력파. 클 땐 공부를 못한다고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베트남 가서 잘 하고 있지. 엄마 수술했다고 멀리서라도 신경 써 주고, 작년에는 8월이 왔나 올해는 추석에 온다.

가게는 9시에 열어 7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목욕하고 밥하지. 큰아들하고 같이 살아 대전 병원 갈 때도 챙겨주고 든든한데, 아침은 어쩔 때나 해줄까 늦게 오는 날은 내가 해줄 생각도 안 해.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첫째잖아. 첫째 아들 가족하고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나랑 아들은 각자 가게 나가고, 며느리는 직장에 다녔지. 그러다, 손자 손녀 서울서 대학 가니, 며느리도 서울서 직장을 다니지. 어떻게라도 애들 대학을 마치려고 하니까. 며느리를 잘 얻었어. 나 같아. 생활력이 강하고 애들 저렇게 끌고 나가는 게. 수술하고는 맥이 없어. 집이 식구(남편)가 없으니 나물 한 가지도 잘 안 하지. 집에 식구(남편)가 있어야 콩나물 하나라도 하지.

오래 해서 단골도 많고, 연신 사람들이 오니 외로울 새는 없어. 장사하면서 안 쓰고 내가 운영을 지독하게 하니까 그렇지 쓰는 사람 같으면 용돈도 안 나와. 한나절에 마수도 여지껏 안 들어오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벌어 먹고살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인심을 안 잃어 사람들이 우리 집밖에 앓을 데가 없다는 거. 이번이 나 병원에 있어 한 달 문 닫 앓을 때 난리였어. 어디가 물 한 모금 먹을 데도 없다고. 마실꾼도 가면 TV는 보기 싫고, 보면 골치 아파 안 봐. 화투로 그날 하루 장사 잘되나 그냥 운 볼 때도 있고, 그냥 쉬다 드러눕기도 해.

수술하기 전에는 걷기 운동도 했는데 아직은 못 하지. 여기 그린공원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 세종시가 되고 그거하고 산길을 너무 좋게 해놔서. 그 산은 누가 쳐다도 안 보던 산인데 그냥 그거 해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산도 저렇게 팔자가 늦게 폈어. 그린공원 위로 이렇게 가



면 거기 흠길을 세 바퀴도 돌고 두 바퀴도 돌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도는 거. 지금은 흠길이 없잖아. 전부 시멘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침에 맨발로 다녀 거기를 그냥 돌고서 출근들 얼마나 많이 한다고. 혼자 가도 안 무서워.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걷고 해서 이렇게 쉽게 깨송(회복)한 거. 수술한 병원에서 열흘 입원한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먼저 나왔어.

그 산은 야트막한 게 추석 때는 가서 걸어도 될겨. 그래도 그것도 많이 돌 것어. 여간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게 걸어오는 게 운동이고. 어제 병원(8월 5일)에서, 이제 11월 4일에 병원에 오고는 안 와도 된다. 나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봐. 명이 짧다고 그랬는데, 하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명을 잊고 잊고 해서 그런가. 착하게는 산 거 같은데, 여든다섯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글썄, 건강이 따라줘야지.

참고 문헌

-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강순제(2012), 『우리 옷감 이야기』, 교문사
- 유구 섬유 역사전시관(www.againyugu.kr)

〈채록자 후기〉

힘든 삶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감정을 읽다



5월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안동예님의 무릎관절 수술로 6월 말에서야 인터뷰를 시작했다. 간간히 전화로 안부도 여쭙고, 얼굴도 자주 보니 인터뷰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야기는 풍성해졌다. 3년의 한국 전쟁으로 최빈국이 된 나라의 소녀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결혼 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셔 비빌 언덕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삼 남매를 친척에게 맡기고 서울로 돈벌러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외부의 고난 속에서도 소녀는 자기의 인생을 묵묵히 걸었다. 소녀는 노인이 되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록·셈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손자손녀를 두었고 팔십이 넘는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한(恨)’ -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가난한 피란 가정의 소녀는 학교 가지 못해 슬펐고, 돈 벌러 서울 간 남편의 빈자

리, 그 안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젊은 새댁은 기반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살아갈 세월이 암담했을 것이다.

하지만, 힘든 삶 속에서도 어릴적 공기놀이, 비석치기, 오재미 하던 소녀의 즐거운 웃음. 소창 짜던 생기 넘치던 아가씨. 삼남매 이야기를 하실 땐 어머니의 흐뭇한 웃음이. 남편과 좋았던 추억은 잔잔한 미소로 힘든 삶엔 행복도 함께였다. 안동예님의 가게엔 어머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5년 10년 주기로 하는 도배 장판의 특징을 생각하면 물건을 사러 지업사에 들르신 것 보단 이웃집에 마실 오신 것이다. 인심을 잃지 않고 대평시장에서 45년 넘게 장사를 한 안동예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채록을 하며 화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의 중요함. 그리고,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정적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동예님의 이야기 속 아쉬움·허탈함·회한·정적·온화함 등 다양한 감정이 읽는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이근숙 생애구술사

저희는 오래된 거 없어요
오래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세종시 대평시장 '용포떡방앗간'



이근숙 말하고, 김경숙 쓰다

인터뷰 영상 보기



연보

1970년	1세	장군면 산학리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출생
1972년	3세	어머니 병으로 사망
1983년	14세	장기 초등학교 졸업
1986년	17세	장기 중학교 졸업
		성모여자고등학교 입학. 대전 큰집에서 학교 다님
1988년	19세	을지병원 보조 약사로 근무
1989년	20세	친정 아버지 수술 중 사망
1990년	21세	금남약국 근무
1997년	28세	용포떡방앗간 셋째 아들과 결혼
1998년	29세	첫째 딸 출생
2003년	34세	둘째 딸 출생
2007년	38세	세종시 출범. 이후 방앗간이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
2008년	39세	본격적으로 방앗간 일을 하기 시작
2009년	40세	시아버지 위암 수술
2012년	43세	시아머니 무릎 수술
2017년	47세	시아버지 사망
2022년	52세	본인 고관절 수술
2024년	54세	대평시장 '용포떡방앗간' 운영 중

산학리 산골에서 넷째 딸로 태어나

장군면 산학리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시골 산골 마을 산꼬랑이, 지금 영평사 들어가는 데. 지금은 몇 집이 산이 좋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산속에. 근데 그때만 해도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딱 두 집밖에 없었어요. 녹음이 푸르른 6월, 나무 이파리가 무성할 때쯤이 되면 앞집도 안보이고 하늘만 보여. 그런 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형제는 4녀 1남. 제가 딸로 막내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근자가 돌림자, 누가 지어주셨는지 확실하게 말을 못 들었어요.

제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언니가 10살 때, 저는 3살 때 돌아가셔서 4살 때 저를 키워준 엄마가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새로 들어오신 엄마가 남동생을 낳아서 저하고 5살 차이. 근데 저는 새엄마라는걸 모르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잘 해주셔서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커서 알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고학년 올라가서 알았으니까.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해요. 아버님은 농사 지으셨죠. 아버지 두 형님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맹자왈 공자왈 찾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일을 다 하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큰 집을 돌보고 이렇게 살으셨는데 엄마가 딸만 낳았다고 아버지는 큰 집만 돌보고 큰아버지가 한 동네 살으셨는데 되게 엄하셨고 지지배들 학교 보내면 뭐 하냐고 학교도 못 가게 지키고, 꽤고 막 그렇게 혼나면서 살았다고 지금도 언니가 그 얘기하면 막 눈물 흘려요. 없어서 못 먹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했겠는데 넘쳐나도 내 집의 공간을 안 채우고 아버지가 농사 지으셔서 가지고 큰 집에 갖다 주고. 그래서 큰언

니 둘째 언니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가
지고 초등학교 졸업장은 땀다고 말로만 들었지. 저는 굉장히 편하게 힘
든거 모르고 살았어요. 한 집에 사는 형제들도 그렇게 달라.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어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어린 시절 기억이 잘 안 나요. 큰언니하고는 7살 차이 나고 둘째 언니
하고 4살 제 바로 위 언니하고 두 살 차이 나는데 언니들과 놀았던 기억
이 저는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왜 그런지 언니들이 엄마 같아 엄마
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 거기에는 내 나이 또래도 없었으니까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 친구
가 생긴 거지. 초등학교 다닐 때 공기놀이했던 기억 조금밖에 없어. 내가
뭘 했는지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어. 기억상실증 걸린 것 같고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야.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초등
학교 1학년 때 기억이 간간이 나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내가 많이 아
팠을 때 학교도 멀고 한 10리 길 되는데 거기 학교 있는 데 보건소가 있
었어. 한여름이었는데 엄마가 그 먼 곳을 내가 아파서, 나를 업고 보건소
다닌 기억 그거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아버지도 내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도 더운 여름에 병원 갈 때 업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
갔는데 제가 다리를 이렇게 절었었나 봐요.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서
“너 왜 다리를 저니, 다친 적 있니?”하고 묻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서만
놀다가 학교를 가서 저는 제가 다리를 저는 줄도 몰랐어요. 별 이유 없이
다리를 저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병원 다니고 어디 용하다는데 침

맞으러 다니고 그런 기억만 있죠. 그때 당시에는 다리를 저는 이유를 몰랐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옹하다는 데는 다 다니면서 검사해보고, 침 잘 놓는다는데 가서 침 맞고, 방학 때 되면 한 달씩 가서 침 맞느라고 왔다가 멀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면 거기 가서 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병원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다예요.

학창시절, '헬리헤성'과 '블루진'

학교에서 집이 10리 길인데 거길 걸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집에 조금 놀다가 저녁 먹어. 숙제 내주면 숙제하고 일찌감치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뭐 따로 공부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필기를 하시잖아. 그러면은 필기를 안 하고 그걸 외워 그 시간에, 선생님이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다 외워.



20대, 젊은 시절

나중에 노트에다 그냥 한 번에 정리 짝 그렇게 공부를 했어.

산학리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전으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는 연합고사라고 해서 대전에서 시험을 봐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에서는 큰 집에 가서 살았어요. 할머니도 같이 살고 큰엄마가 잘해주셔서 서러운 건 없었어요. 똑같이 삼시 세끼

밥 먹고 아침 일찍 먹고 학교 나가면 저녁에 오고 하니까 뭐 서러울 새도 없었어요. 내 성격이 그냥 별나지도 않고.

제가 성모 여자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성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던 거예요. 3년 동안. 주말마다 집예를 가니까. 친구들과하고 어울리고 놀고 이러지 않고 그냥 주말 되면 집에 가고 이제 일요일 늦게 오면 자고 월요일 학교 가고 그냥 그저(그렇게 지냈어요). 처음에 1학년 들어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한 반년은 그냥 착실하게 다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 이래 대전 아이들도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근데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이제 공부를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힘든 일을 못해서 딱히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를 가면 좀 힘들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반항은 하지 않았는데 반항아처럼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좀 나태한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수업시간에 이제 집중도 하지 않고 무늬만 모범생처럼 잘 다녔죠. 무늬는 모범생 실제로는 이제 공부도 못하는 그런 낙제생.

딱히 재미있게 생활을 못했어요. 재밌던 기억이라기보다는 신기한 거. 신기한 기억이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얘기죠. 이튿날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책을 베개 삼아 텔레비를 봐요. 잘 때 꿈속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헬리혜성’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과학 시험 문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76페이지 왼쪽 중간에 헬리혜성 그림이 조그맣게 나오고 글씨가 짝 나오는데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꿈속에서 봤는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헬리헬성을 썼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만점을 맞은 거야. 나도 신기해. 그리고 또 고3 때 영어 문제도 있었어요. ‘블루진’. 서부 개척자들이 처음 입었던 청바지 그림이 상단에 나오고 밑에 이제 청바지에 대해서 설명이 영어로 쪽 나오고 이게 뭔지 묻는 문제인데 답이 블루진이에요. 그게 내 꿈속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누가 말하면 거짓말 같죠?

아버지의 수술 중 사망으로 한동안 방황하다

고등학교 졸업 즈음 인문계 고교니까 취업하기는 힘들지. 그런데 거기 학교에 먼 친척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을지대 약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약재과에 약사 보조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1년 좀 넘게 다녔어요.

거기 병원에 취직해서 약재과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거기 계신 과장님이 이제 심장 전문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병명이 심장 판막증 이라고 받았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시다가 뭐가 잘못됐어, 수술



고등학교 졸업식 날



금남약국 근무 시절

하다 돌아가셨거든. 동생은 어렸고 엄마는 시골에서 이제 그래 잘 모르셨고, 내가 거기 있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제가 했어요.(눈물 글썽임)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거기 병원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자책감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한참 방황을 했었죠.

병원 그만두고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여기 금남약국에 취직을 했어요. 을지대학병원 거기 다닐 때는 둘째 언니가 이쪽 금남면 쪽으로 시집을 왔어. 그래가지고 언니네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 둘째 언니네 아기들이 있고 하니까 언니네하고 같이 지냈는데 금남 약국에서 는 약국 2층에서 살았어요. 약국에서 밥해주는 아주머니들이 밥 해 주시고 하니까. 그냥 일반 조그만 시골 약국 같았는데 약사님이 이제 능력이 있으셔서 암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다고 판단받은 암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오는거야. 이제 그 약을 먹고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약국이 굉장히 바빴어요. 외롭다거나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었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문 열으면 밤 9시까지 일했으니까.

월급은 그냥 제가 쓰고 그때 당시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재형저축 5년짜리로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동생때문에 시골 생활을 다 그대로 놓고 간단한 세간살이하고 몸만 이제 공주로 나간 거예요. 이제 세를 얻어서 갚는데 조금 살으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350만 원인가 이제 옮겨가는데 보태 드렸어요.

해야되나 보다 생각하고 한 결혼 그리고 시집살이

아버님하고 금남 약국 약사님하고 사촌지간으로 약국 집안이에요. 이제 오며 가며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장손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 시부모 때부터 여기가 단골인 거야. 언니가 이제 장손 며느리로서 생활하는 걸 봐오고, 언니 동생이라는 걸 알으셔 가지고 언니한테 얘기를 해서 ‘자네 동생 뭐 하나 요즘’, ‘아들하고 만나 얘기 좀 해보지 않으려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가 내가 27살 때, 남편의 나이는 29. 남편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방앗간에서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앗간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겁 없이 그냥 결혼을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던 거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모저모 따져보지를 않아서 그냥 제 기억에는 나쁘지 않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봄에 이제 만났으니까 쑥떡 할 때 얘기를 시작해서 가을에 약혼하고 그 이듬해 5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하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줄 알고. 해보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결혼을 하겠다고(한 것이죠).

남편 형제는 4형제 우리가 셋째 아들. 큰 아주버님은 선생님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서 사셨고, 둘째 아주버님도 직장을 따라 나갔는데 큰아주버님이 사시는 근처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넷째인 시동생이 저희가 약혼하던 그해 가을에 취업이 돼서 보령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따로 살고 셋째인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같이 방앗간 일을 했죠.

신혼집을 지금 여기 방앗간 2층에 차렸어요. 2층에 방이 3개나 돼요. 이 건물이 30평 건물이에요. 이제 아파트 같으면 좁을텐데 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뭐 넓지는 않아도 여기서 아이 낳고 계속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여기서 50년 이상을 사셨는데 예전에 이제 헌 집을 사서 집을 지으신 거지요. 아버님 성격이 엄청 좋으신 분.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완전 호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성격은 차고 냉정해,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다르지만. 이 집안 사람들이 좀 냉정하고 차가워.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는 냉정하고 차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딱 그게 먼저 느껴지더라구, 어머니까지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던 생각과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도와서 내 거 네 거 없이 도와주고 이게 당연하다고 살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을 보면 더불어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고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없어. 완전 감옥살이도 아니고 그게 너무 심해.

결혼하고서 저 친정집도 잘 못 갔어요. 친정집은 나를 키워준 엄마 생신, 이제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제사, 또 돌아가신 엄마 제사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거 세 번이에요. 근데 잘 못 갔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가기 어려웠어요. 어찌다 가면, 갔다가 1시간 되면 금방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룻밤 잠을 자고 오고 이게 없었어요. 가까이 살아서

도 아니고, 엄청 일이 많아 바빠서도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야. 가면 그냥 바로 와야 되거나, 아니면 못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10년도 넘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플 때 한번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됐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명절 때도 ‘가라’소리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해야 이제 마지못해 “그럼 갔다 와라.” 갔다가 그냥 바로 또 와야 돼. 갈 때 저녁 차려드리고 가서. 나가면 돈 쓸까 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장모님을 찾아뵈러 가면 명절이면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고 아니면 용돈이라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녔어요. 몇 년은. 어머니가 너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라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말하는 음료수는 들고 다니는 1만 원 안짜의 것 이예요. 돈 많이 쓸까 봐 우리 어머니는 친정집에 못 가게 하는 데, 그렇게 살았어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엄마를 이제 보러 공주를 공주에서 사시니까, 가는데 “수박이라도 한 통 사들고 갈까” 그랬더니 남편 말이 엄마가 싫어한대,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벌어 놓았던 적금해놓은 돈으로 엄마 생신 때나 어버이날 때 되면 그 돈으로 남편 몰래 엄마한테 용돈을 조금씩 드렸어



첫 아이들 때 가족사진

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딸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춰서 혼자 살라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눈으로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방앗간 일

처음에는 일을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후 1년 반쯤 지나서 5월에 결혼했는데 그 이듬해 11월에 첫째가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기계 위험하니까, 애가 여기 내려와서 다치면 큰일 나니 애 잘 보라고 일을 그렇게 안 시키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머니가 60대셨고 일을 왕성하게 더 잘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조금씩 바쁠 때만 도와드리고 하다가 세종시가 2007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바빠지다가 2008년도부터 되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내려와서 거의 하다시피 했죠.

처음에는 쌀 씻어라, 담궈라, 깨 씻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잔일이라고 하죠. 그런 걸 시키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 가지씩 가르쳐주시는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워낙 슈퍼우먼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정확해요. 시골에서 농사지시는 분들은 그냥 많이 퍼 갖고 오세요. 한 말이라고 해도 10kg도 넘고 그냥 많이 갖고 오셔. 그래도 기계에다 붓고 뺄으면 딱 간이 맞아요. 50년이 넘게 해오셨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하셔도 자동으로 다(간이 맞아요). 그런데 설명은 안 해 주시

죠. 절대로. 뭔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여쭙봐요. 손님들이 갖고 오신 거 몇 킬로 담그셨어요? 그러면 글썽 8kg에서 조금 더 덜어냈는데, 아니면 10kg에서 내가 밥 한 끼 해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서. 소금 넣는 것도 한 3년 지날 때까지는 어머니 소금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애기해서 어머니가 넣으셨죠. 이제 한 3년 넘어서부터는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시부모님 간병하기

2009년도 우리 아버님 위암 수술하실 때 초기라서 반절제를 했어. 수술하고 집에 와서 치료하니까 잡숫는 것도 조심을 시켜야 해요. 2008년도부터 바쁘기 시작해서 겨울에 가래떡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 챙기느라고 오르락내리락 죽을 끓이는데, 딱 한 끼 잡숫 것만 끓여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끓여놔다 점심에 데워드리고(데워드리고) 이게 아니라 저녁에 올라가면 육수를 끓여요. 그냥 맹물에 끓여드리면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럼 번비가 올 수도 있고 영양이 부족하면 다른 데 이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영양가가 부족하지 않게 야채 햄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육수를 끓여. 저녁에 내일 하루 먹을 걸 끓여. 그래서 아침에 한 끼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일하고 중간에 올라와서 계속 끓여서 점심에 딱 한 그릇, 한 그릇씩만 끓여드렸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밥을 드시겠대요.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분들은 날마다 고기를 드셔야 뼈가 튼튼하고 힘이 있어져. 근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있으면 혈관이 막히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거를 사다가 끓여 그냥 계속 푹푹 끓여 기름을 다 걷어내고 그다음 날 하



루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밤에 끓여서, LP가스 20kg 짜리 한 통,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한 3개월 쓴다고 그거를 저는 20일에 다 썼어요.

잠 못 자고 낮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버님 괜찮아질 때쯤 되니까 제가 병이 나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전에는 진짜 거지같이 먹고 못 살았는데 그 이후에 아버님 위암 수술하시고 난 뒤로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시장에서 야채도 고기도 비싸고 좋은 것만으로 식사하게 했지. 왜냐면 일단 아버님은 잘 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식구들도 먹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잘 먹고 살았어요.

2012년도에 우리 어머니 무릎 관절 수술하고서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챙겨드려야잖아요. 어머니가 꼼짝 못 하고 물 한 모금도 떠서 드려야 하고 이제 우리 집이 2층이니까 계단 오르내리면서 방앗간 일을 하면서 제가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운동 살살하시고 괜찮아지시니까 이제 제가 안 챙겨드려도 되니까 제가 긴장이 풀렸나 봐요. 병이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여 년 동안 절던 다리를 고치다

어려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서 다리 전다는 말을 듣고, 때만 되면 용하다는데 침도 맞으러 가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성모병원에 가서 전

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아프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겠지만 아프지 않으면 그냥 살아야 한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쪽 살았어요. 심하게 전 건 아니고 약간씩 절었어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허리에 주사를 맞은 거예요. 주사 몇 번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두 번 세 번 맞으면 괜찮다는데 7, 8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고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고. “저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고관절이 다 괴사돼서 물렁뼈가 하나도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 많이 아프거나 막 열이 난다거나 이게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고관절 괴사로 그래서 다리를 절었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야 안 거예요. 고관절 괴사라는 병을 앓다 보니까 물렁뼈가 없어져 다리가 약간 짧은 거야.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약간 절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저한테는 진짜 행운인지 아파서 고생은 했지만, 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검사를 했고 어렸을 때 앓았던 것도 알게 되고 나름 우리나라에서 고관절에 대한 권위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수술이 잘 되고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러니까 2년 전 수술했어요. 2년 전 2월에, 40년을 힘들게 살다가. 설 쇠고 바로 했는데, 그 해는 좀 힘들었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진짜 이 다리 저는 게 없어졌어. 수술할 때

오그라들었던 근육을 펴서 길이를 맞춰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저는 게 없어졌어.

방앗간의 하루 일과

하루 일과는 다 달라요. 날마다. 저희는 떡을 소매 판매는 하지 않아요. 일반 개인들에게 가래떡 한 말, 절편 한 말 뭐 이렇게 한 말 두 말씩 주문을 받아서 주문받는 거만(취급하죠). 개인 취향에 맞게 해가는 거예요. 소금간만 한다든가 아니면 쑥의 씹쌀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을 약간만 넣는다든가 그렇게 주문을 해요. 밥 대신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쉬요. 요즘에는 식사 대용으로 떡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찰떡을 냉동에 얼렸다가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어요. 왜냐면 바쁘잖아요. 다들 맛별이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쌀을 담가놓고 그러고 이제 쌀이 부르면 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해야 하니까 12시부터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 7~8시까지 해야 하고 새벽에 일이 있으면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요. 혼자서 못해요. 혼자 하면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기름 짜는 거나 고추 뺑는 것 한두 가지 있을 때는 혼자도 가능하지만 떡은 혼자 못해요. 저희는 빼는 방식이 달라요. 시루에 찌는 건 혼자 해요. 기계에서 넣고 뺄 때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밑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한 번 빼면 혼자서 빼요. 근데 저희는 두 번 빼요. 두 번째 넣을 때는 혼자 절대 못 해요. 두 번째 넣을 때는 물을 묻히지 않고 넣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떡이 맛있고 쫄깃거리고 손님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도 짜



야 하고 다른 방아도 빵아야 하고 하니까, 방앗간에서 하는 일은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당에서는 그냥 불 세게 해서 빨리 끓으면 얼른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 꼬지근이(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1시간, 떡 앉혀 놓고 다른 일 해야 하고, 뜸드는 사이에 기름도 짜야 하고 기름 짜는 동안에 쌀 빵아서 앉혀놓고 고추도 빵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쁠 때는 끊임없이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서둘러서 새벽에 해야 할 일이 7시 전에 끝나면 위에 올라와서 아침을 챙겨서 먹고 만약 7시 전에 일을 못 끝낸다 그러면 아침 굶고 계속 일을 해요. 오전에 오시는 손님 해드리고 이제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난다. 그러면 올라가서 점심을 차려 먹고 아니면 바쁠 때는 그냥 굶고 저녁 일과를 어느 정도 끝내고 저녁해 먹고 치우고. 빨라야 7시, 늦으면 8시, 9시.

용포방앗간의 1년

지금 8월 초췌. 8월 중순쯤 지나면 이제 햇고추 나오니까 고추를 빵기 시작해. 올해는 이제 추석이 빨라서 8월 한 22일쯤 지나면 바빠져. 그럼 그때부터 추석 때까지 고추.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도토리 나와서 또

빵쪼.

10월쯤 가면 이제 시제철이 돌아와요. 시제 10월 상달 좋은 날을 정해서 집 안에서 이제 돌아가신 윗대 조상분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드려요. 그걸 시제라고 하는데 시제철과 김장철이 맞물려요. 김장 고추하고 김장철에 이제 또 묵은쌀로 가래떡하고 그리고 이제 11월쯤 가면 김장철이 끝나요. 12월 초에는 조금 한가해지다가 12월 초 지나면은 연말이라 또 가래떡 하느라고 바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명절을 두 번 새는 것 같이 12월에 많이 해요. 그거는 예전에는 그냥 간혹가다 조금씩 했는데 연말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신정, 구정 다들 떠나없이 떡국을 찾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명절을 두 번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12월에도 굉장히 바빠요. 12월 중순쯤 되면은 그때부터 미리미리 하느라고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해야 할 떡을 다 못 해가지고 그 이듬해 연초까지 넘어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거든. 신정 새고 조금 이제 설이 구정이 조금 늦게 2월쯤 있다 그러면, 1월 초쯤에 조금 한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1월에 구정 설이 들어있다 그러면, 또 바로 바빠요. 그냥 계속 또 떡 하느라고. 이제 설 지나면 조금 한가해요. 2월 가면 계속 끄지그니 많이는 안 바빠도 끄지그니 바빠. 놀지를 앓아. 동네에서 고사를 지낸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에 쭉 바쁘다가 보름이 지나면 이제 딱 없어져.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전 3월쯤 되면 이제 고추장 담느라고 바빴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3월 되면 좀 한가해지는데 이제 관광, 여기저기 계 모임 단체에서 이제 3월 말쯤 4월 초쯤 되면 꽃놀이를 가느라고 또 이제 떡 하느라고. 선

거가 4월에 끼어 있으면 한가해. 못 다녀, 선거법에 걸린다고. 근데 이제 선거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막 좀 바쁠 때가 있어요. 관광 가는 떡을 마치고 이제 4월쯤, 쭉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어요. 가정집에서, 쭉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쭉떡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쭉떡을 해가지고 그때만 먹는 게 아니라 냉동으로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먹는 거예요. 쭉이 더운 열을 내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은 만병의 근원은 몸이 찬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거든. 쭉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6월 중순쯤 되면 이제 쭉이 세서 못 뜯게 되면 그때부터 한가해지는 거예요. 8월 중순까지. 6월 중순쯤부터 8월 중순까지 한두 달 정도 한가한 거예요. 지금 한가할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바쁠 때는 못 한다고 그래요. 제가.

제품에 대한 자부심

“떡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집가면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었던 게 사라지죠. 정말로 내가 팔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는 그런 분들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의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서 힘을 들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료를 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요. 큰 상회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좋은 걸 달라고. 그리고 물건을 사면서 한 번도 가격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깎아달라고 하고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대로 주고 그 해 기후 조건을 감안해서 최상품, 특품을 사 와요. 농사짓

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거래처 사람들도 들께 같은 경우 그냥 갖고 오는 대로 사서 자루에다 담아놔다가 우리가 이제 10자루 20자루 주문하면 한 번에 가져오니깐 나쁜 게 섞여 있을 때도 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 바꿔와요. 싫어하지 그 사람들도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팔 수 없으니까. 엇그저께도 한번 가서 몇 자루 바꿔 왔어. 일하다 말고 바쁜데도 갔어요. 가서 우리가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재료를 물어보면 ‘와서 보세요’하면 오셔서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고 놀라요. 손님들이. 보여주니까 믿는 거예요. 마트 상품 생각하고,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날마다 짜요. 기름 같은 경우는 한 말씩 매일 짜요. 오전에 짜면 모질라서 오후에 또 짤 때도 있고, 중국산 참기름이나 국산 들기름 같은 경우는 주로 그게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두 말씩 짜도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많이 가 봐야 이틀 가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는 오래된 거 없어요. 오래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은 안 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한테 안 줘도 어떤 사람은 못 가져가서 난리인데. 너무 바쁠 때는 못 팔 때도 많아요. 만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것을 못 해놔요. 손님들이 가져오시는 걸 해드리니까 우리 걸 못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아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도.



방앗간 여주(여자주인)의 놀이

여행이라고 하면 예전에 복지관에서 가족 단위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남편, 애들 둘 그러니까 딸 둘하고 하루 당일 코스로 안동 하회마을 갔다 온 적 있어요. 또 복지관에서 작은 애하고 저, 남편 셋이 1박 2일로 저기 어디 갔다 온 거 그게 우리 가족 여행이에요. 그리고 부녀회에서 한두 번 갔다 왔고 또 우리 신랑 청년회에서 초창기 때 한두 번 갔다 오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돈 들어갈까 봐 못 가게 하는 거야.

결혼 한 이후로는 집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동네에 뭐가 새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저녁에 일 끝나고 조금 한가할 때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나' 해요. 어른들 밥 챙겨드리고 저녁 먹고 나고 치우고 나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고. 나보다 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제가 체력이 안 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일요일도 해요. 쉬는 날은 명절 때 당일하고 다음 날. 예전에는 쉬는 날이 있었어요. 대평리 방앗간 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한 달에 세 번, 5자 들어가는 날 쉬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일이 없어졌어요. 장사하는 일 말고 다른 하는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종시 출범 이후 변화된 대평시장의 모습

세종시로 편입되고 나서 대평시장의 달라진 모습이라면 외관상은 언제 몇 년도에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눈비 안 맞게 지붕을 다 해 주신 거 지금처럼. 손님들이 눈이 안 맞으니까 더 사러 오실 수도 있고 노점상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노점상들이 저 바깥에서 했었어요. 주차장 거기서 하다가 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경성 칼국수, 김치찌개집 또 농협 본점 뒤로 가면 충남 순댓집이 맛집으로 소문 나서 줄 서는 집이 있다는 거.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이제 줄 서 있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종시의 진짜 유명 대박 맛집은 용포떡방앗간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웃음) 어쨌든 유명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줄을 서면 사람들이 그만큼 찾아오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쪽 한 바퀴 돌아보다가 내가 필요한 걸 사가지고 가실 수도 있거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기다리다가 와서 기름도 사 가시고 뭐 본인이 필요한 걸 사 가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 근데 이제 저희 집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이렇게 둘러보고 필요한 걸 사 가실 거란 말이에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부단히 노력은 해요. 근데 우리



시장은 항상 제자리걸음이에요. 제 생각에 딱히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 코스가 없잖아.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걸음인거 같아요. 명절 때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주거나 하면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명절 때만큼은 활성화가 되겠지. 지역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근데 그 근처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 할 수는 있는데 내 개인 이익만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앗간의 미래, 나의 미래

가끔 제가 안쓰러워요. 결혼 이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서 고치고 다시 사

고 하는데……(한숨). 몸이 언제까지 따라줄지 그게 지금 의문이기는 한 데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지금 몸이 아프고 안 따라줘서 앞으로 5년만 버텨줘도 감사할 정도예요. 진짜로 우리 신랑도 많이 지금 아파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5년만 버텨줘도……. 만일 5년을 버텼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만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손님들이 그러세요. 자식한테 물려주래요. 딸이 한다고 하면야 뭐 어떻게든 해주겠지만 일단 저는 말릴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만약에 그래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다 바꿔야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현대화로 전부 다 바뀌서 새로 차려줘야죠. 제 생각이예요. 5년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텨줄지 어쩔지…….

〈채록자 후기〉

방앗간의 고된 노동 속에서 이 구슬이 삶의 위안이 되길



1946년 대홍수 이후 옮겨진 장터, 용포리의 대평시장. 그곳의 변천사와 함께 그곳을 삶터로 삼아온 여성 상인의 삶을 기록해보자는 기획으로 찾아가곤 용포떡방앗간. 80대 시어머니의 건강상 어려움으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며느리에게 구술 의뢰를 했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 의도와 상관없이 대평시장은 작아지고 구술자의 삶이 크게 다가왔다.

말 없는 소녀가 있다. 산골에서 넷째 딸로 태어나 3살에 엄마를 잃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생활한다. 다리를 조금 절던 병약한 소녀는 부모님 등에 업혀 병원에 다니던 기억만 조금 있을 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다. 집안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접은 소녀. 아버지의 죽음에 자책감을 느끼던 소녀는 희망보다는 주변 상황에 몸을 맡겨 방앗간 집 셋째 아들과 결혼한다. 외출하는 것, 외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시집 분위기에 눌러 친정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장 주변에 무엇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방앗간에서만 살았다. 또한 시댁의 경제적 내핍생활로 먹는 것까지 아끼며 살아야 했다. 방앗간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일하는 기계가 되었다. 지속적이고 강한 노동으로 허리 통증이 왔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고관절 괴사라는 진단과 함께 그녀가 다리를 절던 이유가 드러났다. 어린시절 고관절 괴사로 물렁뼈가 소실되어 다리를 절었던 것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여전히 그녀에게 1년 중 10개월, 하루 24시간이 노동의 시간이다. 기계같은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육십 가까이 지나온 여성이라면 개개인 누구나 책 열 권 정도의 사연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각각의 책 내용이 다름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분노를 느낀다. 단 몇 시간의 구술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술자에게 기록자로서 받은 생각은,

‘주변의 무관심과 외로움이 어린 시절 기억을 삼켜버린 것은 아닐까?’

‘구술자의 삶터는 대평시장이 아니라 대평시장 내 ‘방앗간’이었다.’

‘40여 년 지나서 인공관절 수술받은 사실에 대하여 지난 시간의 억울함보다 감사를 말하는 구술자의 태도, 짜~잉! 감동이다.’

구술 의뢰를 흔쾌하게 승낙한 이유가 ‘1년 중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기’ 때문이라는 간결한 답. 그러나 그녀의 삶을 듣고 난 지금 그 간결한 대답이 가슴에 서늘하게 다가온다.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인터뷰에 할애해 준 구술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렇게 삶의 여정을 풀어낸 것이 구술자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이순희 생애구술사

이름 날리는 일, 그런 건 없지만
반듯하게 살아왔다

세종시 부강시장 '부강양복점'



이순희 말하고, 조미희 쓰다

인터뷰 영상 보기



연보

1933년	1세	일본 오사카, 9남매 중 셋째로 출생
1940년	7세	일본 오사카 유치원 졸업(1회 졸업생)
1944년	11세	한국으로 귀국
1945년	12세	한국 광복, 전의초등학교 입학
1950년	17세	6.25전쟁 발발
1956년	23세	남편과 결혼, 부강양복점 개점
1957년	24세	첫째 아들 출생
1959년	26세	둘째 아들 출생
1963년	30세	플라스틱 공장 건설 당시 일본어 통역 (정부 추진 근대화사업 목적 일본제휴 기술 관련 통역)
1967년	34세	셋째 아들 출생
1998년	65세	남편 사망
2006년	73세	노인대학 입학
2021년	88세	3대가 함께 일본 오사카 여행
2024년	91세	현재도 노인대학에서 꾸준히 배우며 부강양복점 운영 중

풍족했던 일본에서의 생활

일본 오사카 히가시요도가와구(東淀川区)에서 태어났어요. 1933년생입니다. 이름은 이순희라고 해요. 다섯 살 때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유치원에 잘 안 보내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잘 다녔죠. 내가 유치원 1회 졸업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서 노래하고 무용을 잘했대요. 그래서 시합에도 나가고 그랬죠. 일본 나이로 7살, 일본 국민 학교에 들어갔어요. 쇼가쿠(소학교)라고 했죠. 일본은 운동기구가 좋아요. 3학년 때 대나무를 고정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 대나무를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대나무)를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도 하고. 4학년 때는 서예를 배웠어요. 5월이면 교실 통로에다가 쓴 걸 다 붙여놔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보게 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또 5학년이면 나기나타*라고 나무칼을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배우고 5학년 때 검도랑 수영도 배우고 그랬죠. 일본은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새로 지은 학교인데 수영장 만드는 거 보고 조선을 나왔어요. 일본에는 절에 가면 양쪽에 길이 길게 있는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지라 고기도 사 먹고, 조선말로는 ‘고래고기’를 구지라라고 해요. 구지라 고기를 간도다키(꼬치)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사 먹고.

또 일본서는요. 기지(천)를 오려서 그 안에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팔, 다리를 만들고 그런 인형 많이 만들었어. 인형 얼굴 부분에는 이제 눈썹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우리는 하여간 어려서부터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났나 모르겠어. 안 일어났으면 참 살기가 참 좋았는데…….(잠시 침묵) 또 우리 엄마가 안목이

* 목재로 만들어진 검. 일본 전통 무기술.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목이 보통 높은 게 아니야. 일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입히고 먹이고 그랬죠.

또 일본에서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어요. 내가 이거 왜 (목 부분에 있는 흉터자국을 보여주며) 숭(흉터)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너 무 멋을 차리다가 그랬죠. 일본 집은 다 다다미 집인데, 우리 집은 진짜 부잣집이었어. 현관 지나면 게다바코(신발장, げたばこ) 위에 큰 화리*가 있어. 화리에 연탄을 뒀는데, 한국에서는 연탄을 방에서 못 피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연탄을 피워도 가스가 안 나요. 방에서 피우고 해도 괜찮았어.** 옛날엔 렌땅(연탄)에다가 오차*** 끓이는 게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가 봐.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또 저녁 때 세수하지.

세수를 몇 번 하는지. 조그만 게 그래 가지고서는. 신발도 이거 신었다가 저거 신었다 다 바꿔 신고 그랬죠. 그 날은 목욕하고서는 다다미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마루가 있었어. 발 하나를 마루에 대고 신발장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문을 열었어. 그때 연탄이 훌쩍 넘어가서 여기 (흉터가 난 곳을 가리킨다) 딱 닿아서 팍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가 딱 죽는 소리 하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 내가 보니까 불덩이더라. (목쪽 흉터를 보이며) 여기에 연탄이 딱 닿아서. 이게 그때 덴 숭이야. 그래서 너 무 멋을 차려서 그랬었지. 어려서부터 내가 굉장히 멋을 차렸대.

또 여름에는 유카타****라고 있어. 기모노 얇은 거. 그거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끈을 찜매는 거야. 끈을 찜매고(흩어지지 않게 한데 매다) 부채

* '화로' 충청, 경상, 제주에서 사용되는 방언

** 이모리(いもり), 마루 한가운데를 사각형으로 잘라내 흙바닥을 드러내거나 한 단 낮은 공간을 만들고 재를 채워 불을 피울 수 있게 만든 일본 전통 구조물

*** 차, 녹차 같은 차.

**** 기모노의 한 종류로 주로 평상복으로 사용하는 간편한 옷. 목욕 후나 여름에 입는다.



일본에서 찍은 어린시절 사진

하나 들고서는 길거리에 나가면 그게 또 유행이야. 그때는 그렇게 해야 또 거기서는 (엄지를 들며) 또 이거거든. 또 시모노세키에서 큐슈 까지 땅속에 파서 기차가 다니게 만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시모노세키에서 혼슈가 가는 거리가 짧아 지나 봐. 한국에 와서 들으니까 당시에 조선 사람이 많이 가서 거기서 광산 작업하

느라고 많이 죽었대. 그 생각하니까 정말로 부아가 나서 그냥 죽을 뻔했어. 그전에는 그걸 몰랐지. 어렸을 때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지. 그래서 그걸 타고 시고쿠에 가서는 곤피라상**까지 갔다 왔어. 곤피라상은 계단이 천개도 넘어요. 일본 사람들은 곤피라상 당시 여간해서 못 가봤죠. 나는 친척들 집에서 같이 언니하고 나하고 곤피라상까지 갔다 오고, 하여간 잘도 다녔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처음으로 마주한 궁핍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왔어요. 이제 한국에 오는데 부산 와서 딱 내려오니깐 집이 이상해. 일본말로 부타고야(돼지우리, 豚小屋)라고 해. 부타고야는 돼지 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는 사람이 사는 집이래요 그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사

* 칸몬 터널. 세계 최초 철도 해저터널. 1942년 11월 15일에 개통. 규슈와 혼슈(기타큐슈에서 시모노세키)는 바닷속 해저 터널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음.

** 고토히라궁. 가가와현 고토히라초의 조조산에 위치.

는데 사람 사는 게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상상도 못해. 사는 게 너무 천지차이가 되어서.

옷도 그렇고, 뭐 학교 가니까 농사만 짓게 하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거 그런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조금 곤란했지. 조선으로 오니까 공부하는 것이 일본이랑 많이 다르더라고. 여기는 일만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없으니까. 다들 불쌍하게 살더라 이거지. 그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오니까 다들 옷도 다 훌렁 벗고 있고. 참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로 쇼지키(정직 しょうじき)야.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수단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못 살아. 일본 같은 데 가서는 쇼지키를 알아줘요. 아버지는 대우받고 뭐든지 잘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웃기도 잘 하고 골고루 잘 하고 해야지. 인기가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얄전하게만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이 진사* 손자래. 옛날에 진사로 지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잘 지내야지. 우리 아버지는 수단도 없고 그냥 끝이끝대로 만약 콩 낳은데 콩 나고 팔 낳은데 팔 나고 성질이 그런 사람은 한국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일본서는 알아줬지. 정직하고 얄전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안 돼. 얼렁뚱땅도 하고, 자꾸 수완도 좋고 해야지. 먹고 사는 건데, 아버지는 끝이 곧 대로인 성격이라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조선에 와서 불쌍하게 살았어.

그전에 일본 살적엔 남한테 지지 않게 뭐든지 옷도 잘 입고 잘 지냈지만, 조선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 그래서 여기 와서

*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학식과 재산이 있는 지역 유지 인사들을 가리키는 호칭

국민학교 때 미술시간에 사람을 그리라고 했는데 애들이 죄다 나만 그렸어. 나는 이제 빨간 티에다가 파란 바지를 입었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죄다 옷이 새카만 거야. 나만 색깔 옷을 입었지.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사람을 그리라고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나만 그렸더라니까. 야중에(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색깔 있는 옷을 입어서 칠하기가 이쁘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빨간 티에다 여기다 가 이제 파란 바지 입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새카만 우아기(겉옷), 새카만 몸빠만 입고 있었지. 그때만 해도 학교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조선에 와서 학교를 갔는데 죄다 선생님이예요. 일본에서는 죄다 단발머리에 다 찢까맣거든. 여기는 근데 17살, 18살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야중에 보니까 개들이 학생이예요. 키도 크고 아가씨들이야. 나는 12살 때 조선학교에 들어왔는데,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니까 애들이 막 졸졸졸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나는 평소처럼 보통으로 입었는데 애들이 옷에 스텡단추(스테인레스단추)가 달렸는데 ‘거울 달고 다니는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 놀리니까 내가 또 울었지.

우리 집 찾아오는 동기간들은 우리 집 빨래 보고 찾아온대. 다른 사람은 하얗고 새카만 거 무명(무채색) 옷이잖아. 우리는 옷이 다 얼룩덜룩하고 좋잖아. 저 집만 가면 기다고(맞다고) 항상 찾아왔단니까. 그전에 그 정도였어. 옛날에 한국이 일정 때 그렇게 못 살았어. 진짜 지금은 참 잘 사는 거야. 옛날 사람들 참 불쌍하게 살았었어. 일본에서 조선으로 나와서 한 몇 달 됐는데, 그때 작은어머니하고 한 집에 살았거든. 작은 어머

니가 나보고 군불*을 태우래. 군불이라는 게 있어. 불 때면 방 뜨뜻하게 하는 거. 옛날에 불 때는 구경을 했나 내가 뭘 했나. 그런데 이제 지푸레기(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서 다 태우래.

장작이 타는 대로 이걸 하나씩 집어넣으라고 해야지. 불 때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걸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태우다가 집까지 태웠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고쿠락(아궁이)이 제일 무서웠어. 부엌에 물 먹으러 못 들어가. 머리가 새카만 게 3개씩 있어. 어느 집이든지 새카만 게 고쿠락(아궁이)이야. 불 때고 그랬는데 내가 불을 때지 않아봤으니까는 다 태우지. 일본은 방에다 불 안 지펴요. 이불 피고, 고타쓰**라고 있어. 고타쓰도 서랍이 있거든. 거기다 불을 해서는 그냥 덮고 자는 거지. 겨울에 한국은 고쿠락(아궁이)에다가 불을 때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 뭐든 이해해야 돼. 고생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호강스럽게만 큰 사람은 몰라요.

전쟁,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다

그러다가 한 5년 있으니까 6.25 사변(전쟁)이 났어. 6.25 사변이 나서 한국 사람들이 다 곤란을 받았잖아. 전쟁이 나서 우리 외삼촌이 경비대로 나갔었는데, 온양에서 있다가 5월 달에 오셨어. 삼팔선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삼팔선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으로 외삼촌을 보고 (머리위에 보따리를 지는 모습을 하며 팔을 올린다) 보따리를 쥐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잠시 침묵을 한 뒤) 그때 참…… 한국 사람 불쌍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이라는 거는

* 방을 덥게 하려고 때는 불

** 일본 전통 난방기구(こたつ), 나무로 만든 탁자에 이불이나 담요 등을 덮은 것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얼마나 불쌍하다고.

난리 나면 안 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뢰가 팡팡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 거라니까. 인민군들 맞아서 죽은 거. 미군들 죽은 거. 아이고…… 매운 냄새. 썩는 내. 아주 끔찍했어. 하여간 난리는 나면 안 돼. 난리 나서는 안 돼. 말하자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여름 에도 수도가 다 막히지. 그러면 어디서 물이 나와. 또랑물이라도 먹어야 돼. 그 때는. 하여간 난리는 나면 절대 안 돼. 제일 좋았던 거는 인천 상륙작전 때, 그거보다 더 반가웠던 게 없어. 인천 상륙했을 때 진짜 춤출 줄 몰라도 춤이라도 춰야 돼. 그때도 막 손뼉 치고 그랬지. 사람들이 트럭에 가득 타있고, 경찰들도 올라오는 거야. 인천 상륙 했을 때. 그 소식보다 기쁜 게 어디있어. 돈 억만금을 주는 거보다 그게 더 반가웠어요.

타고난 목소리, 가수 제안을 받다

우리 첫째언니가 일본에서 결혼을 했었어. 해방 후에 한국에 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 당시 언니가 대구에 살았는데, 전쟁통에 언니가 살아있는 지 궁금해서 언니가 있는 곳에 갔어요. 당시 우리 형부가 미8군단에서 운전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언니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사부인한테 물어보니까 밑에 집에 가서 파티를 한 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렀더라고 우리 언니를. 언니가 지금 파티하는데 너도 가자 해서는 갔더니 이제 교장 선생, 통장, 또 8군단 바로 뒤라, 8군단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구석에서 가만히 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 순서가 됐대. 뭐라도 해야 된대. 노래를 부르라는거야. 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서 내가 어떻게 해. 안 한다고 하니깐 언니가 여기는 해야 된다. 순서가 되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언니는 내가 노래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했던거야. 그래서 노래를 했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 거기 앉전하게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별 쇼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엄지를 들며) 미 8군단에서 유성기*판 박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도 일본서 왔대.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일본에서 왔으니까 서로 친하지. 그 사람이 사람 목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팔면 10판이라도 자기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나오래.

당시에 나는 잘하니까 뭐 어디 가도 잘하니까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스무 번도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더 불렀어. 그냥 8군단에 들어오라고. 자기 이름만 내면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래. 당시 우리 형부는 미군 부대에서 운전을 했고,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그분이 자기 이름 대고 오면 형부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회를 놓친 게 분해 죽겠단니까. 일본에서도 그 전에 노래시키면 어른들이 잘한다고 1전을 줘. 받아도 집에서 소리 못 해. 아버지가 엄격했어. 그래서 집에 오면 혼나니까. 받은 걸로 눈갈사탕 같은 거 사 먹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랬는데 왜 뻘어…… 아이고.

또 관광 가면은 우리 계원들이 그렇게 “이번에 부강 가수가 나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주고 그랬었어. 그전에도 다들 알아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뻘 필요가 없었어. 나이 먹고 그걸 후회해. 그전에 좀 할 걸 많이. 그 관광버스가 여기는 노인정에서 4대가 갔나? 그때 갔는데 내가 한 차에 탔었거든. 한 양반이 내가 탔다고 좋

* 원통형 레코드 또는 원판형 레코드에 녹음한 음을 재생하는 장치



2021년 오사가 여행, 큰아들 부부와 함께

아했어.

아유, 근데 내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울었다니까.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가 내 노래를 좋아했는데 내 친구들이 탄 차로 가니까 나도 가는데 ‘애기 엄마 내려서 큰 일 났네’ 막 이렇게 했어. 야중에 그 아주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후회를 했어. 그 아주머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좋아했는데 그때 차에서 왜 내렸을까……

그 차를 그냥 타고 올 걸. 그렇게 아쉬워했었어요. 자랄 때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빼는 게 있었잖아. 그 전에는 되게 뻘었어. 비우(비위)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 하지. 그게 어디든지 관광차 다가가면 어서든지 배안이고 어디서든지 하잖아. 우리 계원들은 내가 나가야 된다고. 부강서는 내가 나가야 된다. 나가서 노래하면 아주 그냥 배 안에서도 그렇게 좋아했고. 막 이랬는데, 그 목소리가 세상에 지금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 ‘아이고, 녹음을 시켜놓을 걸……. 항상 엄마가 좋은 거 항상 그대로 일 줄 알았더니 목소리 좀 녹음을 시켜놓을걸.’ 하고 그랬어. 이제는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자주 불렀던 노래는 ‘삼다도 소식’* 그 노래는 하면 누구 앞에서 하나 괜찮아서 그걸 내가 좋아했지. 내가 어디 가면은 누가 삼다도 소식을 부르라고 하기도 했었어. 노래 교실에서 나를 찍어서 그 녹음을 해놓은 적

* 삼다도 소식, 1941년생 가수 ‘최숙자’가 부름

이 있대. 이 나이 잡수셔도 이렇게 부강양복점 아주머니는 이 노래 교실
에서 노래한다는 거 틀어준다고 하고. (웃음)

내가 삼다도 소식을 참 좋아했어. 어디 가면 그 노래를 했고, 나이 많
은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가 젊은 사람이고 있어도 그 노래가 부르기 좋
아. 6.25 사변 직후에는 노래가 많이 나왔었어.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
왔었지. 근데 바쁘게 사느라고, 그때는 노래교실을 못 댕겼어. 이제 나이
먹고 죽을 때 다 되니까 댕긴 거지. 내가 말하자면 그전에 한 20년 노인
대학교를 다녔으니깐, 다니면서 노래교실을 한 10년 댕겼나. 그것도 집
에서 재난이 있으면 또 못 댕기고 아프면 또 못 댕기고 그랬었지. 그래도
합창 나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합창했었어. 그랬는
데 내가 한 2년 전만 해도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서 노래 한 소절 하라고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는 거야. 내 성질이 그래. 그게 지금 그렇게 후회돼. 남이 들
어보고 좋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빼고 안 했나. 지금은 하고 싶
어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빼지
말고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래.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 나이 먹으니까요.

새로운 재능을 찾다.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재단사

결혼해서 부강에 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옷 가게만 했었어요.

옷만 팔면서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조금 재주가 있었나 봐. 우리 진*
이 원단을 사주면서 옷을 만들래. 그래서 처음엔 옷만 팔다가, 직접 만들

* 남편(主人, しゅじん), 일본에서는 남편을 부르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 '슈진'을 '진'으로 줄여 구술
자는 사용하고 있었다.

어렸어. 그때 우왓바리(うわっぱり)* 같은 거 다 만들어서 팔고 했거든. 팔다 보니까 또 나이롱 원단을 끊어 가져와서 만들고, 내가 만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남았나 봐.

우리 진은 선생님 하면 제일 잘 맞대. 사람들말이. 자상하고, 철저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나서 설명하는 성격이고. 조금 얼렁뚱땅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 고지식했어. 무슨 일을 하면 두 번 일하는 거 싫어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보통 집에서도 쓰봉을 이렇게 딱 세우고 서 입지. 조금도 주글거리기는 건 절대 안 입었어. 그런 진이 우리가 양복점을 해야한다고 그랬지. 처음에는 기술자를 두고 했었어. 그러다가 우리 진이 보니까 내가 재주가 있었나 봐.

양복점이 잘 됐어요. 또 그 당시에는 신사복 책이 한국 책은 없었어. 책이 죄다 일본에서 나오더라고. 대전 학원 원장님이 우리 집으로 책을 팔러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샀죠. 그걸 사가지고서 책 보면서 배웠죠. 그러서는 그 책을 보고서 혼자 배우기 시작했지. 그렇게 계속했는데 내가 기술자가 된거지. 양복점하면서 참 잘 됐어요. 1년에 12달. 놀 새가 없어. 그땐 죄다 사람들이 옷을 맞추기 때문에. 밤 새워가며 해야지.

그러다가 한 54년도쯤 됐나? 나이롱 다우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나이롱이 뭔지도 몰랐지. 우리나라가 나이롱 다우다가 나오고 또 50년대 중 후반에 그때쯤 고무땡***이 나오더라고요. 고무땡이라는 원단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론 골땡이라고 하지. 그랬어. 그때는 그런 원단들이 나와서 이제 유아복이니 뭐니 다 만들어서 입고들 그렇게 했죠.

* 덧옷, 겹옷. 당시 학생 교복처럼 생긴 옷

** 나일론 테피더. 실크보다는 관리하기 편한 합성섬유. 의류 안감용으로 주로 사용

*** 코듀로이. 부드러운 질감과 강한 내구성 및 보온성을 갖춰 가을, 겨울 옷에 주로 사용함. 중년 윗세대는 주로 고리땡 고무땡이라고 부름.



6.25 사변 이후에는 다들 옷도 멋쟁이가 되고, 사람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6.25 사변 이후로 나라가 조금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6.25 사변 지나면서부터 학교가 개교하고 바지를 이제 맘보바지, 7인치 맘보를 많이 입었어. 63년땀가? 그때는 딱 붙는 거 7인치 맘보바지로. 그때 내가 양복

점 할 땐데 7인치 바지가 유행했었어. 그러다 64년 되니까 또 나팔바지가 유행인데, 나팔바지를 11인치, 13인치까지 입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처음이라 왜 이렇게 넓게 맞춰 입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래.

그래서 14인치로 맞춰 입히고, 66년도쯤 되니까 예비군 훈련이 시작 돼서 그때 월남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전부터 신사복도 많이 맞춰 입었는데, 월남 갔다오고 돈 번 사람들이 생기니까 신사복도 더 많이 맞추더라고. 70년대 되면서 이제 고속도로도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세련되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바쁘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뒀어. 그때 나는 재단을 했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들이 밤 새워가며 꼬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참 잘 됐었죠. 몇 십 년 양복점 했는데 진짜 참 잘 됐었어요.

그런데 메이커 나오는 바람에 양복점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기성복도 옛날보다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기성복이 좀 잘 타개졌어. 옷이 꼬맨데가(꺾맨데가) 타개지고 하니까. 그 전에는 도매상 하는 사람

도 돈을 벌고, 양복점도 돈 벌고, 그랬었어요. 기성복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양복점이 잘 됐어요. 그러다 또 교련복이 나오기 시작해. 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체육복부터 다 재단해서 내가 다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당시에 괜찮았죠. 또 그전에는 유아복도 많이 팔았어. 애들 옷도 많이 팔고 애들 양말도 많이 팔고 했는데 지금은 애들도 없고, 애들 옷은 아예 안 팔려요.

신사복도 만들면 몇 백 벌을 내가 재단을 했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참 욕봤다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혼자 해 보니깐.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바쁘니까 재단만 해서 그냥 주기만 했지. 일하는 애들이 참……. 그거 돈 몇 푼씩 받고 꼬매느라고 욕봤다 생각이 들어. 내가 그이들이 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은 이제 나이 먹어야 알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깐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고 욕봤구나. 내가 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재단사, 일본어 통역사가 되다

옛날에 양복점 바로 옆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사진관에 일본사람이 와서 사진 가지러 왔다고 그러면 사진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 좀 다 통역 해 달래. 예전에 플라스틱 공장*에 기계 놓으러 온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 일본 사람 통역은 내가 다 해줬어. 그때만 해도 내가 일본말을 조금 잘했었어. 그럼 가서 통역 해 주면 사람들이 갈 때, 우리 집에서 신사복도 맞춰 입고 그렇게 했지. 또 그 사람들이 일본 들어가기

* 1965년 8월 설립, 대한 플라스틱 공장(現 현대L&C)

전에 신사복을 나한테 맞춰 입은 적이 있는데, 내가 가게서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은 나갈 때는 또 사람이 화장 하고 머리로 빗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잖아.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다레데스까?(누구 십니까?, だれですか)” 라며, 나더러 누구냐고 하더라고. 그러다 양복점 아주머니 아니냐고 그래.

나를 보고 부잣집 오조상인 줄 알았대. 그때는 내가 서른 몇 살이라 아기를 낳았어도 남이 보면 아가씨 같았어. 사람들이 정말 오조상(아가씨, お嬢さん) 같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 부강양복점 아주머니예요” 라고 이제 일본말로 내가 그렇게 해주면 “소우데스까?(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라고 했어. 또 내가 일본 사람들 가봉*하는 작업도 했어. 그 회사가 그때만 해도 단체복이 없었지. 또 다른 레미콘 회사도 있었는데, 다 우리집에 와서 옷 맞추고 그랬지. 또 옷을 쥔 때 공장이 하도 넓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켜 적도 있었어. 청주에도 양복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 부강까지 와서 부강양복점에서 재느냐고 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 찾아왔나봐. 잘해서라기보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알아준 거지. 또 그 전에 럭키 회사**라고 한 데도 있었어. 거긴 과가 많더라고. 장판 만드는 데도 있고 화장품 만들어놓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나를 태워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재야 했었어. 여기서 줄자로 재고 저기서도 재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부강시장, 그리운 옛 시절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세종시 되면서부터 여기는 다 절단난 거야. 차

* 양복 등의 옷을 완성하기 전에 몸에 잘 맞는가를 보기 위하여 임시로 등성등성하게 대강하는 바느질

** 現 LG



라리 여기가 청원군에 있었으면 더 좋았지. 여기 사람들 다 그래. 지금 부강으로 오는 길이 다 막혔잖아. 여기로는 (청원군) 버스가 안 내려와. 청주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부강에 와야 장사가 되는 건데, 버스가 딴 데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온대. 다들. 그래서 장사 끈들 다들 이사 가고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우리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 할 때가 됐으니까 괜찮지만, 오늘 가게들도 다 문 닫고 다 안 하잖아요. 그전에는 세종시 안됐을 때, 청원군 때는 여기가 굉장히 잘 됐었지. 지금은 청주 버스가 부강으로 안 나오거든. 하루, 두 번밖에 안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부강 오려면 시골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두 번씩 갈아타야 부강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느냐고 안 나오지. (창 밖을 가리키며)여기 이 골목이 부강 명동 거리라고 했어. 부강 명동. 이 거리 자손들은 다 죽었어. 나 하나 살은 거야.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자손들은 다 나가 살고 그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보다도 열한 살 밑에인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니까. 이제 그 재미로 그냥 양복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세월이 다시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평생 나의 일터이자 삶이었던 ‘부강양복점’

여쭙(이쪽)이 성당에 열심히 땀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이가 꼽새* 인데 그 아버지가 성당에 다니고, 사람이 참 똑똑해. 앞도 나오고 뒤도 나와서 키가 조그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머느리를 얻는다고 신사복을 맞추러 왔는데 아이고 잘못될까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바빠서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진(남편)이 눈치도 안보고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은 재단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재단을 해서 보니까 이걸 걸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내 걱정돼서 그게 우리 진이 버려도 해주라는 게 버려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재단을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걸 걸지 못하겠어. 앞뒤가 나와서 키가 작아서 만들어보니까 품이 너무 크더라고. 여느 사람과 다르게 속 나왔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이 몸집 품이 커. 그러니까 옷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놓으니까 그냥 기가 막혀요.

옷도 이상하고. 아이고, 돈만 내 버렸다. 내가 속으로 그랬네. 그랬는데 그이가 왔어. 왔는데 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입히고 보니까 세상에, 딱 맞는 거야. 기가 막혀 앞에서 나왔지. 허리가 이렇게 나왔어. 그 앞도 나오고 앞뒤가 부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옷인데 입혀놓고 보니까 잘 맞아. 세상에 어쩔 그렇게 잘 맞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막 이랬다니까. 그게 참 보람 있었어요. 그때 일하는 애들이 욱 봤지. 뭐, 나야 뭐 재단하느라고 저기 했지만 일하는 애들이 만드느라 고생했지.

또 1960년도 쯤인가? 미국에서 신부님이 부강성당으로 오셨는데 그때 내가 신부님 옷을 맞춰 드렸어. 신부님이 키가 하도 크니까 내가 의자

* 꼽추, 척추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차별적 표현이지만 구술자의 시대상 언어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에 올라가서 켜지. 신부님 옷은 앞에 하얀색 에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냐. 또 용암에서 온 스님 옷도 만들고, 그건 두루마기 옷이었는데 일반사람들 옷하고 만드는 게 완전히 틀리죠. 3,4년 전 쯤엔가 꽃동네에서 수녀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직접 원단을 가져오셨는데, 만들어드렸죠.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 옷이랑 바느질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만드는데 어려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옷 같은 거 다 몇백 벌 했지. 신사복은 내가 한 거는 재단은 다 해주니까. 오바니 코트니 뭐 신사복이니 마이**니 뭐 그거 다 재단해서 내가 일하는 애들 다 밀어주니까 애들이 열심히 했죠. 여자들은 이제 블라우스 바지 치마를 했지. 남자랑 여자랑 옷 만드는 게 달라. 여자들은 허리가 쪽쪽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나는 체격이 작아서 모자 같은 것도 다 내가 만들어서 켜지. 나는 여자 바지를 못 입어봤어. 왜냐하면 남자 양복점을 했으니까. 원단 있는 거로 그냥 만들어서 입고, 내 바지는 죄다 신사복이에요. 나는 오래 보면, 내 마음 안다 싶어서 남의 일은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내가 그렇게 일하는 애들한테 ‘애 시골에서 이거 맞추려면 얼마나 큰 돈으로 맞추는지 아냐 너희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했지. 사람은 대충 일하면 안 돼. 꼼꼼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맞춰간 옷은 다 떨어져도 타개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 옷 만들 때 튼튼하게 하려고 해.

예전에 교복 맞춰입을 때, 우리는 마이에 단열재를 넣고 심을 넣었어. 심 박을 때 앞판을 우리는 담요를 사다가 했어. 근데 다른 집은 그 속에다가 푸대를 넣었어. 푸대는 아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속에 들어가는

* 옷깃, 저고리나 옷 따위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

** 테일러드 재킷. 정장 전문 재단사가 만드는 재킷이기도 하면서 당시 교복의 옷으로 많이 쓰였다.

거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맞추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집이 푸대 놓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집이 푸대 놓는 거 알아도 일절 얘기 안 해. 왜냐면 그이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망하게 하면 되겠어. 푸대는 10원이면, 담요는 100원이야. 미제 담요가 그때는 많이 나왔어. 미제 담요로 앞판에 심을 박았어. 그러니까 다른 집 옷은 몇 년 못 입어. 사람들이 옷이 떨어지고 하니까 야중에는 우리 집으로 맞추러 오는 거야. 옷을 만들 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다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만들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았지. 바느질 하는 게 참 보람이 있어요.

가족들과 다시 찾아간 고향

내가 3년 전(2021년)엔가, 이제 우리 막내도 환갑이 다 되어가. 중앙대학교 졸업했어. 하루는 우리 막내가 그러는데 “엄마, 일본을 엄마 살아서 한 번 가시자”는 거야. 내가 “아이고 지금 거기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뭐 하러 가야하냐” 하니 아들이 그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관광 가서 내가 나온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도 갔죠.

교장 선생님이 내가 가니까 선생님들하고 다 쫓아 나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왔지. 내가 그 전에 여기 학교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살던 집터를 갔어. 지금은 집이 다 뜯겼더라고. 거기다 뭘 새로 지었더라고. 거기 가서도 사진 찍고 했지. 많은 게 변했는데 일본도 옛날만큼 사람이 없더라고. 그전에 우리 사는 데가 가게도 있고 죄다 장사꾼이었는데 우리 집만 장사 안 했지. 우리 아버지는 납품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납품을 해서 장사를 안 했는데 다른 사

람은 다 여기 저기 가게가 있었었어. 그런데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50m만 가면은 지서*가 있었어요. 그 지서에서 순경이 예전에 나한테 숙제도 하라고 해서 가면 거기



남편, 아들과 함께 가족사진

서 숙제도 하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일본서는 잘 지내고 그랬는데, 배우는 것도 많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이랑 가서 사진도 찍고 좋았어. 거기서 학교 다니던 때도 생각나서 최고로 좋았었죠.

이름 날리는 일은 없었어도 반듯하게 살아 온 내 인생

8군단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거(판) 박았으면 유성기 그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 열장이라도 해줄 테니까 다 부르라고 막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어수룩해서 못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후회가 돼. 그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후회가 되고. 옛날에는 어른이 되고나면, 이렇게 눈이 안보이고 죽는 걸 몰랐다고. 옛날에 알았다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잘 지냈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고생한 거지. 그래도 어려서는 호강스럽게 컸지. 그 후로도 내가 잘 지내고 했으니까. 나는 별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니까 좋은데, 지금 이북에서 풍선 내린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안 좋아. 그냥 같이 싸움 안 하고 그래도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 후손을 생각

* 본사에서 갈려 나가 관할 아래 서 지역의 일을 맡아 하는 관서. 주로 경찰 지서를 이른다.



해서. 전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부강 장사꾼들이 다 잘 돼야지 생각해. 나만 부자가 되는게 아니라 이웃사촌도 다같이 부자가 돼야 좋은 거야. 사람은 다 서로서로 좋게 지내는 게 최고인 거야. 우리 아들들이 효자 노릇해주고, 우리 며느리도 말수가 적지만 늘 잘 챙겨줘. 그게 참 고맙지.

내가 이름 날리는 일,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반듯하게는 살았다 생각해. 이제는 건강이나 지켰으면 하지. 몸이나 안 아프고,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돼서 자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다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참고 문헌

-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박탄호(2023), 『아는데 모르는 나라 일본』, 따비
- 신종대(2022), 『일본문화 이야기』, 글로벌콘텐츠
- 존 리치(2020), 『1950 한국전쟁 70주년 사진집』, 서울셀렉션
- 서울 생활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sulm/index.do>)
- Travel Japan, 일본여행공식가이드 (<https://www.japan.travel/ko/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채록자 후기〉

나에게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준 시간



봄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부강시장의 풍경은 왠지 모르게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곳만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존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강시장 골목, 골목을 거닐다가 우연히 ‘부강양복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에 할머니님 두 분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사장님이세요?”라고 묻자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분이 바로 구술자 이순희 님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순희 님은 말 그대로 근현 대사의 산증인이었다. 일본 오사카 히가시요도가와구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왔다.

당시 그녀가 목격한 한국은 궁핍한 상황이었다. 해방 후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그녀

는 당시 끔찍했던 전쟁을 여전히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이 가져 온 참혹한 광경과 눈앞의 죽음을 마주했던 공포는 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러한 전쟁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구술자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랐다. 전쟁이 끝난 후 남편과 함께 '부강양복점'을 열었다. 처음에는 옷만 팔았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아내의 재능을 알아 본 남편은 원단을 사 옷을 만들기를 권유했고, 그렇게 독학으로 기술을 익혀 당시에는 생소했던 '여성 재단사'가 되었다.

손님들이 옷을 받고 기뻐할 때마다 바느질을 한 보람이 있었다며 그녀는 '양복점 재단사'인 자신의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 인터뷰 당시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나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그 말이. 그 말처럼 그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부강에서 함께 일하던 이웃 상인들, 멀리서 찾아와 준 손님들, 그리고 늘 곁에 있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았고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바랐다. 늘 인터뷰를 하시면서 매번 "젊은 사람이 노력하니까. 나도 돕고 싶고, 잘하고 싶어."라는 말씀을 하셨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기록했다. 독자들에게 그녀의 진심이 닿기를 소망해본다. 끝으로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 준 이순희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글을 바친다.

최경희 생애구술사

그냥 물건만 사가면 뭐하잖아

세종시 조치원시장 '달성기물'



최경희 말하고, 김수현 쓰다

인터뷰 영상 보기



연보

1945년	1세	조치원 죽림동에서 출생
1953년	8세	조치원 대동 초등학교 입학
1958년	13세	조치원 대동 초등학교 졸업
1962년	17세	성남 공장 입사
1966년	21세	남편(황달선 님)을 만나 연애
1968년	23세	성남 공장 퇴사
1969년	24세	결혼, 조치원 시장 내 달성기물 설립
1971년	26세	첫째 아들 출생
1975년	30세	둘째 아들 출생
1986년	41세	주물공장 설립
2004년	59세	조치원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림 아케이트 설치
2006년	61세	주물공장 폐업
2011년	65세	남편 사망
2024년	79세	현재 달성기물 대표

조치원 죽림동에서 7남매 중 셋째딸로 태어나

조치원에서 태어나고 살았어. 이렇게 친척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타관이라는 건 안 났지. 타지가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원주민이니까. 죽림동,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그쪽이다 죽림동 그쪽이었었어, 옛날에는. 친정에서는 농사지었지. 그런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배우신 양반이라 많이 일을 안 했어.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 대전. 그래서 이 아들 딸들도 일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지.

농사는 옛날에는 밭에다가 지금은 막 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지금은. 우리 때만 해도 밭에다 오이 몇 개 가지 몇 개 그냥 그런 거 둥구 머니라고 그러지 둥구머린가 뭐여 그거 그런데 따서 고추 같은 거 따오고 그랬어. 7남매 중에 셋째, 오빠가 둘 그 다음에 나 밑으로 동생이 넷. 아들이 다섯 딸이 둘. 우리 살기도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웠어. 어려워가지고 사실 우리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조치원 대동 초등학교. 위로 오빠 둘은 좀 가리켰고 이제 밑으로도 가리켰고, 딸들은 중학교도 못 가리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막말로 또 중학교만 가도 또 그게 흥이었어. 왜 어른들 왜 막말하는 거 있잖아. ‘지집애들이 뭐 학교 다녀서 뭐 하느냐, 배워서 뭐 하느냐’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 나왔어.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학교 갔다오면 보리쌀 닦고 밥 해먹었어. 보리쌀 삶아서, 오빠들도 있지, 할머니 있지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상업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 이제 계산서를 써줘야 할 거 아니야 옛날에, 꼭 또 이걸 계산서를 꼬박꼬박 (나한테) 써달래.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딸이니까 기를 살려주더라고. ‘글씨 참 잘 쓴다.’
친정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라고.

“집에서 놀면 뭐하냐” 초등 졸업 후 성냥 공장 취업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조금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다 공장이—지금은 다 회사라고 그러지—조그마한 공장, 이제 우리 집하고 여기에서 명동학교 갈 만치 거기가 공장이 있었어. 저 끝에 저기 학교가 있어. 거리가 우리 집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거리가 있었는데 집에서 놀면 뭐 하느냐고 이제 공장 일을 다녔지. 성냥공장에서 성냥 만드는 거, 이제 그 공장을 다녔지.

내가 이제 공장을 다녀가지고 첫 월급이 7만 원. 그때 당시에 7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월급이었어. 그걸 받고 몇 년을 다닌 거야, 공장을.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싸서 그런 거 하는 거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공장 다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또 시집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여. 친정에서 많이 도와줄 형편도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스물 하나에 연애 시작, 강원도 군부대까지 찾아가

이제 집안 언니가 고 근처에 살때 그 언니도 거기 공장 다니고 나두 오고. 이렇게 한 집안 언니지. 이 언니가 소개를 해줘 가지고 남자를 만나게 됐지. 그래 가지고 만나서 몇 년 연애를 걸고, 남자는 군인이었어. 어 여기 군인 32사단 PX, 거기 군인이었었어.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가지고서 연애 걸고. 어딘가 모르게 남자가 끌리더라고. 사람이 또 비리비리

한 남자도 아니고 사람이 좀 박력 있고 좀 괜찮아 보이더라. 그 나이에. 그래서 이 남자를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놀러도 많이 가고, 하이힐도, 집에다는 못 놓고 신었어. 친구집에 갖다놓고 투피스 입고…… 또 훈련받을 때 이렇게 저기 뭐야, 강원도 오음리라는데, 거기는 안 잊어먹어.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면회를 오라. 그래서 아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바보가 아니었나 싶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찾아갔지 싶어. 거기를 내가 찾아갔다 온 게. 후회는 안 해. 우리네는 지금도 살어도 뭐 내가 뭘 못해보고 그런 게 없어. 막 고생하고 막 그랬다 뭐 했다…… 그런 거는 있어도, 지금도 후회하고 할 일은 없어, 지금두.

이 남자를 자꾸 만나니까 친정집에서 되게 또 반대를 하고 혼났어. 실제 그때 외박을 했으면 참 그거는 잘못된 거지. 뭣도 모르고 외박을 한 거야. 그 때는 전화도 없었어. 뽀뽀인가 뭐야, 그것도 없었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서 사실 여관방에도 갔어. 그러고서 집을 가면은 친정엄마한테 그때 되게 혼났어. 오빠들 둘 두고 저년이 바람이 나서 저렇게 다닌다고, 친정 오빠는 산에 가서 저년을 두드려 패서 저기한다고 친정 오빠한테도 구박을 받았고. 그래, 내가 또 이 남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아우,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이 남자 하고는 꼭 결혼하고 산다고, 내가 아주 맹세를 했어. 엄마한테 하도 구박을 받아서. 그래도, 이 남자가 생활력 있고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아 이런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그냥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남자 집에 조금 또 그냥 시골이래도 그냥 땅이 많더라고. 시골이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골 부자 소리 듣

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월남 갔다 와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지 뭐. 스물한 살부터 한 3년 연애했다치고 24살인가 다섯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계모임으로 여행갔을 때

결혼과 동시에 조치원 시장에서 달성기물 설립

시어른들은 들어와 살라고 안 했지, 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른들이 자기네들이 시골에서 살으니까 너무 일이 많고 쪼들리니까 싫어서 이런 도시로 내보낸다고, 인저 우리 나를 연결해서 이 가게를 하나 얻은 거지. 아 우리 친정에서 인저 돈을 거기서 가져도 오고, 어 친정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젊잖아. 옆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 아시는 분이 집안 아저씨라, 인자 집안 아저씨가 그때 중학교 선생이었었어 선생이었는데, 병원 의사들하고 조금 잘 가깝게 지내드라구.

우리는 이제 들어 앉았으니까 여기 집, 뭘 알아야지 집도 얻지. 아저씨가 의사들하고 통해서 이걸 얻게 된 거지, 가게를. 그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는 조금 연세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저 장사를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녀. 그릇 가게를 하느냐 철물점을 하느냐 그랬는데, 철물점은 막말로 남자가 때에 따라 없을 때는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할려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릇 장사를 선택하게 된 거였지.

다 배워서 한 거지. 다. 처음서부터 우리 그 나이에. 그때만 해도 시골

에서 땅을 조금 팔아왔지. 시덕에서 그때만 해도 땅이 7만 원이야. 지금 7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겠어. 그때만 해도 우리 공장 할 때만 해도 7만 원씩 해서 땅을 좀 팔아다가 이쪽에다가 논을 산 거야. 천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장을 지은 거지. 지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공장을 그렇게 오래 했지. 우리가 솔단지니 뭐니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 주물을 직접 만들어서 가게에 물건을 냈지.

공장에 남의 식구도 많이 두고 그때 당시에는 직원도 많이 있었죠. 직원들이 한 20명씩 있었어. 20명씩. 기술자들도 있고 일하는 아저씨들도 있고. 공장이 따로 저쪽에 있었어. 우리 살림이 컸었어. 고추 같은 것도 막 몇백 근씩 사서 공장에서도 먹고 막 그랬지.

55년 전 조치원 시장, 비오면 비 들이치고 눈 오면 눈보라치고

장사들도 우리 장사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규모는 지금 정도였는데, 한마디로 허술했지. 뭐 이런 아케트(지붕) 공사도 없었고 팔라술 치고 장사하고 비바람 치면 막 쓰러지고, 눈 오면 눈보라치고. 옛날에는 생선 장사들, 이런 옷 가게들도 많지가 않았었어. 이런 게 드문드문 그냥 조금 있었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이제 가게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좋아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길도 다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물건도 끝개로 끌고 왔어. 우리네 물건도 직접 대전으로 갔어서 내가 물건을 하러 갔어. 불편한 게 많았지. 대전 가서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부쳐왔지. 이제 철도 화물로 대개 그때는 철도 화물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그냥 뭐 택배가 생기고 뭐가 생기

고 이런 게 많잖아. 지금 얼마나 살기가 지금은 참 살기 좋아 우리 시대 때는 모든 게 살기가 참 어려웠어. 지금은 참 좋아졌지. 한마디로 나라에서 집은 너무 잘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커 보이고 우아하니 좋아 보이지.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오면 “어머나 여기 참 시장이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 시장도 많이 크고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

주전자, 양재기, 세수대야, 요강 ... 삶을 돌보는 그릇들

옛날에는 어쨌든 그릇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이런 식당 외식이라는 게 없었잖아. 우리 시절에는 외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웬만하면 다 외식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릇을) 좀 덜 쓰지. 그전에는 시골의 아줌마들이 하다못해 일꾼들 30명 막 몇 명씩 얻어서 일을 하려면은 그릇을 사가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가고 수저도 사가고. 정월달 되면 동네 아줌마들 옷 논다고 많이씩 사 갔지. 사다가 옷놀면서 하나씩 다 넣었다 쓰는 거야. 그릇이나 주전자, 양재기 이만한 거 다라, 이런 국그릇 같은 거같은 거 30개씩 그렇게 사다가 놓고서 옷을 노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다 노랏주면 그때 당시에는 그릇이 귀하니까 엄청 좋아했지. 그때 당시에는 그릇도 귀했어. 그릇 하나가 700원도 하고 가격도쌌지. 그때는 돈이 아니었지. 500원 그랬는데 이제 엄마들이 옷놀이 하면 물건을 와서 많이 사가.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가 배달도 해주고. 그때가 그래도 장사를 조금 많이했지.

요즘에는 옷놀이도 다 없어졌어. 이게 사람이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도 뭐라고 할까 사람도 바뀌고 이런 물건도 다 옛날보다 더 좋고 바뀌어

지고 그래. 사람이 다 옛날하고 틀려. 그런 시대랑 사람 사는 게 다. 그릇 선물도 많았어. 하다못해 결혼식 하면 답례품 수저 같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그릇 자기네 쓸 그릇 해가고. 세수대야, 요강은 꼭 사갔어. 흠셰트들을 꼭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았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 세트로 이렇게 장만하고 하는 건 없어.

있을 거는 다 있는 달성기물

아침에 9시에 열고 닫는 건 7시서부터. 7시 좀 넘으면 닫어. 7시 반. 많을 때는 많고, 손님 없는 날도 있고. 조금 한가할 때는 좀 한가하고 장사가 매일 좋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도 좀 있으면 물건 차 와. 한 4시 넘으면. 물건 오면 또 정리하고. 손님이 없으면 이거는 저기하니까 이걸 기억해놨다가 꼭 빠지면은 주문해놨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도 유두리(윙통성)가 없으면 안 되지.

거래처가 이제 몇 군데가 있지. 몇 군데 되지. 가져오는 데서 전화만 하면은 내가 여기에 뭐가 빠져서 뭐가 필요해 하면 이제 요것저것 다 주문하든 이 집에서 뭐가 오는 물건, 저 집에서 뭐가 오고 또 이 집에서는 뭐가 오고 그게 다 정해져 있어 물건이. 다 있지. 있을 거는. 여기들도 여자들이 눈이 높아서 세종시에서 오고 그래서 또 좋은 것 찾는 손님도 있고, 또 싼 거 찾는 손님도 있고. 세종시 또 손님들이 요새는 좀 뭐 이렇게 돈을 막 아끼고 막 그렇게 쓰지는 않아. 경기가 어렵네, 어찌나 하는데도 우리 장사는 별로 그런 걸 모르겠더라구. 어 우리 장사는 아무래도 “아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소릴 많이 하는데 나는 뭐 그냥 그런 말은 안하지.

우리네는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장사야. 그냥 그냥 뭐 떨어지면 채워 놓고 갖다 팔고. 쉬는 거는 별로 없어. 설 때 명절 때. 명절 때 명절 때 쉬고 추석 설 토요일 일요일은 안 쉬고 남편하고 돌아가면서 일하고 예전에는 쉬었었어. 옛날에는 조금 쉬었는데 이게 또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 그릇 장사들 단합이 안 돼 가지고서 그냥 또 계속 장사 그냥 이어서 하는 거지 뭐. 그릇 장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놀면은 같이 똑같이 한 날 놀아야지. 근데 그제 인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에게 바뀌니깐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 알아서 내가 어딜 간다든가 뭐 일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닫고 가야지 뭐.

하루 이제 얼마 팔면 그거 이제 대충은 알지. 대충. 그냥 그렇게 우리네는 그렇게 살아. 그거 가게부*를 쓴다든가 하루에 뭐 얼마를 쓴다든가 그거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물건도 사고 장사도 하고, 그냥 쓸 데 있으면 쓰고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쓰고 뭐 쓰고 한 거, 지출 그런 거 하나 안 써. 그거 하루에 얼마 썼네, 그거 지출 장부 그런 걸 뭐하러 하고 앉았어, 안 해. 그런 거 안 하는 게 편하고 좋아.

외상도 떼이고 까탈스런 손님들 있어도 다음을 생각해

외상 떼이기도 했어요. 가져가고서 안 가져오는 인간들도 많았어. 이 인간들이 언제 줄게, 내일 모레 월급 타면 줄게,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나타나지가 않아. 이제 그걸 안 갚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 떼야지 뭐.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집으로 받으러 갈 수도 없고. 가끔 까탈스러운 손님도 있어. 이제 물건을 샀는데 조금 안 좋고 뭐가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어. 그러면은 해줄 건 또 해줘야 돼. 해줄 거는 해줘야지. 그거를 그 손

* 달성기물의 회계장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

님하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편하게 편하게 해줘야 돼. 저번에도 압력솥 이만한 걸 17만 원을 팔았어. 팔았는데 밥이 잘 안 되고 어찌 고쳐찌고 아, 일단은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또 다음을 생각해서 하지. 남한테 인정받고 살아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남한테 아우저 여자 밥맛이 어찌구 그런 소리를 되도록이면 안 듣고 살을라구 장사도 그동안은 내가 많이, 열심히 했어.

말두 남한테 내가 이렇게 툭 내뱉었었으면 아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고쳐야겠다. 그런 걸 많이 줌. 말 한마디도 그러,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손님들한테 말을 탁 조금 이상하게 할 때가 있나 봐. 그러면 저 손님이 아우 골랐어 어쨌어 하면, 아니라고 아 그럼 내가 뭔가 저기 내가 앞으로는 내가 고쳐야겠다.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오셨던 집, 그 집 할머니가 지금 100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집을 늘 많이 다니셨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치매도 오고 모든 게 다 병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못 오셔. 그래서 안부 묻고 그래 가지고, 자제 분이 이것도 사 가지고 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서 저 사람도 그냥 들락날락해. 한 집 식구 같으니께. 또 부채 가져간다잖아. 그래 부채 가져가. 부채는 신협에 가면 또 얻어다 놔. 그리고 사람들 가져가고 또 쓰고 여러모로.

연탄불에 껌짝 하나 얹어놓고 밥 먹던 시절의 시장 풍경

우리 때만 해도 살기들이 어려워가지고 요거 (지금 가게의) 반쪽으로 시작했어. 우리 가게도 아니었지. 그때 당시에 세 살았지. 우리 집 여기 살고 여기 또 한 집 살고 그렇게 세 살고서 붙어서 이렇게 사는 거였지. 좁게 살았지. 여기에서 방 한 칸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방 한 칸 여기다

가 석유 난로 넣고 밥 해 먹고, 저런 싱크대가 어디 있어? 여기다 사과깍 이렇게 꺾꽂 놓고 거기다 반찬 올려놓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 저기 연탄불 이렇게 밀어 넣고 하는 거. 전기, 그때는 전기도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장사할 때 밥솥도 없었고 고무장갑도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고, 고무장갑 없이 두 손이 얼어서 여기가 막 얼음도 배기고 손시러워서 찬물로 하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고무장갑 나오더라구. 이만한 방에서 그냥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런 데로 가고, 냉장고도 없었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뱃속에 또 아기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야. 아기들도 이런 조그만 방이 있어서 여기서 방에서 살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남편한테, 그때는 남편들도 철부지였어. 철이 없었나 봐. 껍떡거리고. 애기를 낳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뭐 하는 줄 알아. “남 안 낳는 애기를 낳나”^{*}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소리가 굉장히 섭섭했어.

이런 데서 이렇게 평생을 우리네가 이렇게 살고 지켜왔지. 애기들도 그냥 조그만 방에서 살은 거지. 집에서 애기 키워가며 장사했지. 애기 키워가며 등허리 업고 살림해가며. 당시에 시장에서 애기 낳아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우리뿐이야. 요즘 사람들 누가 애기 짊어지고 장사를 해. 시장 아줌마들이 와서 애기도 봐줬지. 그 때 새댁이라고, 장사 처음 시작하고 애기가 꼬꼬만 방에서 울고, 그냥 깨질깨질하지 뭘. 그러니까 애기도 업어주고 그렇게 한 아줌마들도 있지. 기억 남는 것도 그거야.

결혼하고서 친구들하고 놀러도 많이 다녔어. 그때는 계모임이 많았어.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하다못해 속리산도 사실 그때 당시에 한복 입고 갔어. 그때는 이런 걸(좋은 옷) 못 입어보잖아. 또 젊으니까 옷 사 입

* ‘다른 사람도 다 고생하며 아이 낳는데, 혼자 낳는 것만양 유세를 떠다’는 뜻임

을 줄도 별로 몰랐어.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옷 사 입는다고, 놀러 간다면 옷 사러 다니는 거야. 그때만 해도 한복 입고, 애기 하나 데리고 그렇게 하고 속리산도 놀러 갔고, 이제 관광 가라니께 옷을 사 입어야 할 거 아니여. 옷 사 입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물건만 사고 그냥 보내는 거, 난 민망스러워서 그렇게 못해

살아보면은, 돈도 벌어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돈만 이렇게 쥔 줄만 알면 안 되지. 별기도 하고 조금 베풀 때는 베풀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아유 돈 있다고 막 쥔 줄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사람이 조금씩 베풀 줄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유 나만 알고 돈만 알면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아. 인간대우를 못해. 어디 가서 하다못해 애기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아가 과자 사 먹어 천 원짜리 하나래도 주고. (얼마나 남는지) 그런 생각하면 못해. 솔직히 물건도 그래. 어느 때는 이거 2천 원짜리를 팔어 응 그러면 아줌마들 오면 옛날에 뭐 서비스 좀 하나 홀렁 가져가. 응 그럼 남는 것도 아니여. 그래도 그냥 내버려 뒀. 그럼 그 손님 다음에 또 와. 다음을 생각해서 해야 돼.

장사를 하다가 내가 요거를 얼마까지만 하고 안 한다 하면은 그냥 고 것도 자기가 이렇게 쥐고 지독하고 알뜰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평생을 내가 이거 할 거다, 하면은 손님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나 누어 뭐래도 먹고, 우리 지금 장사해도 박카스랑 요구르트는 꼭 사다 놔. 박카스 줄 사람, 또 하다못해 요구르트 줄 사람 그제 딱 구별이 돼 있어. 항상 먹을 거를 해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물건 사고 더울 때 오면 그

냥 보내면 민망스럽더라구. 근데 아우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만 사
고 그냥 보내는 거 보면 난 민망스러워서 그렇게 못해.

원래 장사하면서 손님들하고 가깝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얘기만 하고 가. 난 그런 게 그렇더라구. 아 내가 ‘요구르트 하나 먹고 가’ 그러지. 그럼 또 하나 마시고 가면은 또 좋아하잖아. 아무튼 그 손님이 항상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고 조금 애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사는 아줌마들도 들락날락거려. 그럼 하다못해 상추도 갖다 줘. 뭐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정이라고 뭐 상추 갖다 줘, 김치 담궜다고 김치 갖다줘, 고추장 갖다줘……. 그런 게 또 많아. 또 나는 얻어먹고는 가만히 안 있지. 또 뭐래도 사다 뵈다 또 주고, 노나 먹고 그렇게 살어. 가깝게 하는 사람은 또 다 뭐 가까운 건 아니지만은 또 유난히 그냥 더 가깝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좋아.

그냥 나 먹고 쓰고만, 돈을 쥐고만 있으면 사람 대우를 못 받아

누가 어쨌다 하면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아까도 누가, 인제 우리 저 거래처에 아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면회 갈 형편이 아니여, 그 사람 우리 아들 같은 저기라, 아까 엄마 와서, 내가 10만 원을 줬지,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누가 아프다든 또 그냥 못 넘어가. 어 또 봉투에 담아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첫째는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지. 그렇게 벌기는 했는데 이제 써야지. 벌 때도 쓸 때는 써야지.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쪼달리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은 안 했어. 일단은 내가 이렇게 벌잖아. 천 원이라도 벌잖아. 남들은 그냥 월급 많이



달성기물은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문을 연다. 설 연휴 빼고는 휴일은 따로 없다.

타서 쓰잖아. 우리는 일단은 그냥 조금 좀 저기하게 살아서도 그렇게 막 아웅다웅 안 했지. 그거 그러다고 뭐 크게 욕심 부리면 사람이 한이 끝이 없어. 모르겠어. 난 그렇게 욕심 안 부려져. 그냥 나 먹고 쓰고만 그냥 징글하게 했었으면 이거보다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은 사람이 대우를 못 받아. 사람이 동기간한테도 그렇고 찐돌이마냥 하면은 동기간도 멀어져.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버는 만큼 나 사는 만큼 동기간한테 3~4만원 짜리 하나라도 사줘야지. 그러니까 동기간들하고 가까워지지. 어느 누구고 다 똑같어.

상인들도 손님들, 서로 팔아주고 나도 그 집 가고

매일 보니까, 오래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시장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지. 상인들도 손님들이야. 서로 팔아주고 또 나는 또 그 집 가서 살 게 있고 서로 다 그렇지 뭐. 그럼 별로 트러블 가질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장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지. 계모임을 많이 했잖아. 시장 상인들도 상인들이지만 저 장사를 할라니까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야잖아. 그래야 또 내 손님도 되고 안 살 것도 야 누구네 집 가서 사자 그런 게 있잖아.

서로 안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모임이 많았었지. 그러면 인저 한 달에 얼마씩 내서 모으면 총무가 모아 가지고 관광버스로 놀러 다니고 그때 당시엔 많이 했지. 지금은 계모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계모임이 많아서 돈 모아가지고, 인자 해외 관광도 많이 가고, 계가 한 대여섯 개는 됐지.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제주도라든가 무슨 저설악산 같은 데 이런 데로 가고, 해외관광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물건 사러 오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게 돼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또 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누구 엄마, 누구 누구 엄마,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이름을 부르면 누구네 집 누구 엄마, 어찌고 저찌고…… 아들 잘 지내지 어찌지. 그런 거지 뭐. 지금도 역시 여기서 동창들도 보고.

지금도 뭐 막 외롭고 그런 건 없어. 우리는 여기가 내 고향이 조치원이라 그러니까 아는 저기가 많았지. 친척도 많구 외갓집 진짜 외갓집에서 여기서도 얼마 안 됐어, 외갓집이. 그럼 이렇게 나오면 눈 뜨고 이웃 사촌이 좋지. 이웃이 서로 말 한마디도 가깝게 해주고 뭐 좀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나 이거 뭐 못해, 이것 좀 해줘.”하면 또 와서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웃사촌이 좋다는 거지. 크게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이 좋다고. 남이라는 거는 쓰면 빨고 뭐 달면 삼킨다고 그러지만 우리네는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가깝게 살아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래도 뭐 누구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 좋기는 좋지. 나 혼자사는 못 살아. 다 서로서로 이렇게 이렇게 도와가며 살아야지. 응 그래서 별로 뭐 외롭고 뭐 그런 건 없었지.



계모임으로 떠난 여행. 친구들과 함께

사람이 나 혼자서 못 살아

사람이 나 혼자서 못 살아. 사람이 그렇게 뭐 서로 노나 먹고 그렇게 살아야 정이 가는 거야. 요구르트 하나 별것도 아니잖아. (마침 가게 앞을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오셔서 사탕을 주고 가심)이것 봐, 사탕 주고 가잖아. 아이고 사람들 다 그러, 사는 게. 내가 복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뭐 내가 지독하게 하면 또 지독해져. 사람들이 안 와. 내가 한 만큼 사람들이 다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아까 그 좀 모자란 애*, 개도 내가 오면 저한테 잘해주거든. 많이 사지는 않지만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뭐가 모자라다고 저기 뭐하고 그런 거는 없어. 내가 그냥 남들한테는 그냥 마음적으로 잘해줘. 물질적으로는 못 해줘도.

외국 애들도 많이 와. 인제 이렇게 물건 사러 오잖아. 외국 애들 처음에는 많이 봤어. 요즘엔 덜하지만. 인제 처음에는 개들도 오면 외롭잖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잘 살라고 등허리 톡톡 두드려주지. 그러면 좋다고 애들이 좋아서 오매가매 또 인사하고. 개네들도 우리 한국하고 똑같어. 친구애들이 오면 뭐 산다면 하면, 또 데리고 와 일로. 데리고 와서 또 물건을 또 여기서 사라고 지네들이 여기를 알선을 해줘. 그러든 물건 와

* 장에 차별적 표현이지만, 구술자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썼다.

서 사가고 내가 저 시장 나오면 반가워해 주고 하니까. 또 하다못해 저는 요만하게, 뭐 과일 하나라도 사면 나를 꼭 주고 갈라 그라. 아유 내가, 개들도 힘들텐데, 내가 이걸 받아먹나 싶어서 안 먹어. 내가 도로 주면은 뭐 죽어도 놓고 가. 외국 애들도 굉장히 정스러운 애들은 정스러워. 중국애들도 그렇고. 좋지. 개네들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개네들은 사는 걸 몰라서, 인저 그럼 지가 조금 먼저 와서 몇 년 살았다고 데리고 와. 애들이 잘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와서 사.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찍어 갖고 와, 지금은. 저 그때만 해도 외국 애들이 처음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애들이 참 어리숙하고 했는데 지금 애들이 많이 약아졌어요. 외국 애들도. 깡을 줄도 알아. 처음에는 이거 천 원 하면 천원 줬는데 지금은 천원에 그러면 깡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정스러워. 외국 애들도.

커리어 우먼 최경희의 집안 살림법

살림이 여기(가게)에 있기 때문에 뭐 사다 쌓아 놓을 것도 없고 또 방도 이렇게 넓고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그냥 애들이 커서 나가고 하니까 살림이라는 건 그려. 여기서 평생을 그냥 살아서. 내가 우리 애는 막 이렇게 호화롭게 막 그렇게 사는 살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거지.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웃도 이렇게 편하게 못 입었지. 장사도 하랴 바쁘지 바빠. 우리 집이 편한 집이 아니야. 요것만(장사만) 한 게 아니었지. 우리 집 아저씨가 옛날에 공장도 했고 우리 집 아저씨도 놀지 않아서 이거 한 가지만은 안 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돼가지고 또 차 사업도 했어. 차를 몇 개 사가지고 뭐 조그만 또 무슨 공장을 했고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공장을 큰 거를 했어. 내

가 주로 장사를 혼자 많이 했지. 아저씨가 가게만 아침에 물건 펴주고 낮에는 나 혼자 장사하는 거야. 그럼 저녁에 와서 치워주고 그렇게 돌이 그렇게 장사했지, 꼬박. 장사는 우리 집 아저씨는 많이 안 했어. 아침 저녁 토요일 일요일 그것만 봐줬지.

애들도 잘 따라주고, 식구들이 다 잘 따라주고 불만 불평 없고 그렇게 하고. 뭐 애들이 집 이렇다고 와서 애기들이 손녀딸들이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애들이 그랴. 지금은 좀 컸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걸 알고 불만 불평은 없어, 별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냄비꼭지가 떨어져서 쓰든 말든 며느리들한테 뭐 하나 뭐 사다도 안 줘. 그런 거 내가 살림 이렇게 하니깐 그렇게 살아.* 애들도 솔직히 애들도 내가 많이 도와줘. 어제도 손자가 왔는데 내가 50만 원 줬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지. 또 애들도 내가 많이 도와줬지. 학원 다닌다면 학원비도 주고. 큰 손녀딸은 공무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학원비 하고 해서 한 달에 백만 원씩을 줬어. 1백만 원씩 내가 2년을 보태줬어, 2년을.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50만 원씩, 이제 또 내가 벌으니깐 내가 아직은 능력 있으니깐, 조금씩 애들을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라도 아유 우리 할머니가 어찌고 저찌고…… 그래도 줘야지 애들이 좋아하지. 안 주고, 그거 내가 돈을 모아놓으면 뭐 할 거야? 잘해줬어. 내가 생각해, 할머니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이 이만치 해줬으면 우리 며느리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손자들도 더 이상은 이만치 해줬으면 이만이 잘해줬다 하고서 더 이상은. 얼마나 더 잘해줘. 이런 엄마도 없다 싶어. 더 좋은 사람도 있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애들도 다 할머니를 다 존중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애들도 그렇고.

* 오히려 며느리들이 최경희 님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준다. 며느리의 본가에서 매실농사를 지어 담가서 주시는 매실액이 그렇게나 색도 곱고 맛있으시다고

또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살 것, 이만큼 해줘서 고맙다

난 또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갈라 하면 안 가. 그래도 이 남편이 그래도 생활력도 저기 했고, 하다못해 과일 깎아 놓으면 우리 마누라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안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잘하고 살기는 살았어. 그렇게 뭐 큰 가정 불안은 없었어. 다 좋을 수는 없지만은. 아쉬운 거는 좀 너무 일찍 갔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 같이 더 살았으면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런 것도 먹고. 살았을 때 즐겼으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주물공장도 하고 했잖아. 근데 우리 아저씨가 운전을 못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데 오토바이로 다녔어. 그런 게 안 됐다 싶은 것이. 좀 좋은 집에서도 좀 살아보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고 그래서 그런 건 마음에 걸려. 그거는. 항상 힘만 들게 살다가 갔지. 그렇게 또 이만치 해놓고 가서 나서부터 우리 애들부터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살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사정할 거 없고. 그냥 나 먹을 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만큼 해줘서 고맙다. 내가 항상 고마운 걸 느껴. 고맙다고는 해. 마음속으로.

내일 못 팔면 모레 팔고, 그릇장사가 내게는 맞아

나는 다른 장사 못 할 것 같아. 싫어. 우리 장사도 힘은 들어. 애가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재고도 많고 힘은 들어. 그래도 다른 장사는 못해 식당도 싫어. 음식 같은 거 해놓고 안 나가면 찌고 버리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돈은 많이 안 벌려도 그게 좋아. 이거를 내일 못 팔면 모레 팔고. 그냥 항상 이어 파는 건데 그래서 우리네는 먹는 장사 그런 건 싫어. 옷 장사도 싫어. 저런 거는 안 맞아. 왜



잘 분류되고 정리된 달성기물 내부

옷장사 같은 건, 저런 거에 비해서는 소비가 조금 빨라. 나 저런 건 못해. 그래도 그냥 내 적성에 맞는 건 애가 맞는 것 같아. 유행도 엄청 안 타고, 그냥 매출도 뭐 많이는 안 팔아도 그냥 나 먹고 살 만치 그냥 그런 정도만 하지. 근데 사람이 욕심은 또 끝이 없는 거지. 근데 욕심은 뭐 아유 그 운이 닿고 그게 따라줘야지 그 욕심도 부리지.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욕심 부리면 뭐 하겠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지금도 그 생각은 늘 많이 해. 내가 참 이렇게 하고 사는 게 그래도 지금은 더 행복하다. 그전에 조금 더 힘들었지. 지금 옆에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즐기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내가 바보 같으면 못하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건데, ‘아 그래도 내가 바보는 아니었었나 보다. 그래도 내가 이만한 살림을……’ 우리 살림이 크면, 컸었어. 우리 살림이 커. 지금 역시 또 나



가는 돈도 많고. 씹씹이가 좀, 지금도 역시 남이 볼 때는 ‘돈 벌어서 다 어디 쓰느냐’ 그랴.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이만치 벌어서 이만치 장사도 하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사는구나 때로는 그렇게 느껴.

내가 이만치 살았으면 잘살았다.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았다, 그랴. 지금은 이걸로 좀 만족해. 더 이상은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애들도 그냥 잘 크고 뭐 애들이 속썩이고 저기는 안 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사람 더 바랄게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인저 할 게 뭐가 있어. 애기가 인저 그냥 건강해야 아프지만 앓고. 그런 거지 뭐 있어 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친절엄마한테도 저년은 시집 가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냥 결혼하고도 와서 또 이런 데 저런 데 뭐 많이는 안 갔어도 한 번씩 가는 데는 다 가봤어. 그냥 후회는 아니야. 그냥 후회 없이 그냥 이제 이걸로 땡 쳐버리면, 나야 이제 인생은 내가 잘 살았다 하고 생각해. 아직까지는 인생은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은 거다. 내가 생각을 해. 후회는 없어.

〈채록자 후기〉

전통시장, 관계와 돌봄으로 도시를 떠받치고

덥혀온 ‘오늘의 심장’



최경희님의 달성기물을 찾은 날은 찜통같은 날씨였다. 얼음 식혜 하나를 사들고 찾아간 달성기물은 출입문이 따로 없었다. 가게는 정면이 오픈되어 있었고, 양쪽에 천막이 묶여져 있었다. 천막으로 가게를 열고닫는 형식이었다. 자물쇠도 열쇠도 필요 없는 구조였다. 가게는 크고 작은 온갖 그릇, 밥솥과 같은 주방용품부터 의자, 물통, 조리도구, 요즘은 찾기 힘든 요강까지 셀 수 없는 물건들이 넓은 가게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와 플라스틱 의자가 있고, 그 옆에는 나무 금고와 50년은 되어보이는 ‘금성’ 티브이, 오래된 외상 장부 책들이 달성기물의 역사를 당당히 증명하고 있었고, 낡은 선풍기 한 대도 자신의 세월력을 자랑하며 돌고 있었다. 마침 손님을 보낸 최경희님이 환하게 웃으며 필자를 맞아주셨다.

인터뷰하며 함께 마시려고 했던 식혜는 오가는 손님들을 대접하다보니 금세 동이 났다. 전통시장은 오일장이나 명절이 아니면 한적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손님이 쉬지 않고 와서 인터뷰는 자주 끊겼다. 가장 더운 시간이었는에도 말이다. 농부는 일하다 쉴만한 의자를, 카페 주인은 계량컵을 찾았다. 거리에서 일하신다는 분은 얼음생수통을 사러 오셨다. 지난 번 물건 값을 못 줘서 돈만 내고 가는 손님도 있고 사탕을 건네고 가는 분도 계셨다. 대부분 “안녕하세요”같은 별스런 인사도 없었다. “전에 사간 거” 달라는 주문에 최경희님은 척척 물건을 찾아왔다. 큰 생수통을 사러온 이에게는 “당신 어깨에는 무겁다”며 작은 통을 건네고, 매실담금통을 사러 온 이와는 매실액에 곰팡이 나지 않는 법을 의논한다. 이제는 백살이 넘고 치매로 가게에 못 나오시는 어머님 대신 나온 자녀에게 어르신 의 안부 묻는 일을 잊지 않는다. 모두 자주 오는 단골들이었다. 연령도 젊은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손님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찾았고, 최경희님은 손님들의 필요를 세세하게 살피고 물었다. 손님들의 취향, 목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건을 추천했다. 싸니 비싸니 흥정은 전혀 없었다. 가격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의 필요-심지어 자신이 정확히 몰랐던-를 알게 하고 정확히 응답을 해내는 최경희님을 보며 전통시장이 오늘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달성기물, 전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상품과 돈을 맞교환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정교하게 짜가는 작업이었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묻고 응답하는 돌봄이었다. 이 돌봄에는 매출액에 잡히지 않는 마음 씀과 배려의 노동이,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고 파는 일의 경건함이 있었다. 그리

고 손님과 상인이 서로를 떠받쳐온 시간들이 쟁여져 있었다. 이것이 달성기 물, 조치원 시장에서 발행하고 유통시켜온 소중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화폐였다. 이 보이지 않는 화폐가 우리 삶을 떠받치고 지탱해오고 있었다. 전통시장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는, 쇠락하고 부양받아야 하는 ‘어제의 전통’이 아니라 관계와 돌봄으로 도시를 떠받치고 덥혀온 ‘오늘의 심장’이었다. 너무 뒤늦은 깨달음에 필자는 몹시 부끄러웠다.

인터뷰를 마친 어느날 저녁, 최경희님과 조치원역 앞 오래된 경양식집에 마주 앉았다. 저녁을 꼭 사드리고 싶었다.(하지만 최경희님이 기어이 사주셨다.) 음식을 내오신 사장님은 최경희님 아드님의 유치원 때 선생님이셨다. 두 분은 반가이 아드님의 안부를 나누었다. 여기도 달성기물인 셈이었다.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여쭙어보았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조금 더, 마음이라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옛날처럼 살 필요는 없지. 하다못해, 어디 몸에 어디 아프기 전에 이거를 내 몸에서 투자해야지. 이렇게 막 이런 새로운 생각도 하고 그래.”

중학교를 못가게 되면서 교복치마를 입은 친구를 보고 혼자 울었던 열 셋의 최경희님, 친구집에 놓아두었던 하이힐에 투피스를 입고 애인을 만나러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섰던 스물 하나의 최경희님, 아이를 업고 한복을 입고 숙리산에 오른 서른의 최경희님을 응원하듯,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로 한” 일흔 아홉의 경희님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곳엔 사람의 향기가 있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사람은 내 집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 나쁜 사람은 내 집 물건을 안사거나 외상만 하고 그 외의 것은 다른데서 사오는 사람이다.’

어디선가 많이 보고 들은 이야기다. 농촌드라마였던 ‘전원일기’의 숙이 네가 입을 뻐죽대며 했던 말이고,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작품 ‘남자의 자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외상은 동네서 하고 싸고 좋은 물건은 그럴듯한 가게나 장날에 사들였던, 암체들이다. 아니 좋게 말하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자리에서 50년 이상 방앗간을 했던 H아저씨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97세. 생의 2/3를 국수들을 누르고 기름을 짜고 떡살을 뺐었던, H아저씨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면서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하루 한 끼는 국수를 먹던 때가 있었다. 국수를 뽑아 나무걸이에 걸어
말리던 아저씨의 모습은 제례의식처럼 늘 경건했다. 그 모습이 어제 일
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함께 조문을 간 고향 선배는, ‘우리 집도 저 아
저씨네 국수 엄청 먹었어야!’ 하면서 시선이 아득해졌다. 그 시선 속으
로 동네 어귀에 있던 만물상회의 비릿한 간 고등어 냄새가 맡아진다. 그
뿐인가. 한 대밖에 없던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몫을 챙겼던 ‘만
화방’. 밥을 굶어가면서 만화방을 드나들던 개구쟁이들 웃음소리가 까르
르, 까르르, 들리는 듯하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중계를 보느라 눈치코치 다 떼버리고 ‘만화방’으
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한여름 저녁. ‘사람들이 차 암, 염치라곤 없어!’
그러면서도 마른 오징어에 잔 소주를 내왔고, 미안해진 사람들은 흠집
난 물렁이 복숭아를 한바가지, 눅눅해진 쌀 튀밥 한바가지를 퍼오는 걸
로 가게 주인 비위를 맞추면서, 시종 낄낄 웃어대지 않았던가.

산문작가 강소금(세종여성플라자 여성생애구술사 감수)

새록(錄) 2기 소개

김경숙 20여년간 학생들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다 멈추고 세종으로 이주하여 아침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글쓰기가 자연스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있는 세종살이 5년차입니다.

김수현 순창의 상단언니가 포도를 보내셨어요. 포도를 먹으며 생각합니다. 저를 먹이시는 상단 언니, 엄마가 되게 해준 딸들, 인간동물됨을 고민하게 해준 비인간동물 달이, 그냥 수현이가 아니라 비장애인 수현이라는 걸 깨우쳐준 벅 경희, 세종도서관 책을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기어이 찾아주신 누군가……. 모두의 덕분에 근근이 삽니다.

오연정 세종살이 10년 차,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의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세종여성생애구술사 작업에 두해째 참여하였습니다.



이근하 세종 전의면 3년차. 사람 이야기를 읽고, 듣고, 쓰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즐기는 보통 사람입니다.

정혜경 세종살이 9년차. 잊었던 나의 색을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상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미희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읽고 쓰는 사람입니다.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 새록(錄)

세종시 여성 생애 구술사 2 : 여성 시장상인편

총괄 이진선(세종여성플라자 교육사업팀장)

구술자 김순자, 김종귀, 안동예, 이근숙, 이순희, 최경희

기록자 김수현, 김경숙, 오연정, 이근하, 정혜경, 조미희

감수 강소금(산문 작가)

영상 박민정, 박지현, 신지연, 유금령, 이대우

발행일 2024년 12월 5일

발행인 홍만희(세종여성플라자 대표)

발행처 세종여성플라자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4층(새롬동)

<https://sj-equity.or.kr>

대표전화 044-863-0380

디자인 도하디자인

©세종여성플라자, 2024

ISBN 979-11-986196-1-7 (93990)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삶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한다
새록●錄

비매출/무료

93990



9 791198 619617

ISBN 979-11-986196-1-7